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028-01

수탁보고 2020-23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연구

이정림·조숙인·구자연·우현경·윤유나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028-01

수탁보고 2020-23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 속 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우 현 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윤 유 나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028-01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연구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전화 044-202-3420
팩스 044-202-3967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보건복지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특성 및 범위	9
II. 연구의 배경	11
1. 부모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13
2. 국내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	31
3. 국외 부모교육	40
4. 소결	51
III. 부모교육과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 및 요구	53
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55
2. 부모교육 참여경험	56
3.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76
4.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83
5. 소결	109
IV. 부모교육 경험과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관련 요구	113
1. 면담 진행 과정 및 면담 참여자 정보	115
2.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117
3. 부모교육 전달 방법에 대한 의견	131
4. 소결	146
V.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149
1. 기본 방향	151

2.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및 활성화 방안	154
3. 포탈 구축 시 정부 주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적용 예시(안)	165

참고문헌	171
-------------------	------------

부록	177
-----------------	------------

1. 설문조사표	177
2. FGI 면담자료	190



표 목차

〈표 Ⅰ-3- 1〉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내용	6
〈표 Ⅰ-3- 2〉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부모 수	7
〈표 Ⅰ-3- 3〉 설문조사 항목	8
〈표 Ⅱ-1- 1〉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14
〈표 Ⅱ-1- 2〉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 실시의 추진체계	16
〈표 Ⅱ-1- 3〉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의 대면교육	16
〈표 Ⅱ-1- 4〉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의 비대면교육	17
〈표 Ⅱ-1- 5〉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의 온라인 서비스	20
〈표 Ⅱ-1-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의 법적근거	22
〈표 Ⅱ-1- 7〉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내용	24
〈표 Ⅱ-1- 8〉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 구분	24
〈표 Ⅱ-1- 9〉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교육내용	28
〈표 Ⅱ-1-10〉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발간 자료	29
〈표 Ⅱ-2- 1〉 부모교육 실태 및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내용	35
〈표 Ⅱ-2- 2〉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내용	38
〈표 Ⅱ-2- 3〉 부모교육 제도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 내용	39
〈표 Ⅱ-3- 1〉 미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	41
〈표 Ⅱ-3- 2〉 영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	45
〈표 Ⅲ-1- 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56
〈표 Ⅲ-2- 1〉 부모교육 참여여부	57
〈표 Ⅲ-2- 2〉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60
〈표 Ⅲ-2- 3〉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	61
〈표 Ⅲ-2- 4〉 참여했던 부모교육 장소(복수응답)	63
〈표 Ⅲ-2- 5〉 부모교육 참여 경로	64
〈표 Ⅲ-2- 6〉 부모교육 참여 이유	65
〈표 Ⅲ-2- 7〉 참여했던 부모교육 만족도	66
〈표 Ⅲ-2- 8〉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만족하는 이유	67
〈표 Ⅲ-2- 9〉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	68

〈표 Ⅲ-2-10〉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69
〈표 Ⅲ-2-11〉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
〈표 Ⅲ-2-12〉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 학부모지원센터	71
〈표 Ⅲ-2-13〉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	72
〈표 Ⅲ-2-14〉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73
〈표 Ⅲ-2-15〉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학부모지원센터	74
〈표 Ⅲ-2-16〉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방식	75
〈표 Ⅲ-2-17〉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76
〈표 Ⅲ-3- 1〉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78
〈표 Ⅲ-3- 2〉 부모교육의 목적으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79
〈표 Ⅲ-3- 3〉 자녀연령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1순위)	80
〈표 Ⅲ-3- 4〉 자녀연령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1+2순위)	81
〈표 Ⅲ-3- 5〉 지역유형별 자녀연령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81
〈표 Ⅲ-3- 6〉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1순위, 1+2순위)	82
〈표 Ⅲ-4- 1〉 아동수당을 받기 전의 아동수당 인지도	83
〈표 Ⅲ-4- 2〉 아동수당 인지 경로	84
〈표 Ⅲ-4- 3〉 아동수당 신청 경로_전체	84
〈표 Ⅲ-4- 4〉 아동수당 신청 경로	85
〈표 Ⅲ-4- 5〉 아동수당 지급 만족도	85
〈표 Ⅲ-4- 6〉 아동수당 지급 불만족 이유	86
〈표 Ⅲ-4- 7〉 모든 소득계층의 영유아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의견	87
〈표 Ⅲ-4- 8〉 아동수당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88
〈표 Ⅲ-4- 9〉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의 의무적 실시에 대한 의견	89
〈표 Ⅲ-4-10〉 의무적 부모교육 실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	90
〈표 Ⅲ-4-11〉 의무적 부모교육 실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유	91
〈표 Ⅲ-4-12〉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실시 방식에 대한 선호도	92
〈표 Ⅲ-4-13〉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횟수	93
〈표 Ⅲ-4-14〉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시간(1회 당)	94
〈표 Ⅲ-4-15〉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교육장소_1순위	95

〈표 III-4-16〉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교육장소_종합(복수응답)	96
〈표 III-4-17〉 오프라인 부모교육 교육방식	97
〈표 III-4-18〉 오프라인 부모교육 집단규모	98
〈표 III-4-19〉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횟수	99
〈표 III-4-20〉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시간(1회 당)	100
〈표 III-4-21〉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교육방식	101
〈표 III-4-22〉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집단규모	101
〈표 III-4-23〉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 연간 횟수_	
1) 오프라인	102
〈표 III-4-24〉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 연간 횟수_	
2) 온라인	103
〈표 III-4-25〉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 시간(1회 당)_	
1) 오프라인	103
〈표 III-4-26〉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 시간(1회 당)_	
2) 온라인	104
〈표 III-4-27〉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장소_1순위	104
〈표 III-4-28〉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장소_종합(복수응답)	106
〈표 III-4-29〉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방식	107
〈표 III-4-30〉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 집단규모	108
〈표 III-4-31〉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 집단규모	108
〈표 III-4-32〉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온라인교육 집단규모	108
〈표 IV-1- 1〉 심층면담 대상자 정보	116
〈표 IV-1- 2〉 심층면담 대상 및 가구 특성	116
〈표 V-3- 1〉 정부 부처별 산하기관의 영유아 연령별 부모교육 내용	167



그림 목차

[그림 Ⅰ-2- 1] 연구수행체계	5
[그림 Ⅱ-1-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자녀양육지원 화면	18
[그림 Ⅱ-1-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e-러닝 화면	18
[그림 Ⅱ-1- 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메인 화면	19
[그림 Ⅱ-1-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튜브 화면	19
[그림 Ⅱ-1-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달체계도	23
[그림 Ⅱ-1- 6]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매뉴얼 및 교육자료 구성	25
[그림 Ⅱ-1- 7]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사이트 - 부모교육강사매뉴얼	26
[그림 Ⅱ-1- 8]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사이트 - 부모교육 동영상	26
[그림 Ⅱ-1-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기능	27
[그림 Ⅱ-1-10]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30
[그림 Ⅱ-1-11] 학부모On누리 - 학습마당	30
[그림 Ⅱ-3- 1] 뉴질랜드 교육부 부모 지원 자료 - 메인 화면	47
[그림 Ⅱ-3- 2] 뉴질랜드 교육부 부모 지원 자료 - Learning ideas	48
[그림 Ⅱ-3- 3] 뉴질랜드 교육부 부모 지원 자료 - Child protection	48
[그림 Ⅱ-3- 4] 뉴질랜드 교육부 부모 지원 자료 - Staying calm with a crying baby	49
[그림 Ⅲ-2- 1] 참여했던 부모교육 장소(복수응답)	63
[그림 Ⅲ-2- 2] 부모교육 참여 이유	65
[그림 Ⅲ-2- 3]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만족하는 이유	67
[그림 Ⅲ-2- 4]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	68
[그림 Ⅲ-2- 5]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방식	75
[그림 Ⅲ-3- 1]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1순위, 1+2순위)	83
[그림 Ⅲ-4- 1] 아동수당 인지 경로	84
[그림 Ⅲ-4- 2] 아동수당 신청 경로_전체	84
[그림 Ⅲ-4- 3] 아동수당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한 전체의견	88
[그림 Ⅲ-4- 4] 의무적 부모교육 실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유	91
[그림 Ⅲ-4- 5]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시간(1회 당)	94

[그림 Ⅲ-4- 6] 오프라인 부모교육 집단규모	98
[그림 Ⅲ-4- 7]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횟수	99
[그림 Ⅲ-4- 8]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집단규모	101
[그림 V-1- 1]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원방안	153
[그림 V-3- 1] 정부 주관 부모교육의 키워드(안)	165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연구의 특성 및 범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아동수당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수혜 아동의 연령 확대 및 선별지급 방식에서 보편지급 방식 등으로 개편됨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18년 3월에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여 소득·재산 하위 90%인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을 2018년 9월부터 지급하였다. 2019년도에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2019년 4월부터 만 6세 미만,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아동수당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변경되어 확대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1. 19).

그러나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에 불과한 단순 양육보조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아동수당 관련 빅데이터 감성어 분석 결과, ‘부족, 포퓰리즘’ 등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3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윤혜민·최은정, 2019). 아동수당에 대한 연령 확대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아동의 권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제도 개선 및 연계방안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 연계의 사례로 아동수당 미신청 정보가 e-아동행복시스템의 신규변수로 추가되어 아동학대 등 위기 아동 사전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 다양한 제도 연계방안 모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가계 경제의 어려움, 양육자의 심리적 불안 증대 등으로 인한 학대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부모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모교육은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부모교육 수행기관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이 많

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부모-자녀, 부부간 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교육 및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와 산하기관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학부모 자녀교육·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상의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내용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 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국가 수준에서 행해지는 부모교육의 내용이나 전달방식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부모가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찾아 일회적이고 단발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맞벌이, 한부모 등과 같이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부모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부모교육이 개선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권리·복지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아동수당 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부모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 및 이수를 위해 아동수당과의 연계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부모교육 실태 및 국외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내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 산재된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 내용, 교육 이수 현황, 전달방식, 전달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주요국의 부모교육 내용, 전달체계 및 전달방식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 부모교육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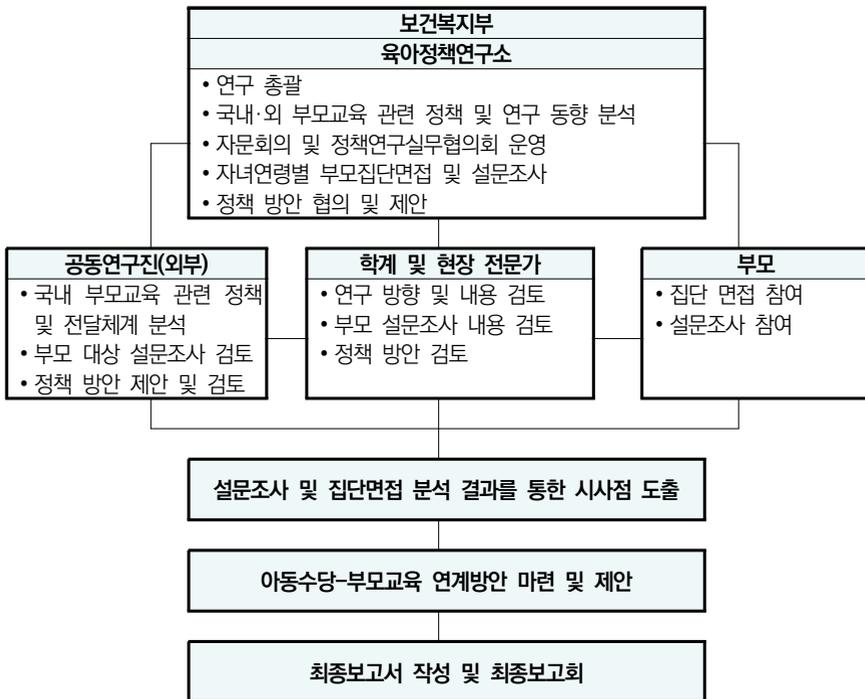
둘째,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수당 대상 자녀를 둔 부모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예비부모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실태 및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연령(임산부, 영아, 유아)과 지역 특성(대도시/읍면)을 고려하여 부모 대상의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아동수당 및 부모교육에 관한 부모의 의견과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아동수당 등과 연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를 위한 포털구축 등의 방안 마련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모든 부모들이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과정과 추가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심화과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선정과 탑재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동중심,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시간, 전달방식 제안 등을 포함한 부모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이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I-2-1] 연구수행체계



3. 연구 방법

가. 국내·외 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

먼저, 국내의 부모교육 관련 법과 제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부모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관련 연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 부모교육 제도화 관련 연구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홍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부모교육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의 서면 검토를 포함한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7회 개최하였고, 부처 관련 공무원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사업 관련 산하기관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당 부처 소속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전달방식, 전달체계 등에 관한 내용 파악 및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표 I-3-1〉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내용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1차	10.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무관	연구 방향 및 연구 내용 검토(착수보고)
2차	10.19.~ 10.2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어린이집 원장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지 서면 검토
3차	10.19.~ 10.21.	아동학과 교수 1인 아동보육과 교수 1인	학계전문가 대상 설문지 서면 검토
4차	10.2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조사' 설문지 검토
5차	11.18.	구로구 드림스타트 주무관 구로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은평구 드림스타트 팀장 은평구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권리보장원 팀장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 담당 대리	보건복지부 부모교육 사업 관련 의견수렴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6차	11.25.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센터장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전문원 2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교육부 부모교육 사업 관련 의견수렴
7차	11.2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부장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사업 관련 의견수렴
8차	11.24.~ 11.26.	어린이집 원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서면 자문

다. 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자녀 연령(태아~만6세 이하)과 지역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고려하여 표본을 구축하였고,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는 총 924명이었다. 부모(조부모) 중에서 주양육자 1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역규모별 설문조사 참석 부모 경향을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 부모 314명, 중소도시 324명, 읍면지역 부모 28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자녀 연령별 설문조사 참여 부모 수는 <표 I-3-2>에 제시하였다.

<표 I-3-2>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부모 수

구분	자녀 연령	참여 부모 수
1	태아(임신중)	(92)
2	만0세(출생~11개월)	(110)
3	만1세(12~23개월)	(126)
4	만2세(24~35개월)	(122)
5	만3세(36개월~47개월)	(120)
6	만4세(48개월~59개월)	(118)
7	만5세(60개월~71개월)	(118)
8	만6세(72~83개월)	(118)

2) 조사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부모교육 경험 여부, 부모교육 내용 및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인식,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표 I-3-3〉 설문조사 항목

구분	질문지 내용
부모교육 참여 경험	부모교육 참여 경험 횟수,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 부모교육 장소, 참여경로, 부모교육 참여 이유 및 만족도, 부처 산하기관 운영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만족도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 연령별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아동수당 인지여부 및 인지 경로, 아동수당 만족도, 아동수당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시 선호하는 교육 방식 등
응답자 특성	연령, 가구원 수, 가족 유형, 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학력 등

3)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전문조사 기관이 보유한 패널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라. 부모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신생아기(임산부 포함), 영아기,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별로 약 6명 정도의 집단을 구성하여 총 1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자 지역을 대도시와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부모 대상의 면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은 면담자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개인/집단 면담, 대면/비대면 면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 참조).

4. 연구의 특성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같은 아동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만들어진 아동수당을 부모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대상을 아동수당 대상의 연령을 둔 부모가 주된 연구대상이었고, 예비부모로서 임신부를 포함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0세~만6세 자녀를 둔 부모와 임신부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내용, 전달방식, 전달체계,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주로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0~83개월)의 부모를 포함한 이 시기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주양육자(위탁모, 양육시설 기관장, 그룹홈 기관장 등)를 모두 포함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연구 일정과 비용 등의 제한으로 부모와 조부모 외의 양육자까지는 포함하지 못했다. 또한, 취약계층 중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은 특성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부모 요구는 자세히 파악하지 않았다. 반면,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의 주양육자에 해당하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나 위탁부모에 대한 요구, 장애부모에 대한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구(이정림·최정원·최윤경, 2019)와 장애 영유아(박창현·김근진·이은혜·배울미, 2019, 이정림·이윤진·박현옥, 2017)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어 향후 이들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및 전달 방식 등을 구성할 때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관한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II

연구의 배경

01 부모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02 국내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

03 국외 부모교육

04 소결

II.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아동수당을 부모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부모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국내 부모교육의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에 시사점을 얻고자 국외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사례를 조사한다.

1. 부모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각 부처 내 기관 별로 다양한 대상과 연령 구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민간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모교육은 제외하고, 국가 재원이 투입된 공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처별 관련 법령 및 제도, 각 부처 내 기관별 부모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2(보호자 교육)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중앙, 시도,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전국 공통부모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에 센터별로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부모교육 및 양육지원 사업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양육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통의 부모교육 운영이 요구되었다. 2016년 공통 부모교육의 전국 확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클로버 부모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공통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확산 및 보급되어 왔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의 부모교육을 공통으로 실행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일관된 부모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가 마련되었고, 2018년 온라인 부모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통해 대면 및 비대면의 상시적 부모교육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1〉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법령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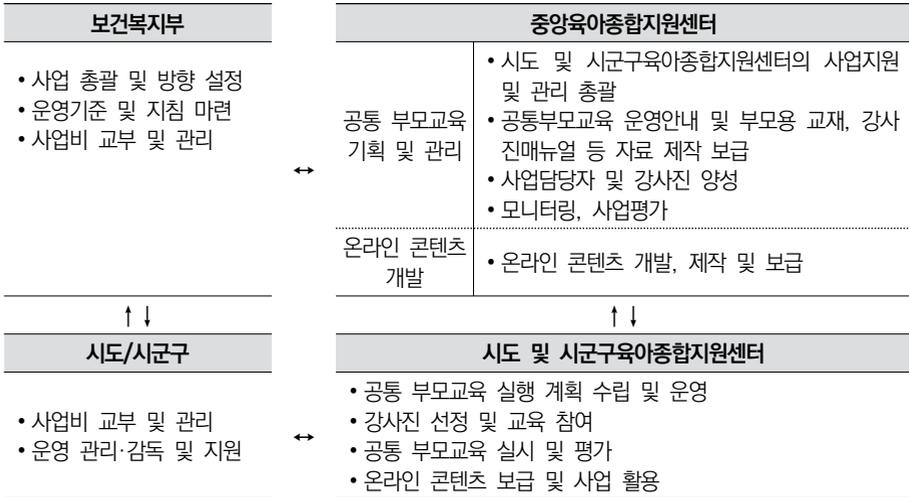
법령	내용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 지원 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제9조 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 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 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 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0. 10. 27. 인출.

2)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 실시 현황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통부모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센터의 공통부모교육 사업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시군구 센터의 실무 지원 및 공통부모교육 사업 운영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II-1-2〉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 실시의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2020년도 공통 부모교육 사업 운영 안내. p. 16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통부모교육은 대면교육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대면 사업을 병행하였다. 비대면 부모교육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온라인콘텐츠와 연계하여 부모교육 실시 후 놀이키트 제공, 실시간 비대면 부모교육 실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통으로 실시된 대면, 비대면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3〉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의 대면교육

구분	교육명	시행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버 부모교육 - 교육: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 부모-자녀 체험활동: 영아 12가지, 유아 20가지 총 32가지 활동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육아정보는 어디? 여기! 가독) - 임신, 출산을 앞둔 가족 및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육아정책 및 지원 서비스 소개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놀이양육 환경 점검 -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놀이환경 및 안전한 양육환경 관리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양육태도 점검(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 자녀와의 긍정적인 놀이행동 촉진하는데 중점 	2018년

구분		교육명	시행
아이 마음 헤아리기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권리존중(존중하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 자녀권리존중 양육의 의미 및 부모됨에 초점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 학대에 대한 이해, 관련법 소개 및 가정 내 자주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방법 안내 	2017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발달 이해(발견! 아이강점, 키움! 가족놀이) - 자녀의 개별적 특성과 강점에 따른 놀이방법과 상호작용 안내 	2018년
내 마음 토닥이기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스트레스 관리 - 양육 스트레스 요인(정체성 스트레스, 완벽한 부모 스트레스, 현실 육아 스트레스, 관계 갈등 스트레스)에 따른 4가지 모듈의 워크숍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및 긍정적인 양육 지원 	2021년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2020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자료집을 토대로 작성함.

〈표 II-1-4〉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의 비대면교육

구분		교육명	시행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놀(면서)자(란다)! - 클로버 부모교육 온라인 영상 시청 후 놀이키트 제공 • 놀이를 부탁해 - 영유아 가정을 위한 놀이아이디어 제공 	2020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수룩)자(란다)! 알(수룩)자(란다)! - 부모-자녀 놀이 영상에 대한 전문가 자문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놀(면서)자(란다)! - 가정 내 놀이 환경 점검 온라인 영상 시청 후 놀이키트 제공 	2020년
아이 마음 헤아리기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놀(면서)자(란다)! - 자녀 권리 존중 온라인 영상 시청 후 놀이키트 제공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놀(면서)자(란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 영상 시청 후 놀이키트 제공 	2020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놀(면서)자(란다)! - 영유아 발달 이해 온라인 영상 시청 후 놀이키트 제공 	2020년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2020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자료집을 토대로 작성함.

3)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

양육자의 여건에 따라 상시적으로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의 보급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이러닝 시스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포털 서비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림 II-1-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자녀양육지원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Parenting Support' (가정양육지원). The main heading is '양육 스트레스 관리' (Parenting Stress Management). Below the heading, there are several dropdown menus for filtering content, such as '클러버', '프로그램 양육정보 안내', '가정 내 놀이환경 점검', and '부모 양육태도 점검'. A featured article titled '[내 마음 토닥이기] (심화)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Soothe My Heart (Advanced) Parenting Stress Management Parent Education) is highlighted. The article includes a '교육소개' (Course Introduction) and a '유형소개' (Course Type Introduction) table.

Module	주제	내용
(Module 1)	경제성 스트레스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경제성 혼란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삶과 엄마의 삶을 통합하여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Module 2)	완벽한 부모 스트레스	현대사회의 높은 기준에 따라 양육과 부모역할에 대한 강박적인 완벽성을 추구 하려는 부담감을 해소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Module 3)	현실 육아 스트레스	아이의 불안 및 애착에 대한 이해, 떼쓰기 유형별 접근법 등 현실적인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Module 4)	관계 갈등 스트레스	배우자, 조부모를 비롯한 육아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효과 적인 의사 소통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모듈별 워크숍은 3회기(1회기 당 2시간 내외)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 2020. 10. 29. 인출.

[그림 II-1-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e-러닝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e-러닝' (e-learning) section of the website. It features a search bar with the text '과정명으로 검색' (Search by course name).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table listing available courses.

번호	센터명	분야	과정명	신청기간	학습기간	신청/전체	수강신청	상세보기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교육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1. 01. 04 2021. 12. 31	2021. 01. 04 2021. 12. 31	1319/10000	수강신청	상세보기
5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경신건강: 활복한 교사되기	2021. 01. 04 2021. 12. 31	2021. 01. 04 2021. 12. 31	432/10000	수강신청	상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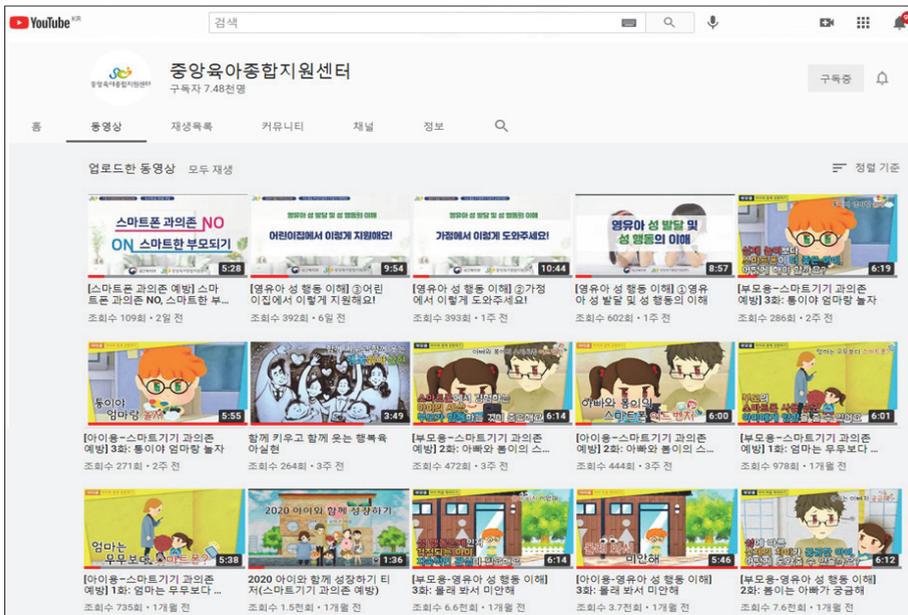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 2020. 10. 29. 인출.

[그림 II-1-3]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메인 화면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2020. 10. 30. 인출.

[그림 II-1-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튜브 화면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kxBUwPcX5EF_XmCHQWoGg, 2020. 10. 30. 인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부모교육의 내용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1-5〉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의 온라인 서비스

구분	교육명	시행	내용	비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입문	클로버 부모 교육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멧진아이 골든벨(4종) 교육용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멧진아이 골든벨① - 멧진아이 골든벨② 중립언어로 말하기 - 멧진아이 골든벨③ 나의 대화신호등 알아보기 - 멧진아이 골든벨④ Oh! No대화, Oh! Yes대화 • 멧진아이 유레카(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멧진아이 유레카① - 멧진아이 유레카② 생각을 여는 질문하기 - 멧진아이 유레카③ 대화 CCTV - 멧진아이 유레카④ 위험한 칭찬, 위대한 칭찬 	교육 영상
			2018년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버 부모교육(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 영상 	교육 영상
	심화	가정 내 양육 환경 점검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부모교육(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스마트폰 활용 환경 점검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부모교육(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저 영상(콘텐츠 활용 안내) - 엄마는 무무보다 스마트폰?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검 필요성) - 아빠와 봄이의 스마트폰 어드벤처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 - 통이야 엄마랑 놀자 (실제 놀이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은 아이) 	교육 영상 애니메이션
아이 마음 헤아리기	기본	자녀 권리 존중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1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저 영상 - 옆집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낮가림) - 내 친구 보들바방 (애착물) - 이제 같이 놀아도 돼? (또래간 다툼) - 아빠보다 아빠 어플! (미디어중독) - 밥 먹기 전쟁! (편식) - 딱 한 개만 보려고 했는데... (미디어중독) - 마음이 기울어지면 터지는 풍선! (형제간 다툼) - 나는 불! 아빠는 얼음! (떼쓰기) - 진정한 정글의 왕! (거친 놀이를 즐기는 아이) - 장난감이 되어버린 전집 (놀이의 중요성) 	애니메이션
		아동 학대 예방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교육(1종) 	교육 영상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 내가 싫어? (신체적 학대) - 혼자 있는 건, 정말 무서워! (방임) 	애니메이션

구분		교육명	시행	내용	비고
	심화	영유아 발달 이해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성 행동 이해 부모교육(3종) - 영유아 성 발달 및 성 행동의 이해 -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지원해요 	교육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성 행동 이해 부모교육(4종) - 티저 영상(콘텐츠 활용 안내) - 새우가 좋아서 그랬어 (좋아하는 마음을 스킨쉽으로 표현하는 아이) - 봄이는 아빠가 궁금해 (성에 따른 신체의 차이가 궁금한 아이) - 몰래 봐서 미안해 (성 행동문제인지 걱정되는 아이) 	애니메이션
내 마음 토닥이기	심화	양육 스트레스 관리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2종) - 소개 영상 	교육 영상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2020년도 공동 부모교육 사업 운영 안내 자료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kxbAUwPcX5EF_XmCHQWoGg, 2020. 10. 30.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정보제공), 제26조(민중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32조(건강가정교육)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 제34조(건강가정 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하여 설치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 및 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부모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은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가족 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활동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가족 문제에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 가족과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의 법적근거

법령	내용
건강가정 기본법	<p>제11조(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p>
	<p>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p>
	<p>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 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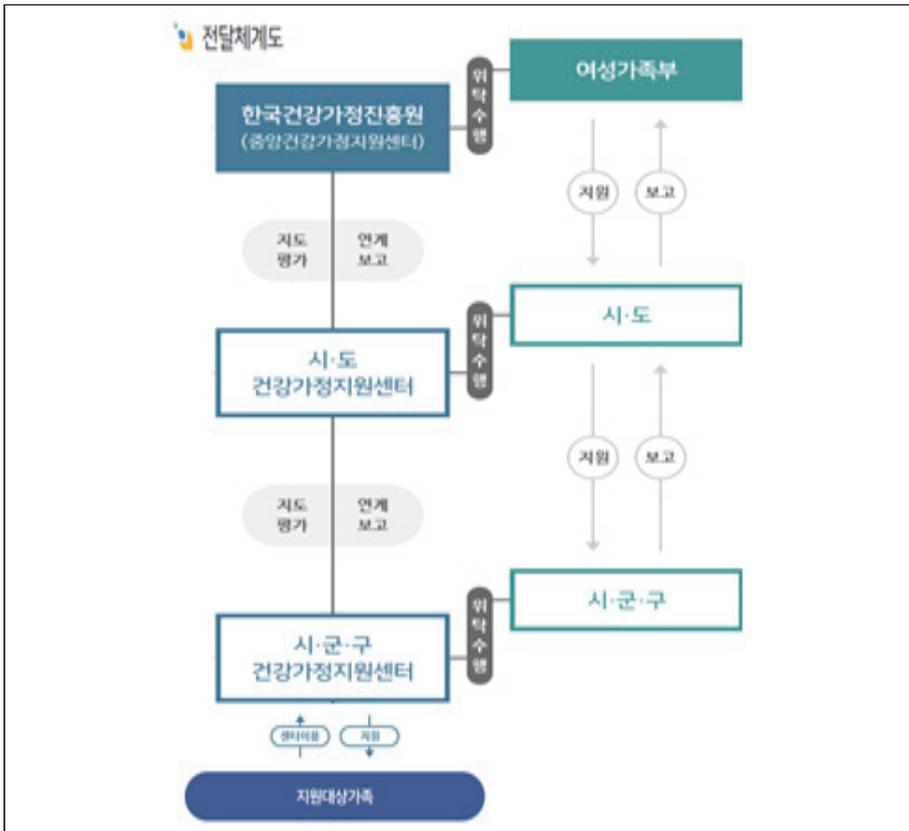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0. 10. 27. 인출.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실시 현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며 강사진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사업을 운영한

다. 배포된 사업 매뉴얼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표준매뉴얼로 각 사업별로 개발된 매뉴얼 중 부모 교육과 관련된 회기를 선별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용가능하다.

[그림 II-1-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달체계도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 2020. 10. 27. 인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단계별(예비부모교육,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부모역할 및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통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 외에 각 센터별 자체 부모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내용 및 사업의 유형 구분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II-1-7〉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내용

구분	회기	대상	내용
자녀 생애 주기	1	공동	부모됨의 의미, 중요성,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습득, 부모로서의 나를 점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
	2	예비부모	준비된 부모의 중요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부모됨 이해, 임신과 출산 과정 이해
		영유아기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특성 및 중요성, 그에 따른 부모역할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의 실천 및 안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학령기	아동기 자녀의 발달특성 및 중요성, 그에 따른 부모역할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의 실천 및 성장지향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청소년기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특성 및 중요성, 그에 따른 부모역할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의 실천 및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아버지 교육	1	아버지 교육1	아버지됨의 의미와 중요성, 동기 등에 대한 인식, 아버지로서의 나를 점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
	2	아버지 교육2	좋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자녀연령별/성별에 따른 아버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자료: 김길숙·김지현·이혜민(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p. 115 에서 재인용

〈표 II-1-8〉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 구분

구분	프로그램	사업내용
공통 사업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포함한 생애주기별(조)부모교육 • 예비부부·부모대상 고비용 혼례 교육 • 연간 센터당 30명 교육
	남성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 연간 20시간 이상
자유 사업	신혼기 가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준비교실 • 공통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혼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년기 가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가족경영아카데미, 부부관계증진교육, 의사소통 교육 등
	노년기 가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준비교육, 은퇴설계교육, 노인대상 자기돌봄강화 프로그램 등
	자녀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아카데미, 창의력 교실, 진로교육, 폭력예방교육, 예절교육 등

자료: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2017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p. 39.

[그림 II-1-6]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매뉴얼 및 교육자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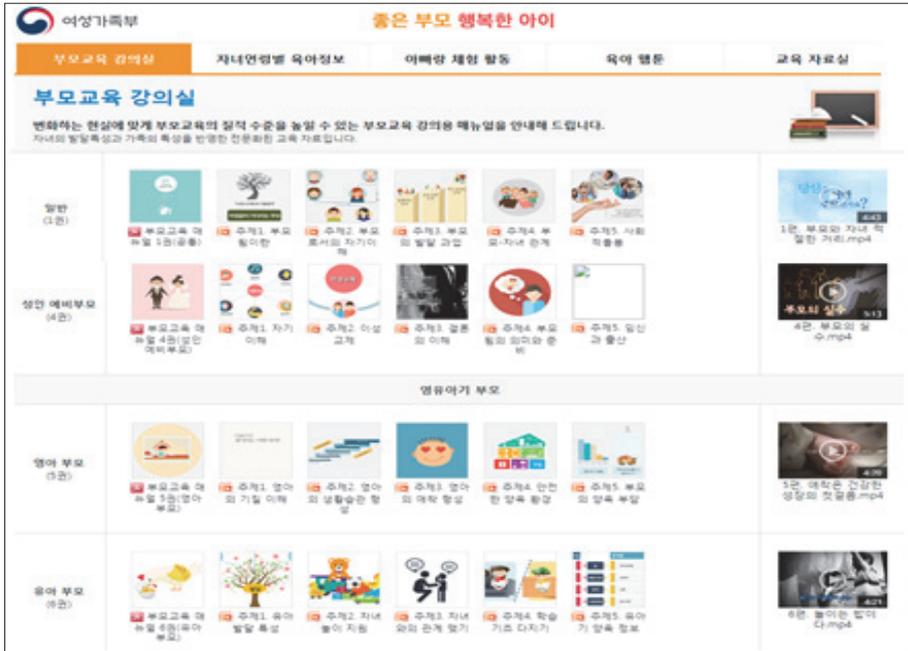
생애주기별		주제	매뉴얼	PPT	동영상
총론		-	총론	-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 (종합)
공통		5개	제1권	5종	부모와 자녀, 적절한 거리
예비부모	청소년	10개	제2, 3권	4+6종	돌봄은 힘이 세다/ 스스로 양말을 개 본적이 있나요?
	성인	5개	제4권	5종	부모의 실수
영유아	영아 부모	5개	제5권	5종	예측은 건강한 성장의 첫걸음
	유아 부모	5개	제6권	5종	놀이는 밥이다
학령기	초등 부모	5개	제7권	5종	가장 큰 선물을 함께하는 시간
	중등 부모	5개	제8권	5종	I-Message로 대화 나누기
	고등 부모	5개	제9권	5종	부모는 최고의 진로 상담가
아버지		5개	제10권	5종	아빠 효과
가족특성별 (한부모, 다문화, 장애, 입양, 조부모)		6개	제11권	6종	어느 소년의 꿈
상담		6개	제12권	6종	대화가 필요해
총계		총 62개	총 13권	총 62종	총 13종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 2020. 10. 27. 인출.

3)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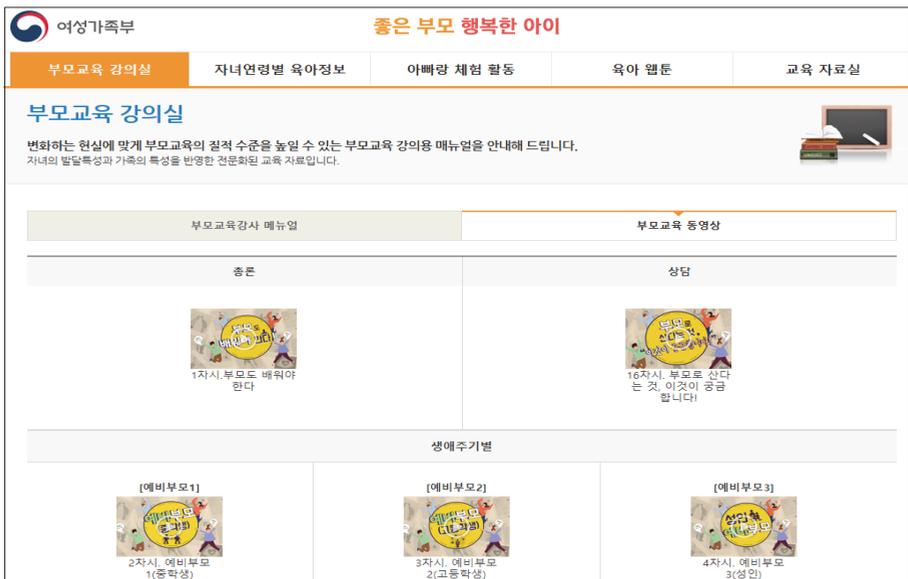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의 구성은 ‘부모교육 강의실,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아빠랑 체험활동, 육아웹툰, 교육자료실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교육 강의실에는 ‘강사매뉴얼’과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림 II-1-7]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사이트 - 부모교육강사매뉴얼



자료: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ps/main.do>, 2020. 10. 27. 인출.

[그림 II-1-8]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사이트 - 부모교육 동영상



자료: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ps/main.do>, 2020. 10. 2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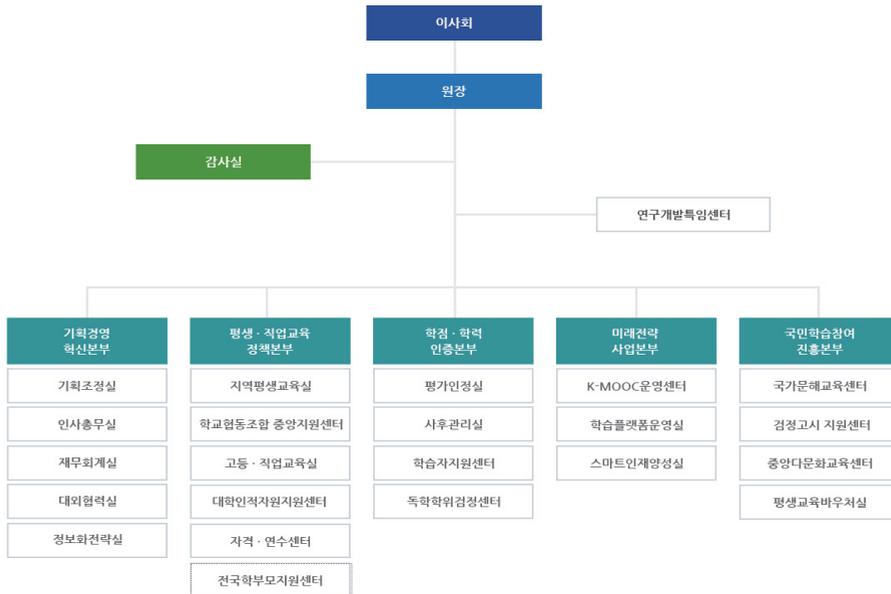
다. 교육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은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해 설치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전국 공통부모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국가 차원의 학부모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 정보를 학부모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부모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부서로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은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헌법 제31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과 관련한 법령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 법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의 자치법규(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속해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기능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 2020. 10. 27. 인출.

2) 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시 현황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센터 를 통해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교육청과 지역 시도별 학부모지원센터의 자 료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교육내용과 센 터 발간 자료는 다음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II-1-9〉 전국학부모지원센터 교육내용

제목	교육시간	내용
우리아이 유치원 보내기	6시간	유치원 선택방법, 유아교육제도, 친구 사귀기, 대화법까지 한 번에!
우리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10시간	입학준비, 학습방법, 학습습관, 독서교육 포인트까지 알차게!
우리아이 중학교 보내기	6시간	중학교 교육과정, 사춘기 이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완벽 대비!
우리아이 고등학교 보내기	6시간	고등학교 선택, 과목별 학습법, 진로설계까지 한 눈에!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5시간	비전 설정, 스트레스 극복 등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코칭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6시간	안전지대와 비전 키우기 등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코칭
우리아이 경제교육	8시간	용돈교육 등 스스로 돈을 통제, 관리하는 독립경제인으로 키우기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우리가족	5시간	자녀 공감대화, 적극적 경청법 등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소통방법
지혜로운 부모, 훌륭한 학부모	5시간	자녀의 발달단계, 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녀 양육 TIP
학부모 학교참여	1시간	학교 교육활동, 의사결정과정 등 학교참여의 이해와 참여방법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5시간	독서습관 만들기,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등 자녀의 독서활동 노하우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6시간	예, 책임, 효, 정직과 소통, 존중, 배려와 협동 등 6가지 교육비법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8시간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별 창의성 발달 과정 및 계발 노하우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	15시간	학교수업 성공원칙, 학습계획, 자기주도학습 방법과 코칭 사례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7시간	진로목표 설정,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설계까지 진로 진학의 모든 것
자유학기제, 학부모교육 매뉴얼	5시간	효과적인 진로교육 및 교과학습 등 성공적인 자유 학기제를 위한 가이드
학습자를 사로잡는 강의법	6시간	교수설계, 수업전략 활용, 수업기술, 창의적 사고기법까지 효과적 강의법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index.do>, 2020. 10. 5. 인출.

〈표 II-1-10〉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발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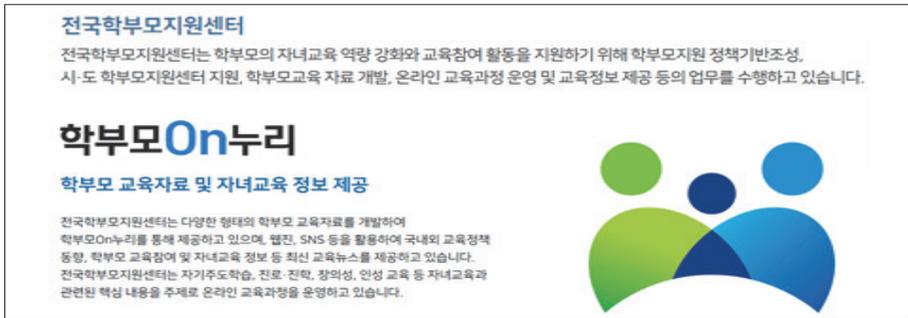
구분	내용
발달특성이해	사춘기 내 자녀, 때로는 미울 때가 있다
	부모가 주고싶은 사랑, 자녀가 받고싶은 사랑
	초보학부모를 위한 올바른 자녀 양육법
	(3-5세)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
	(초등1-3)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
	(초등4-6)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
	(중학교)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 (고등학교)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
인성·생활지도	디지털페어링팅 아이와 함께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 성교육가이드
	부모의 품격, 올바른 성가치관에서 출발한다
	밥상머리에서 행복찾기(밥상머리교육 가이드북)
	독서&인성교육 우리아이 경제교육
학습지도	시와 함께 살아갈 우리아이 핵심은 문해력!
	클릭! 미디어 리터러시
	아이와 함께 코딩을
	우리 아이 성적표 읽기
	자녀학습 200% 성공전략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코칭 가이드
진로·진학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진로직업 교육
	초등학교 보내기 걱정마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2014 중고등학교 예비학부모 가이드북
	2014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가이드북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부모역량강화	가족갈등, 어떻게 하면 줄을까요?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마음
	아빠는 놀이쟁이
	놀이에서 답을 찾다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교육제도·정책	꼼꼼하게 따져보면 역시 직업계 고등학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학부모참여	학부모 학교참여 이해하기
	2018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집
	학부모, 학교를 만나다! - 학교참여에서 청탁금지법
	2016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
진로교육자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index.do>, 2020. 10. 5. 인출.

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의 온라인 서비스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학부모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부모On누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이외 지역학부모지원센터별로 비대면 교육을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림 II-1-10]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자료: 학부모 On누리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 2020. 11. 25. 인출,

[그림 II-1-11] 학부모On누리 - 학습마당

번호		이미지	강의명	차시	맛보기	교안보기	수강
6		부모-자녀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마음 안아주기 (21-1기) 신상: 21/01/01~21/01/20 지막: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15차시			시청하기	
5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21-1기) 신상: 21/01/01~21/01/20 지막: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5차시			시청하기	
4		[이음e 부모교육]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21-1기) 신상: 21/01/01~21/01/20 지막:	4차시			시청하기	
3		아빠는 놀이쟁이 (21-1기) 신상: 21/01/01~21/01/20 지막: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4차시			시청하기	

자료: 학부모 On누리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 2020. 11. 25. 인출,

2. 국내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연구, 제도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정책연구로 수행된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부모교육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 부모교육 실태 및 활성화 관련 연구

부모교육 실태 및 활성화 관련 연구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거나 부모특성별, 생애주기별 또는 정부 부처별 부모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부모교육 시행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의 경우, 해당 지역 부모교육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또는 지역 프로그램 활성화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김미정·이나련·정요한(2014: 45)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 관련 요구를 조사하였다. 현재 참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전에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 응답자의 57.3%가 참여 경험이 있었던 것에 비해 아버지 응답자는 10명 중 8명이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외, 2014: 50-51). 이전에 부모교육 참여 경험이 없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참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잘 몰라서’와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없어서’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김미정 외, 2014: 54).

김미정 외(2014: 56-57)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5.1%가 ‘자녀의 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김미정 외(2014)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부모교육 확산을 위한 캠페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회원관리 및 인센티브 도입, 홍보 및 신청의 편의성 제고, 대상별 부모교육 접근방식 다양화, 자녀돌봄과 교육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김미

정 외, 2014: 76-81).

대구지역 부모교육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한 김민지(2014)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91.4%가 자녀발달과 양육과정에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응답자의 39.6%만이 실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지, 2014: 153-154). 부모교육 시기 및 관심 사항과 관련하여 예비부모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수준은 낮았으며, 자녀 생애주기별로 부모의 관심 사항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민지, 2014: 154-155).

배옥현(2018)의 연구에서는 경북도내 영유아기,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학부모 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배옥현, 2018: 6).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들은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에 대해 57.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배옥현, 2018: 138-139, 141). 부모교육 시작이 필요한 시점으로는 '예비부모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부모교육 내용과 이용절차 등에 대한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배옥현, 2018: 147, 159).

부산지역 부모교육 실태를 분석한 임현정·문정희·김성순(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경험 및 효과, 참여기대와 요구사항,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였다(임현정 외, 2017: 55).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부모의 75.3%가 생애단계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부모교육 시작 시기는 '자녀 영유아기', '예비부모 시기'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임현정 외, 2017: 59, 63). 자녀발달단계별 부산지역 부모교육 프로그램 충분 정도와 관련하여 '임신출산준비기'가 5점 척도 기준 2.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임현정 외, 2017: 65). 최근 3년간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34.4%, '경험이 없다'라는 응답이 65.6%였고,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교육에 참여한 장소는 '학교(초·중·고)', '병·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순으로 조사되었다(임현정 외, 2017: 67, 72). 생애주기별, 영역별 부모교육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예비부모의 출산 전 정신건강 관리'와 '자

녀발달 이해'에 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7%로 가장 높았다(임현정 외, 2017: 81).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화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양육수당 지급 및 어린이집 신청 시 부모교육 이수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임현정 외, 2017: 119).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한 김은설·장혜진·김문정·Walker(2011)의 연구에서는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모, 한부모, 다문화 부모, 농어촌 부모, 저소득층 부모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김은설 외, 2011: 76). 전체 응답자 중 온라인 교육을 제외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4%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참여한 경험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설 외, 2011: 79).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함: 49.2%, 조금 필요함: 48.8%)고 답했으며, 부모특성별로는 다문화 가정의 60.0%, 농어촌 가정의 62.8%가 부모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김은설 외, 2011: 99-100). 부모교육 개선안과 관련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전체 응답자의 90%가 동의했으며, 부모교육 시간에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1.3%가 동의하였다(김은설 외, 2011: 111-112). '부모교육을 첫 아이 임신 이후 1회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5.3%가 동의했으며, 부모특성별로는 다문화와 농어촌가정 부모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1: 114). 부모교육 홍보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과 저소득층 부모가 홍보 부족을 체감하고 있었다(김은설 외, 2011: 115).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의 연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7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윤진 외, 2017: 71).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을 이수한 이유로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와 '양육정보를 얻으려고'가 높은 응답률 순위를 차지했으며,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보다 온라인으로 부모교육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윤진 외, 2017: 79, 81).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도 '가급적 수강할 계획이다'가 70.4%,

‘반드시 수강하겠다’가 28.3%를 차지하였다(이윤진 외, 2017: 84, 86). 부모교육 의무화 관련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4.6%가 의무화가 타당하다고 답했으며,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클로버 교육’처럼 부모교육 커리큘럼을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72.5%가 바람직하다고 찬성하였다(이윤진 외, 2017: 100, 102). 이윤진 외(2017: 161-163)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 의무 이수 시기는 ‘예비부모기’가 적절하고, 의무 이수 시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교육 이수 와 인센티브 연계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은영·이강이·김영선·권순범·정은화(2019)의 연구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여성가족부가 2010년 이후 개발하고 보급한 학부모교육 관련 자료의 실태를 분석하였다(김은영 외, 2019: 12).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개발하고 보급한 학부모 자료는 359개였고, 2016년부터 개발 편수가 증가했으며, 2017년 이후로는 연도별 자료의 40%가 동영상 자료로 개발되는 추세를 띠었다(김은영 외, 2019: 43-44).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하고 보급한 자료는 대부분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특성을 고려한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은영 외, 2019: 44).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료의 경우, 전 생애주기와 학령기 부모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녀지도와 교육정책 및 학교 이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김은영 외, 2019: 45). 이러한 학부모 자료 개발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많은 역할을 담당했으며, 시·도교육청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자료의 접근은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2019: 44). 여성가족부가 개발하고 보급한 자료는 163개였으며,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자료가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2019: 66).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였다(김은영 외, 2019: 67).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부모교육 자료도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문화, 한부모, 조손, 맞벌이 등 가족특성을 고려한 경우도 약 20% 정도를 차지하였다(김은영 외, 2019: 67).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자료의 내용은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부모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의 개발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영 외, 2019: 67-68).

김소영 외(2016)의 연구에서는 국내 부모교육 정책과 자녀 연령을 고려한 집단

별 심층면접 결과를 수렴하여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김소영 외(2016)는 부모교육의 경우, 명확한 철학과 관점을 토대로 부처 간의 협력방안과 민간 서비스 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육의 대상이 양육자를 넘어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이들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김소영 외, 2016: 65). 김소영 외(2016)는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식에서도 영유아기 관련 지식을 일반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특성 및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하며, 원하는 교육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김소영 외, 2016: 65-66).

〈표 II-2-1〉 부모교육 실태 및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내용

구분	연구내용
김미정 외 (2014)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프로그램 특성 분석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부모의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 분석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방안 제언
김민지 (2014)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교육 현황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리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접조사로 대구지역 부모교육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대구시 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 제시
김은설 외 (2011)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특성별로 구분하여 부모교육 실시 현황 파악 부모특성별(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부모, 중상층 부모, 한부모, 다문화 부모) 부모교육 실태와 요구 탐색 국외 우수 영유아기 자녀 부모대상 부모교육 제도 조사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 제시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 강화 방안 제언
배옥현 (2018)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교육 관련 정책, 사업, 법령, 현황 등 파악 경상북도 영유아기, 학령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환경, 부모양육의 어려움,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 가족관계 및 의사소통, 부모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경상북도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이윤진 외 (2017)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기, 학령기 부모교육 관련 정부 정책 현황 탐색 국의 부모교육 지원 사례 분석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 대상 참여하게 된 이유, 시기, 횟수, 참여프로그램, 교육방식, 만족도, 개선점,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등 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부모 참여 정도,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등 파악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운영현황, 운영의 어려움, 부모의 참여 정도,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등 파악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언

구분	연구내용
임현정 외 (2017)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수행기관 현황 분석 • 부산지역 부모교육 현황 실태 분석(예비부모부터 첫째 자녀가 18세 이하인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부모가족, 외벌이·맞벌이가족, 다문화가족 부모와 부모교육 수행기관 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시행
김은영 외 (2019) 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교육 관련 정부부처 개발·보급 자료 실태 파악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방향 제시
김소영 외 (2016)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정부의 부모교육 정책과 민간영역의 부모교육 현황 파악 및 부모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모교육의 한계 진단 • 해외 부모교육정책 사례 분석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자료: 1) 김미정 외(2014).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p. 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김민지(2014). 대구시 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p. 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김은설 외(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pp. 2-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배옥현(2018).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pp. 5-6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5) 이윤진 외(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pp. 17-1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6) 임현정 외(2017). 부산지역 부모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pp. 4-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7) 김은영 외(2019). 학부모교육 관련 정부부처 개발·보급 자료 실태조사 연구. p. 12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8) 김소영 외(2016).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pp. 2-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특정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김길숙·김지현·이혜민(2016: 12)의 연구에서는 국내 부모교육 실시 현황을 파악하면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자녀 연령 특성과 가족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예비부모용, 영유아기 부모용, 아동기 부모용, 청소년기 부모용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으며, 영유아기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아동기 부모용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길숙 외, 2016: 175).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 연령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아동기 이후부터 프로그램 내용이 ADHD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양육태도 개선, 학교폭력 가/피해자 부모 역량 강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김길숙 외, 2013: 177). 가족특성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가족이 처한 상황이 고려되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특징으로 했으

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조부모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길숙 외, 2013: 226).

김미정·노성향·신용연(2015: 24)의 연구에서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다움’ 영역은 부모역할,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것이고, ‘튼튼한 아이로 키우기’ 영역은 영유아의 신체발달에 관한 내용이며, ‘따뜻한 아이로 키우기’ 영역은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기’ 영역은 영유아의 인지언어발달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미정 외, 2015: 24). 김미정 외(2015: 25-27)는 개발된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방안으로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자료 보급,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 부모교육 캠페인 추진,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보육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다.

배옥현(2017: 191-193)은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에서 부모교육 참여자 확대를 위해 교육시간과 장소 등 접근성을 다양화해야 하며, 부모교육 참여자 인식개선을 위한 슬로건이나 문구사용 및 동영상 제작, UCC 대회 등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강조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에는 사전 요구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부모교육 운영, 온라인 부모교육 적극 도입, 시군 지자체 평가에 부모교육 실시 여부 반영,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 풀 확보를 위한 DB 구축 등이 있다(배옥현, 2017: 194-198).

최은영·이윤진·김보미·장은미·김미옥(2019)은 한부모와 재혼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한부모 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집단형과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집단형의 경우 이론 중심교육과 부모-자녀 요리프로그램, 자녀와의 대화법 등의 실제 상호작용 교육으로 진행되었다(최은영 외, 2019: 63-64). 개별 부모교육은 집단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개별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부모들이 요청한 내용(스마트폰 과의존 아동 지도방법, 자위행동 자녀 지도방법, 문제행동 지도방법)으로 교육주제가 선정되어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최은영 외, 2019: 65). 재혼 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경험탐색과 정서탐색 및 문제해결을 위한 6회기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최은영 외, 2019: 100-101). 한부모 가정 및 재혼 가정 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시범운영한 최은영 외(2019: 110-112)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으로 부모교육의 효과 및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부모-자녀 참여 활동 병행, 개별 가구에 특화된 부모교육의 세부 내용 개발, 교육과 상담 병행, 부모교육 참여 유인책 마련, 부모교육 방법과 시간의 적절성 검토, 정부 지원과 의무 부모교육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표 II-2-2〉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내용

구분	연구내용
김길숙 외 (2016)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의 정의, 유형, 필요성, 현재 부모들로부터 요구되는 부모교육 형태와 내용 탐색 • 부처별 부모교육 실시 현황 파악 • 예비 부모,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 •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제안사항과 프로그램 활용 방안 제시
김미정 외 (2015)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부모의 부모교육 요구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 •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부모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방안 제언
배옥현 (2017)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 서비스 파악 • 경북지역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 분석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도출
최은영 외 (2019)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정과 재혼 가정 부모의 특성과 요구 분석 • 가족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족특성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한부모 가정과 재혼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 한부모 가정과 재혼 가정을 위한 가족특성별 찾아가는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자료: 1) 김길숙 외(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pp. 12-1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김미정 외(2015).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p. 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배옥현(2017).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통합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p. 7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최은영 외(2019).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II):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을 중심으로. p. 1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다. 부모교육 제도화 관련 연구

예비부모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제도화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조사했던 이미화 외(201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여성의 87.2%, 남성의 86.9%가 부모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이미화 외, 2015: 57), 남녀 모두에서 임신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 시기부터 부모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미화 외, 2015: 109). 이미화 외(2015: 112)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제도화가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본 부모교육과정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간 및 공공 7개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본 이인선 외(2013: 62)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상별 특화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는 ‘양육기술’, ‘의사소통기술’, ‘훈육방법’, ‘양성평등/성역할’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강사가 실시간 강의하는 방식이 주된 교육 방법이었다(이인선 외, 2013: 62-63).

이인선 외(2013: 83)의 연구에서는 부모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부모교육에 관한 요구를 탐색했는데 부모들은 실질적인 양육기술과 대처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룰 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부모들은 부모의 교육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정부지원서비스 및 직장이나 군대 등에서 부모교육을 제도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선 외, 2013: 83). 이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 학대부모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부모교육과 정부 서비스 및 지원과의 연결, 학교에서의 부모교육 제도화 및 실시 확대, 아버지의 부모교육 참여 지원, 부모교육 통합·협력체계 구축, 부모교육 지원 정보 예산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이인선 외, 2013: 92-102).

〈표 II-2-3〉 부모교육 제도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 내용

구분	연구 내용
이미화 외 (2015)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로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근거 탐색 • 부모교육 관련 해외 사례 분석 • 예비부모와 영유아 부모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 대상 기본 교육과정 개발
이인선 외 (2013)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부모교육 운영실태 분석 • 해외 우수 부모교육 프로그램 조사 • 국내 프로그램 분석과 해외 사례연구, 부모·실무자·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안 제시 • 국내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자료: 1)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p. 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이인선 외(201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 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국외 부모교육

본 절에서는 국외 국가 기관에서 권장하거나 연계되어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들 중 부모교육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타 국가에서 아동 관련 정부 기관이 소개하거나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 웹사이트, 포털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중 국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홍콩 사례를 정리하였다.

1) 미국

미국에서는 Children's Bureau,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를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¹⁾ The 2018 Family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²⁾ 이를 위해 미국의 각 주에서 가족예방교육의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반, 예방 집중 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³⁾ 예방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크게 부모됨의 실제와 행동(예: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발달 기술과 목표,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 증진, 놀이 증진, 긍정적 훈육 기술), 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⁴⁾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에서 추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표 II-3-1>에 정리하였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주체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면(개인/집단) 중심의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등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혼용되어

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About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ttps://www.childwelfare.gov/aboutus/>, 2020. 11. 24. 인출.

2)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Preventing Child Abuse & Neglect*.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 2020. 11. 24. 인출.

3)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Prevention Programs*.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 2020. 11. 24. 인출.

4)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Parent Education Programs*.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parented/>, 2020. 11. 24. 인출.

있는 경향이 많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교육보다는 온라인 실시간 강의 혹은 비디오 강의로 방식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ACT-Raising Safe Kids (ACT-RSK) program, Circle of Security Parenting program,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s, Parents as Teachers trainings, Parents as Teachers trainings, PEP - Educating Parents, Enriching Families, Triple P - Positive Parenting Program, Tuning in to Kids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부모 교육자나 부모교육 촉진자(facilitators)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교육 내용 면에서는 공감, 애착, 정서 발달에 특히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들로 The International Child/Parent Development Program (ICDP), Circle of Security Parenting program, Tuning in to Kids가 있었으며, 그 외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양육 기술에 대한 설명을 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Parenting Inside Out® Program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부모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감옥에 수감된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 웹페이지에서 추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프로그램을 이벤트성으로 무료 제공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예: Parent Encouragement Program).

제안된 프로그램들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되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프로그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자/촉진자 그룹을 양성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II-3-1〉 미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명	주관	방식	특징
ACT-Raising Safe Kids (ACT-RSK) program ¹⁾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대면 (8주, 회기 당 2시간)	-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성인 - 특징: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우선순위를 둬, 촉진자(facilitator) 양성함. - 내용: 자녀 연령별 발달 특성 이해, 영유아기 경험의 장기적 영향력, 연령에 적합한 훈육법, 정서 조절방법, 미디어 폭력 방지 등

프로그램명	주관	방식	특징
The International Child/Parent Development Program (ICDP) ²⁾	Changing Children's World Foundation	대면(18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아동의 양육자 - 특징: 공감(Empathy)을 강조하는 접근법 - 내용: 부모 역할, 공감의 개념적 이해, 정서적 소통,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 행동 긍정적 조절, 제한 설정 등
Circle of Security Parenting program ³⁾	The Circle of Security	대면, 온라인 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부모, 입양 부모, 교사 등 다양한 양육자 - 특징: 애착, 부모-자녀 관계 중심, 촉진자(facilitator) 양성(온라인, 오프라인 트레이닝)하고, 촉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Raising a secure child" 매뉴얼 있음. - 내용: 안정애착 형성을 통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정립, 바람직한 행동 강화법 등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s ⁴⁾	The Incredible Years	대면 집단 (12-20주, 회기 당 2-3시간),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0-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특징: 아동의 학습, 사회 정서 기술을 지원하고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음. 자녀 연령별(영아기: 0-12개월,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3-6세, 학령기: 6-12세)로 그룹 나누어 프로그램 진행, 촉진자 역할의 그룹 리더 양성함. - 내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관계 개선, 올바른 훈육, 아동의 사회, 정서, 언어발달 촉진법, (유아기, 학령기) 학교 준비 기술 등
Just in Time Parenting Newsletter ⁵⁾	Just in Time Parenting	온라인 뉴스레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임신중이거나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전문가 집단 - 특징: 자녀 연령별 부모 교육 자료를 이메일 정기 구독 형식으로 제공함. 미국 전역의 대학 교수 및 전문가 집단이 프로젝트로 진행함. - 내용: 자녀 연령별 자녀 양육 관련 문제 해결 방법, 양육 정보 등 제공
The Nurturing Parenting Programs ⁶⁾	Nurturing Parenting	대면 1차교육 (5-18회기) 2차교육 (12-20회기) 3차교육 (15-25회기) 개인 방문, 집단 교육, 혼합 DVD, 교육자료 등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임신중-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특징: 4개의 예방 단계(1차, 2차, 3차, 종합)와 자녀 연령(임신기, 0-5세, 학령기, 청소년기, 10대/어린 부모)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짐. 총 30여개의 프로그램이 있음. 다양한 척도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에게 대한 평가/검사를 사전, 과정중, 사후 실시함. - 내용: 아동학대나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 양육 기술, 공감(empathy) 중심, 다양한 가족(예: 장애 가족, 군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맞춤 양육 정보 제공
Parenting Inside Out® Program ⁷⁾	Parenting Inside Out	대면, CD, 교육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감옥에 수감된 부모 - 특징: 인지 행동, 사회학습이론, 실험적 연구 디자인을 바탕으로 함. - 내용: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기술, 정서 조절, 아동 발달, 가족 역동, 올바른 훈육 기술, 부모 역할, 전이 계획 및 가족 재결합 등

프로그램명	주관	방식	특징
Parents as Teachers Trainings ⁸⁾	Parents as Teachers	대면, 온라인	- 대상: 부모 교육자 - 특징: 부모 교육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4종류(기본, 기본2, 모델 시행, 센터 기반 가족 참여 훈련)로 구성됨. - 내용: 연령별 아동 발달 및 부모 자녀 상호작용, 발달에 맞춘 부모 양육 활동 등
PEP – Educating Parents, Enriching Families ⁹⁾	Parent Encouragement Program	개인 대면 (8-10주), 온라인(4주), 라이브 웨비나 강의, 비디오 등	-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양육자(부모, 조부모 등) - 특징: 워크샵 교육 통한 부모 교육자 양성,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온라인 보급(무료/유료) - 내용: 아동 발달, 부모 양육기술, 문제행동 대처, 일-가정 양립 방안 등
Triple P – Positive Parenting Program ¹⁰⁾	Triple P	온라인 (주1회 약 1시간씩: 0-12세 8개, 10-16세 6개 모듈)	- 대상: 0-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Triple P Online), 10-16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Teen Triple P Online) - 특징: 온라인 양방향 교육, 부모 교육자 양성, 유료 - 내용: 올바른 양육 방식, 문제행동 예방 등 구체적인 전략 제공
Tuning in to Kids ¹¹⁾	Tuning in to Kids	대면, 온라인, 비디오 (1회당 8-20분, 10개 모듈)	-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특징: 정서 중심, 부모-자녀 간 정서적 유대 강조, 자녀 연령별, 대상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함(예: Tuning in to Teens™ (TINT), Dads Tuning in to Kids™ (DADS), Tuning in to Toddlers™ (TOTS)) - 내용: 정서 지능, 정서 조절 코칭, 공감, 두려움, 분노, 형제간 경쟁 등

자료: 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d.). *ACT/Parents Raising Safe Kids Program*. <https://www.apa.org/pi/prevent-violence/programs/act>, 2020. 11. 24. 인출.

2) Changing Children’s Worlds Foundation. (n.d.). *ICDP Parent Program*. <https://www.changingchildrensworlds.org/>, 2020. 11. 24. 인출.

3) Circle of Security. (n.d.). *Resources for Parents*. <https://www.circleofsecurityinternational.com/resources-for-parents/>, 2020. 11. 20. 인출.

4) The Incredible Years. (n.d.).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s*. <http://www.incredibleyears.com/programs/parent/>, 2020. 11. 20. 인출.

5) Just in Time Parenting. (n.d.). *Parenting information when you need it*. <https://jitp.info/>, 2020. 11. 20. 인출.

6) Nurturing Parenting. (n.d.). *About Us*. <https://www.nurturingparenting.com/about.html>, 2020. 11. 20. 인출.

Nurturing Parenting. (n.d.). *Our Catalog*. <https://www.nurturingparenting.com/flipbook>, 2020. 11. 20. 인출.

7) Parenting inside out. (n.d.). *Welcome to Parenting Inside Out*. <http://www.parentinginsideout.org/welcome-to-parenting-inside-out/>, 2020. 11. 20. 인출.

8) Parent as Teachers. (n.d.). *Parents as teachers virtual training*. <https://parentsasteachers.org/trainingcurriculumgallery#PAT-CORE-TRAINING>, 2020. 11. 20. 인출.

- 9) PEP-Educating parents, Enriching Families. (n.d.). *Who We Are*. <https://pepparent.org/who-we-are/>, 2020. 11. 20. 인출.
PEP-Educating parents, Enriching Families. (n.d.). *Why PEP?*. <https://pepparent.org/why-parenting-education/why-pep/>, 2020. 11. 20. 인출.
- 10) Triple P. (n.d.). *What is Triple P*. <https://www.triplep-parenting.net/global/about-triple-p/what-is-triple-p/>, 2020. 11. 20. 인출.
- 11) Turning in to Kids. (n.d.). *Our programs*. <https://tuningintokids.org.au/about/our-programs/>, 2020. 11. 20. 인출.

2) 영국

Public Health England,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신장시키고 문제 행동을 줄여준다는 근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Public Health England, 2014a: 3). 지역사회 수준에서 약 20여개의 조기 중재(early intervention) 기관과 지역사회 정부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다(Public Health England, 2014a: 4).

영국 교육부에서 연령별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The Family Nurse Partnership(FNP, 0-2세 대상), Incredible Years(3-4세 대상), 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HIPPY, 3-5세 대상),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FAST, 3-11세 대상)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면(개인/집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The Family Nurse Partnership(FNP), 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HIPPY)는 가정 방문을 기본으로 하였다. The Family Nurse Partnership(FNP)은 영아기 자녀를 다루는 방법(수유, 예방접종 등)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는 반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부모-자녀 관계와 학습 지원, 문제 행동 감소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네 가지 프로그램 모두 부모교육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고 건강한 아동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부모교육을 이용하였다는 것, 지역사회 협조를 바탕으로 가정 방문, 학교 방문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동과 부모의 생활에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등 연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강점을 가진다.

〈표 II-3-2〉 영국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명	주관	방식	특징
The Family Nurse Partnership (FNP), 0-2세 ¹⁾	NHS England	가족 간호사의 가정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첫아이를 출산한 19세 미만의 모와 가족들 - 특징: 임신기간부터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전문간호사의 정기적 가정 방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 임신기 건강, 자녀 건강 및 발달, 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benefit-cost ratio가 1.84로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함. - 내용: 부모-자녀 애착, 모유수유, 예방접종, 아동 발달과 학교 준비 등
Incredible Years (3-4세 대상) ²⁾	The Incredible Years	부모 집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문제행동의 위험이 있는 3-4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특징: 미국의 The Incredible Years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는 3-4세 부모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benefit-cost ratio가 1.37로 보고되어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함. - 내용: 부모-자녀 상호작용, 관계 개선, 올바른 훈육, 아동의 사회, 정서, 언어발달 촉진법, 학교 준비 기술 등
HIPPY, 3-5세 ³⁾	HIPPY	가정 중심, 가족 중심, 가정 방문 및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3-5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취약계층 중심) - 특징: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 가정방문 프로그램으로 2년에 걸쳐서 진행되며 30세션으로 구성됨. 각 방문마다 30-60분간 시행됨. 부모가 책과 학습 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움. 다른 부모들과의 집단 미팅도 실시함. 전문가 집단 있으며, 부모가 다른 부모를 코칭하기도 함. 부모가 아이와 하루 15분간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내용: 부모-자녀간 언어 상호작용 증진 방법, 아동 학습 증진 기술법(scaffolding) 등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FAST), 3-11세 ⁴⁾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8주 세션,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3-1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특징: 일주일에 1회씩 집단 미팅, 회당 2.5시간 소요, 프로그램 종료 후 한달에 한번 총 2년간 팔로우업 함. 단순한 강의식 아니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연령별로 4단계 나눔



프로그램명	주관	방식	특징
			(0-5세, 4-10세, 10-14세, 14-18세), 부모 교육 전문가 양성함. 훈련된 4-10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프로그램 진행함. - 내용: 스트레스 관리법, 자녀 학교 생활 지원 방법,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격려법 등

자료: 1) Public Health England. (2014b).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Good quality parenting programmes and the home to school transition*. London: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p. 20. Family Nurse Partnership. (n.d.). *What is FNP?*. <https://fnp.nhs.uk/about-us/what-is-fnp/>, 2020. 11. 5. 인출.

2) Public Health England. (2014b).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Good quality parenting programmes and the home to school transition*. London: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p. 22. The Incredible Years. (n.d.).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s*. <http://www.incredibleyears.com/programs/parent/>, 2020. 11. 20. 인출.

3) Public Health England. (2014b).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Good quality parenting programmes and the home to school transition*. London: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p. 23.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n.d.). *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 <https://guidebook.eif.org.uk/programme/home-instruction-for-parents-of-preschool-youngsters>, 2020. 11. 5. 인출.

4) Public Health England. (2014b).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Good quality parenting programmes and the home to school transition*. London: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p. 24. FAST-Families & School Together. (n.d.). *FAST Program*. <https://www.familiesandschools.org/what-we-do/fast-program/>, 2020. 11. 6. 인출.
FAST-Families & School Together. (n.d.). *Program Basics*. <https://www.familiesandschools.org/what-we-do/fast-program/program-basics/>, 2020. 11. 6. 인출.

3) 뉴질랜드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 부모 및 양육자를 위한 교육정보를 모아둔 정부 웹사이트(<https://parents.education.govt.nz>)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자녀 연령별로 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하여 두었는데, 크게 0~6세(Early learning), 5~12세(Primary school), 13~19세(Secondary school), 16세 이상의 청소년(Tertiary education)으로 나누었다.

웹사이트의 정보가 교육 정보 중심(예: 이용 가능 기관 정보, 비용, 준비 사항 등)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으나,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0~6세 영유아 교육 지원으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각 놀이 활동별로 놀이가 가지는 의미, 효과,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였다.⁵⁾

[그림 II-3-1] 뉴질랜드 교육부 부모 지원 자료 - 메인 화면



자료: EDUCATION.govt.nz for Parents. (n.d.). <https://parents.education.govt.nz/>, 2020. 11. 20. 인출.

흥미로운 점은 정보의 특성에 따라 필수, 추천, 정보 등으로 분류하고, 정보의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표시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II-3-2], [그림 II-3-3], [그림 II-3-4]와 같이 이 정보 레벨에 관하여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하였으며, 정보를 이용하는 주요 대상과 이를 참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표에 일관되게 명시하였다.

5) EDUCATION.govt.nz for Parents. (n.d.). Learning ideas.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teaching-and-learning/learning-ideas/>, 2020. 11. 20. 인출.

[그림 II-3-2] 뉴질랜드 교육부 부모 지원 자료 - Learning ideas

LEVEL OF COMPLIANCE	MAIN AUDIENCE	OTHER
<p>Infor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Early Learning Services • Educators, Teachers and Kaiak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ents, Caregivers and Whānau

자료: EDUCATION.gov.nz for Parents. (n.d.). *Learning ideas*.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teaching-and-learning/learning-ideas/>, 2020. 11. 20. 인출.

[그림 II-3-3] 뉴질랜드 교육부 부모 지원 자료 - Child protection

LEVEL OF COMPLIANCE	MAIN AUDIENCE	OTHER
<p>Requir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Early Learning Services • Educators, Teachers and Kaiak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ents, Caregivers and Whānau

자료: EDUCATION.gov.nz for Parents. (n.d.). *Child protection*.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child-wellbeing-and-participation/child-protection/>, 2020. 11. 20. 인출.

[그림 II-3-4] 뉴질랜드 교육부 부모 지원 자료 - Staying calm with a crying baby

LEVEL OF COMPLIANCE	MAIN AUDIENCE	OTHER
<p>Recommend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Early Learning Services • Educators, Teachers and Kaiak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rvice Managers • Parents, Caregivers and Whānau

자료: EDUCATION.gov.nz for Parents. (n.d.). *Staying calm with a crying baby*.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child-wellbeing-and-participation/staying-calm-with-a-crying-baby/>, 2020. 11. 20. 인출.

뉴질랜드 사례는 정부 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부분 외에 정보 전달을 위해 웹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사점이 있다. 즉 연령별, 대상별 정보가 가시적으로 정리되어 제공될 때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수당과 연계된 부모교육 웹페이지 조성 시 뉴질랜드 교육부 웹페이지의 특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4) 홍콩

홍콩 정부에서 제안하는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는 홍콩의 교육부 웹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유치원 교육의 질 및 아동의 성장을 이해하고, 아동의 고유성을 인정하도록 돕는 것을 부모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 지원 과정에 대한 설명, 각 유치원 등 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질 점검 결과 공유와 더불어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책과 브로슈어 파일(예: 유치원기 아동 돕기, 아동의 배움에 대해 알아보기, 유치원 교육 정책, 비중어권 부모를 위한 정보 패키지, 비중어권 자녀 지원하기, 유치원-초등 전환기 잘 보내기 등)이 다양한 언어별(예: 영어, 중국어, 힌두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태국어 등)로 업로드 되어있다.

또한, 이전에 실시되었던 관련된 부모 토론회나 수업 파일 등을 올려두어 일반 부모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⁶⁾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Quality Kindergarten Education)’에 관하여서는 첫째 ‘아동의 균형잡힌 발달을 증진하는 커리큘럼’, 둘째, ‘가정-학교 공동 운영’, 셋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넷째 ‘질 높은 유치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⁷⁾

‘아동의 성장(Children’s Growth)’ 부분에서는 첫째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학습 특성’, 둘째 ‘놀이를 통한 배움’, 셋째 ‘성공은 출발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로 나누어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균형잡힌 발달, 도덕성 발달, 인지 및 언어 발달, 신체 발달, 사회 발달, 각종 놀이 정보, 등에 대해 문서 파일, 강의 파일 및 영상 파일, 관련 링크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었다.⁸⁾

‘아동의 고유성(Children’s Uniqueness)’ 부분에서는 첫째 아동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언어 지연, 문제행동 관련 정보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둘째 다른 아동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에 관한 팁과 관련 강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⁹⁾

홍콩의 경우 과거 시행했던 부모교육 강의 및 방송 자료, 문서 자료 등을 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여 부모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에 관해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6) Education Bureau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d.). *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index.html>, 2020. 11. 4. 인출.

7) Education Bureau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d.). *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Quality Kindergarten Education*.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kindergarten_education.html, 2020. 11. 6. 인출.

8) Education Bureau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d.). *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Children’s Growth*.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childrens_growth.html, 2020. 11. 6. 인출.

9) Education Bureau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d.). *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Children’s Uniqueness*.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childrens_uniqueness.html, 2020. 11. 6. 인출.

4. 소결

본장에서는 국내의 부모교육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내 부모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관련 연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 부모교육 제도화 관련 연구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홍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각 부처별로 전달체계를 통해 전국에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부모교육을 활용한 대면, 비대면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으로 가족지원서비스와 연계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예비부모 교육과 다양한 가족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을 학부모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부모가 학교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수당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 면에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부모교육 역시 세 기관 모두 특성에 따라 운영하였다. 따라서 아동수당과 연계된 부모교육 실시를 위하여 각 기관의 콘텐츠 연계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부모의 편의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절에서는 정책연구로 수행된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시기부터 부모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에 관한 전국민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모교육 내용과 이용절차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접근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부처별 다양한 부모교육 자료가 개발·보급되어 운영 중이었다. 따라서 부모교육 통합/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부모교육과 정부 서비스와의 연결을 통해 부모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3절에서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홍콩의 부모교육 사례를 통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관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부모교육자/촉진자 발굴 및 관리의 노력을 기울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수 찾을 수 있었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권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뉴질랜드와 홍콩의 사례를 통해 웹페이지를 통한 부모교육 자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녀 연령별, 정보 수준, 대상자를 구분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점, 정부 혹은 정부 관련 기관에서 주관한 부모교육 강의, TV에서 방영한 부모교육 자료들을 모아서 제공한 점 등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III

부모교육과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 및 요구

- 0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 02 부모교육 참여경험
- 03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 04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 05 소결

Ⅲ. 부모교육과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 및 요구

본 장에서는 부모교육과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모교육 참여경험,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및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은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아동의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해 전달받는 교육 활동'을 의미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을 포함한다.

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자녀를 둔 부모(832명)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예비부모(92명) 총 92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924명 중 남성은 48.3%였으며, 여성은 51.7%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60.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8.2%, 20대가 8.8%, 50대가 2.7%였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인천/경기가 32.9%, 서울이 21.1%, 대전/충청/세종이 12.7%, 부산/울산/경남이 11.5%, 광주/전라가 9.2%, 대구/경북이 8.7%, 강원/제주가 4.0%를 차지했으며, 이를 지역 유형으로 구분하면 중소도시 응답자가 35.1%, 대도시 응답자가 34.0%, 읍면지역 응답자가 31.0%였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를 둔 부모가 90.0%였으며,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1명인 경우가 44.7%, 3명인 경우가 7.9%였다.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자녀 연령은 만 1세가 15.1%, 만 2세가 14.7%, 만 3세가 14.4%, 만 4세, 만 5세, 만 6세가 각각 14.2%, 만 0세가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이용기관은 어린이집이 52.6%로 가장 많았고, 가정양육 20.7%, 유치원 20.1%, 초등학교가 6.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맞벌이 여부와 관련하여 외벌이 가구가 48.4%였고, 맞벌이 가구가 47.4%였으며, 응답자의 4.2%는 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1〉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계(수)
전체	100.0 (924)		
성별		자녀 수	
남성	48.3 (446)	1명	44.7 (372)
여성	51.7 (478)	2명	47.4 (394)
연령		3명	7.9 (66)
20대	8.8 (81)	자녀 연령	
30대	60.3 (557)	만 0세	13.2 (110)
40대	28.2 (261)	만 1세	15.1 (126)
50대	2.7 (25)	만 2세	14.7 (122)
거주지		만 3세	14.4 (120)
서울	21.1 (195)	만 4세	14.2 (118)
인천/경기	32.9 (304)	만 5세	14.2 (118)
대전/충청/세종	12.7 (117)	만 6세	14.2 (118)
광주/전라	9.2 (85)	막내자녀 이용기관	
대구/경북	8.7 (80)	어린이집	52.6 (438)
부산/울산/경남	11.5 (106)	유치원	20.1 (167)
강원/제주	4.0 (37)	초등학교	6.6 (55)
지역유형		가정양육	20.7 (172)
대도시	34.0 (314)	맞벌이 여부	
중소도시	35.1 (324)	맞벌이	47.4 (438)
읍면지역	31.0 (286)	외벌이	48.4 (447)
자녀유무		소득 없음	4.2 (39)
있음	90.0 (832)		
없으나 임신 중	10.0 (9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부모교육 참여경험

가. 부모교육 참여여부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예비부모에게 부모 교육 참여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답하였다. 부모교육 참여여부는 응답자의 거주지, 지역 유형, 자녀 유무, 자녀 연령, 막내

자녀 이용기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서울은 응답자의 73.8%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62.3%, 대전/충청/세종은 55.6%, 광주/전라는 55.3%, 강원/제주는 54.1%, 인천/경기는 51.6%의 응답자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경북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는 응답보다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51.3%)이 높았다. 지역 유형에 따라서는 대도시 응답자의 부모교육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부모의 61.8%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던 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임신 중인 예비부모는 26.1%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막내 자녀 연령과 관련해서도 만 1~6세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52.7%)이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47.3%)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부모와 신생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비율이 참여하지 않았던 비율보다 높았으나 가정양육을 할 때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61.6%)이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38.4%)보다 높았다. 맞벌이 여부 및 가계 소득과 관련해서도 맞벌이 가구의 64.4%, 외벌이 가구의 53.2%가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반면, 소득이 없는 가구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53.8%)이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46.2%)보다 높았다. 이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와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I-2-1〉 부모교육 참여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58.2	41.8	100(924)
거주지			
서울	73.8	26.2	100(195)
인천/경기	51.6	48.4	100(304)
대전/충청/세종	55.6	44.4	100(117)

구분	예	아니오	계(수)
광주/전라	55.3	44.7	100(85)
대구/경북	48.8	51.3	100(80)
부산/울산/경남	62.3	37.7	100(106)
강원/제주	54.1	45.9	100(37)
$\chi^2(df)$	29.546(6)***		
지역 유형			
대도시	69.1	30.9	100(314)
중소도시	52.8	47.2	100(324)
읍면지역	52.4	47.6	100(286)
$\chi^2(df)$	23.168(2)***		
자녀 유무			
있음	61.8	38.2	100(832)
없으나 임신 중	26.1	73.9	100(92)
$\chi^2(df)$	43.386(1)***		
자녀 연령			
만 0세	47.3	52.7	100(110)
만 1세	60.3	39.7	100(126)
만 2세	67.2	32.8	100(122)
만 3세	60.8	39.2	100(120)
만 4세	68.6	31.4	100(118)
만 5세	69.5	30.5	100(118)
만 6세	57.6	42.4	100(118)
$\chi^2(df)$	17.677(6)**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70.3	29.7	100(438)
유치원	65.9	34.1	100(167)
초등학교	54.5	45.5	100(55)
가정양육	38.4	61.6	100(172)
$\chi^2(df)$	55.84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4.4	35.6	100(438)
외벌이	53.2	46.8	100(447)
소득 없음	46.2	53.8	100(39)
$\chi^2(df)$	13.726(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가 25.4%, ‘부모교육을 듣고 싶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17.1%, ‘원하는 내용의 부모교육 기회가 없어서’가 13.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막내 자녀 이용기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47.7%)’,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25.4%)’, ‘원하는 내용의 부모교육 기회가 없어서(16.2%)’ 순이었으며, 막내 자녀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61.4%)’,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19.3%)’,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10.5%)’ 순이었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36.0%)’,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28.0%)’, ‘원하는 내용의 부모교육 기회가 없어서(20.0%)’ 순이었고,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교육을 듣고 싶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31.1%)’,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24.5%)’,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24.5%)’ 순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48.7%)’,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25.6%)’, ‘원하는 내용의 부모교육 기회가 없어서(11.5%)’ 순이었고, 외벌이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34.9%)’,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25.4%)’, ‘부모교육을 듣고 싶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20.1%)’ 순이었다. 소득이 없는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교육을 듣고 싶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42.9%)’,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2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원하는 내용의 부모교육 기회가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계(수)
전체	39.1	25.4	17.1	13.0	4.4	1.0	100(386)
성별							
남성	44.5	27.5	9.9	12.1	5.5	0.5	100(182)
여성	34.3	23.5	23.5	13.7	3.4	1.5	100(204)
$\chi^2(df)$			15.524(5)**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47.7	25.4	6.9	16.2	3.8	0.0	100(130)
유치원	61.4	19.3	3.5	5.3	10.5	0.0	100(57)
초등학교	36.0	28.0	12.0	20.0	4.0	0.0	100(25)
가정양육	24.5	24.5	31.1	13.2	4.7	1.9	100(106)
$\chi^2(df)$			56.506(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8.7	25.6	9.6	11.5	4.5	0.0	100(156)
외벌이	34.9	25.4	20.1	14.4	3.8	1.4	100(209)
소득 없음	9.5	23.8	42.9	9.5	9.5	4.8	100(21)
$\chi^2(df)$			30.604(1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

처음 부모교육을 받았던 시기와 관련하여 ‘자녀 영아기’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 전’도 30.3%를 차지하였다. 처음 부모교육을 받았던 시기는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 자녀 유무, 자녀 연령, 막내 자녀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응답 부모의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처음 부모교육을 받았던 시기가 ‘출산 전’이 가장 많았으나 30~50대 연령 부모는 ‘자녀 영아기’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라서는 처음 부모교육을 받았던 시기가 서울지역의 경우 ‘자녀 영아기(49.3%)’, ‘출산 전(33.3%)’ 순으로 조사되었고, 강원/제주지역은 ‘자녀 영아기(50.0%)’, ‘자녀 유아기(25.0%)’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응답자

는 ‘출산 전(36.4%)’, ‘자녀 영아기(27.3%)’, ‘자녀 유아기(22.7%)’ 순으로 응답했으며, 그 외 지역은 ‘자녀 영아기’, ‘출산 전’, ‘자녀 유아기’ 순이었다.

자녀 유무와 관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자녀 영아기(47.5%)’, ‘출산 전(28.6%)’ 순이었으며, 자녀가 없으나 임신 중인 부모는 ‘출산 전(66.7%)’, ‘결혼 전(33.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자녀가 만 0세인 경우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가 ‘출산 전(51.9%)’, ‘자녀 영아기(36.5%)’ 순이었고, 자녀 연령이 만 6세인 경우는 ‘자녀 유아기(57.4%)’, ‘자녀 영아기(23.5%)’ 순이었다. 자녀 연령이 만 5세인 경우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자녀 영아기(42.7%)’, ‘자녀 유아기(32.9%)’, ‘출산 전(19.5%)’ 순이었으며, 자녀 연령이 만 4세인 경우 ‘자녀 영아기(50.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 유아기(22.2%)’와 ‘출산 전(22.2%)’ 비율이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그 외 자녀 연령에서는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가 ‘자녀 영아기’, ‘출산 전’ 순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자녀 영아기(53.9%)’, ‘출산 전(28.9%)’ 순으로 나타났고, 막내 자녀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자녀 영아기(44.5%)’, ‘자녀 유아기(35.5%)’ 순으로 조사되었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가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자녀 유아기(53.3%)’, ‘자녀 영아기(20.0%)’ 순이었으며,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가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는 ‘출산 전(53.0%)’, ‘자녀 영아기(34.8%)’ 순이었다.

〈표 III-2-3〉 처음 부모교육을 받은 시기

단위: %(명)

구분	결혼 전	출산 전	자녀 영아기 (만3세 미만)	자녀 유아기 (만3세 이상)	계(수)
전체	6.5	30.3	45.4	17.8	100(538)
연령					
20대	11.9	45.2	38.1	4.8	100(42)
30대	7.0	34.5	44.5	13.9	100(330)
40대	4.5	17.9	48.7	28.8	100(156)
50대	0.0	20.0	50.0	30.0	100(10)
$\chi^2(df)$	36.111(9)***				
거주지					
서울	7.6	33.3	49.3	9.7	100(144)
인천/경기	2.5	29.9	45.2	22.3	100(157)

구분	결혼 전	출산 전	자녀 영아기 (만3세 미만)	자녀 유아기 (만3세 이상)	계(수)
대전/충청/세종	6.2	30.8	43.1	20.0	100(65)
광주/전라	2.1	29.8	53.2	14.9	100(47)
대구/경북	10.3	17.9	53.8	17.9	100(39)
부산/울산/경남	13.6	36.4	27.3	22.7	100(66)
강원/제주	10.0	15.0	50.0	25.0	100(20)
$\chi^2(df)$	32.202(18)*				
자녀 유무					
있음	5.3	28.6	47.5	18.7	100(514)
없으나 임신 중	33.3	66.7	0.0	0.0	100(24)
$\chi^2(df)$	54.634(3)***				
자녀 연령					
만 0세	7.7	51.9	36.5	3.8	100(52)
만 1세	6.6	39.5	48.7	5.3	100(76)
만 2세	3.7	35.4	59.8	1.2	100(82)
만 3세	2.7	26.0	64.4	6.8	100(73)
만 4세	4.9	22.2	50.6	22.2	100(81)
만 5세	4.9	19.5	42.7	32.9	100(82)
만 6세	7.4	11.8	23.5	57.4	100(68)
$\chi^2(df)$	140.828(18)***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5.2	28.9	53.9	12.0	100(308)
유치원	3.6	16.4	44.5	35.5	100(110)
초등학교	10.0	16.7	20.0	53.3	100(30)
가정양육	6.1	53.0	34.8	6.1	100(66)
$\chi^2(df)$	81.634(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라. 참여했던 부모교육 장소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장소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보건소/산후조리원’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자녀 재원 기관’이 34.9%,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2.5%,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가 21.6%,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4〉 참여했던 부모교육 장소(복수응답)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
전체	37.9	34.9	32.5	21.6	20.4	17.7	16.9	13.8	10.0	5.8	(538)

주: ① 병원/보건소/산후조리원, ② 자녀 자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⑥ 학부모지원센터, ⑦ 직장, ⑧ 온라인 강좌, ⑨ 백화점, 대형마트, ⑩ 종교단체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2-1〉 참여했던 부모교육 장소(복수응답)



마. 부모교육 참여 경로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접했던 부모교육 참여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고’ 참여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참여했다는 응답도 31.4%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참여 경로는 응답자의 거주지, 자녀 유무, 막내 자녀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역 응답자의 부모교육 참여 경로는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40.3%)’,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고(33.3%)’ 순이었고, 강원/제주지역의 응답은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로(45.0%)’,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30.0%)’ 순이었다. 그 외 지역의 응답은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

나 전화를 받고’,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응답은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고(41.6%)’,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31.5%)’ 순이었으며,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는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로(37.5%)’,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29.2%)’ 순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고’,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순으로 부모교육 참여 경로가 조사되었으나 가정양육을 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고’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5〉 부모교육 참여 경로

단위: %(명)

구분	주최 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고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로	길거리 전단이나 광고 안내물을 보고	기타	계(수)
전체	40.3	31.4	18.2	8.9	1.1	100(538)
거주지						
서울	33.3	40.3	16.7	9.7	0.0	100(144)
인천/경기	47.8	24.2	19.7	7.0	1.3	100(157)
대전/충청/세종	38.5	36.9	20.0	3.1	1.5	100(65)
광주/전라	42.6	29.8	17.0	10.6	0.0	100(47)
대구/경북	35.9	33.3	12.8	17.9	0.0	100(39)
부산/울산/경남	45.5	24.2	12.1	13.6	4.5	100(66)
강원/제주	25.0	30.0	45.0	0.0	0.0	100(20)
$\chi^2(df)$			44.470(24)**			
자녀 유무						
있음	41.6	31.5	17.3	8.6	1.0	100(514)
없으나 임신 중	12.5	29.2	37.5	16.7	4.2	100(24)
$\chi^2(df)$			13.780(4)**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44.2	33.4	14.3	7.5	0.6	100(308)
유치원	45.5	23.6	20.0	10.9	0.0	100(110)
초등학교	33.3	33.3	23.3	10.0	0.0	100(30)
가정양육	27.3	34.8	24.2	9.1	4.5	100(66)
$\chi^2(df)$			23.549(1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바. 부모교육 참여 이유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주된 이유를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부모가 3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29.4%)’, ‘영유아 생활습관·놀이·학습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24.9%)’ 순으로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순위를 합산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6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유아 생활습관·놀이·학습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46.3%)’,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36.4%)’,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23.0%)’,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14.9%)’,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11.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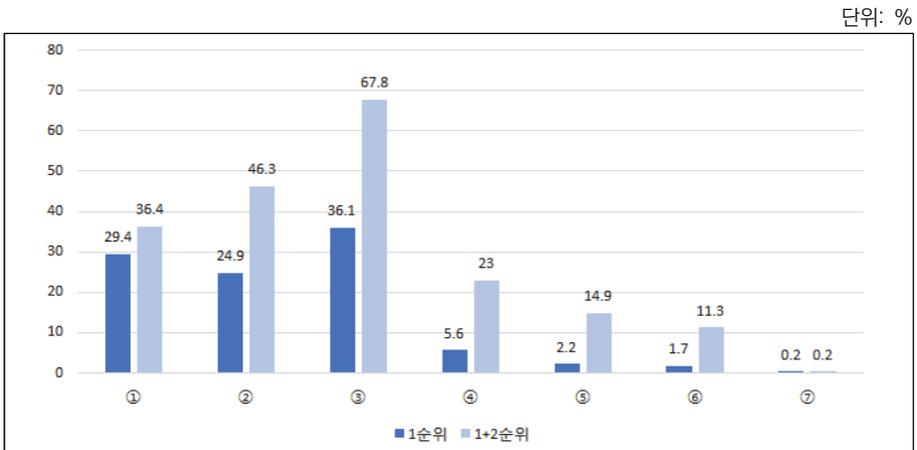
〈표 III-2-6〉 부모교육 참여 이유

구분	단위: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순위	29.4	24.9	36.1	5.6	2.2	1.7	0.2	100(538)
1+2순위	36.4	46.3	67.8	23.0	14.9	11.3	0.2	(538)

주: ①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② 영유아 생활습관·놀이·학습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③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⑥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⑦ 기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2-2] 부모교육 참여 이유



주: ①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② 영유아 생활습관·놀이·학습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③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⑥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⑦ 기타

사. 참여했던 부모교육 만족도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했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었다는 응답도 37.2%로 조사되었다.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3.6점이었다. 참여했던 부모교육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성별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 점수의 평균이 높았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만족도 점수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참여했던 부모교육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0.9	3.2	37.2	49.8	8.9	100(538)	3.6
성별							
남성	1.5	3.4	41.3	46.2	7.6	100(264)	3.5
여성	0.4	2.9	33.2	53.3	10.2	100(274)	3.7
$\chi^2(df)/t$			6.778(4)				-2.4*
자녀 수							
1명	1.4	2.8	43.5	45.8	6.5	100(216)	3.5
2명	0.8	3.9	32.4	52.9	10.0	100(259)	3.7
3명 이상	0.0	0.0	30.8	51.3	17.9	100(39)	3.9
$\chi^2(df)/F$			13.388(8)				4.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아.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만족하는 이유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만족했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 '내용이 알차고 전문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 있어서'도 25.0%를 차지하였다. 1+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는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 있어서(53.2%)', '내용이 알차고 전문적이어서(51.9%)', '실제 적용이 쉬워서(39.9%)' 순이었다.

〈표 III-2-8〉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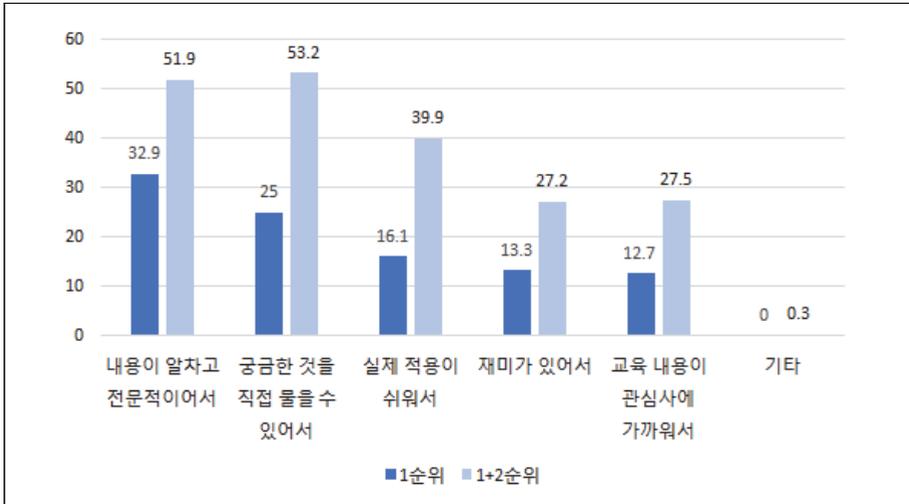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내용이 알차고 전문적이 어서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 있어서	실제 적용이 쉬워서	재미가 있어서	교육 내용이 관심사에 가까워서	기타	계(수)
1순위	32.9	25.0	16.1	13.3	12.7	0.0	100(316)
1+2순위	51.9	53.2	39.9	27.2	27.5	0.3	(31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2-3〕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



자.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 ‘재미가 없어서(31.8%)’라는 응답과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 없어서(31.8%)’라는 응답이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내용이 부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18.2%를 차지하였다. 1+2순위를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는 1순위 결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아서(59.1%)’,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 없어서(54.5%)’, ‘재미가 없어서(40.9%)’ 순의 응답을 보였다.

〈표 III-2-9〉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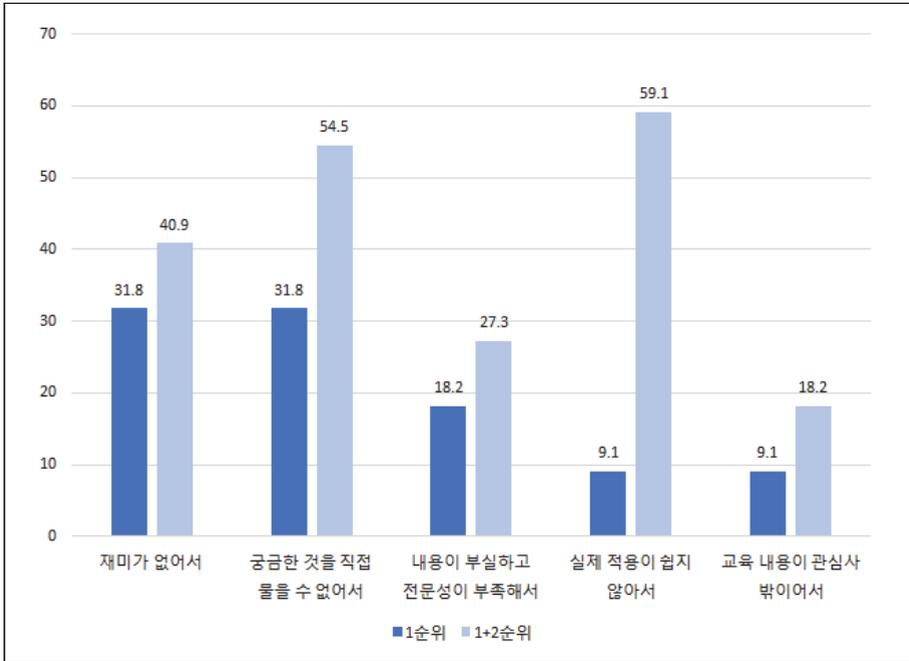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재미가 없어서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 없어서	내용이 부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아서	교육 내용이 관심사 밖이어서	계(수)
1순위	31.8	31.8	18.2	9.1	9.1	100(22)
1+2순위	40.9	54.5	27.3	59.1	18.2	(2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2-4〉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차. 정부지원기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와 관련하여 ‘들어본 적 있다(58.4%)’라는 응답이 ‘들어본 적 없다(41.6%)’라는 응답보다 16.8% 높게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는 자녀 유무와 막내 자녀 이용기

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60.7% 였던 반면,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또는 본인이 임신 중인 경우는 ‘들어본 적 있다’ 라는 응답이 38.0%에 불과하였다. 막내 자녀 이용기관과 관련하여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64.8%, 70.9%로 높았다.

〈표 III-2-10〉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계(수)
전체	41.6	58.4	100(924)
자녀 유무			
있음	39.3	60.7	100(832)
없으나 임신 중	62.0	38.0	100(92)
$\chi^2(df)$	17.504(1)***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35.2	64.8	100(438)
유치원	47.3	52.7	100(167)
초등학교	29.1	70.9	100(55)
가정양육	45.3	54.7	100(172)
$\chi^2(df)$	12.674(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2)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와 관련하여 ‘들어본 적 있다(61.9%)’라는 응답이 ‘들어본 적 없다(38.1%)’라는 응답보다 23.8% 높게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는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있는 부모는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63.5%였던 반면,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나 본인이 임신 중인 경우는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47.8%로 ‘들어본 적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2-11〉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계(수)
전체	38.1	61.9	100(924)
자녀 유무			
있음	36.5	63.5	100(832)
없으나 임신 중	52.2	47.8	100(92)
$\chi^2(df)$	8.587(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3)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와 관련하여 ‘들어본 적 없다(50.4%)’라는 응답이 ‘들어본 적 있다(49.6%)’라는 응답보다 0.8%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는 성별, 거주지, 지역 유형, 자녀 수, 막내 자녀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은 ‘들어본 적 있다(54.5%)’라는 응답이 많았고, 여성은 ‘들어본 적 없다(55.0%)’라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거주지와 관련해서는 서울,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들어본 적 없다’라는 응답보다 많았으나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지역에서는 ‘들어본 적 없다’라는 응답이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에서는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들어본 적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 수와 관련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는 ‘들어본 적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2명 이상일 경우는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닐 경우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70.9%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들어본 적 없다(59.9%)’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2-12〉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 학부모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계(수)
전체	50.4	49.6	100(924)
성별			
남성	45.5	54.5	100(446)
여성	55.0	45.0	100(478)
$\chi^2(df)$	8.339(1)**		
거주지			
서울	39.0	61.0	100(195)
인천/경기	56.3	43.8	100(304)
대전/충청/세종	47.0	53.0	100(117)
광주/전라	43.5	56.5	100(85)
대구/경북	56.3	43.8	100(80)
부산/울산/경남	56.6	43.4	100(106)
강원/제주	59.5	40.5	100(37)
$\chi^2(df)$	20.430(6)**		
지역 유형			
대도시	44.6	55.4	100(314)
중소도시	53.7	46.3	100(324)
읍면지역	53.1	46.9	100(286)
$\chi^2(df)$	6.523(2)*		
자녀 수			
1명	55.1	44.9	100(372)
2명	45.9	54.1	100(394)
3명 이상	40.9	59.1	100(66)
$\chi^2(df)$	8.620(2)*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47.5	52.5	100(438)
유치원	51.5	48.5	100(167)
초등학교	29.1	70.9	100(55)
가정양육	59.9	40.1	100(172)
$\chi^2(df)$	17.551(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카. 정부지원기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 있다(56.9%)'라는 응답이

‘참여한 적 없다(43.1%)’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응답자의 거주지, 지역 유형, 막내 자녀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와 관련하여 광주/전라, 대구/경북지역 응답자는 ‘참여한 적 없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던 반면, 다른 지역 응답자는 ‘참여한 적 있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 유형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응답자는 ‘참여한 적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67.0%, 54.0%로 많았고, 중소도시 응답자는 ‘참여한 적 없다’라는 응답이 52.0%로 ‘참여한 적 있다’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부모의 경우 ‘참여한 적 있다’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하거나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는 ‘참여한 적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2-13〉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참여한 적 없다	참여한 적 있다	계(수)
전체	43.1	56.9	100(540)
거주지			
서울	30.5	69.5	100(128)
인천/경기	48.2	51.8	100(166)
대전/충청/세종	49.2	50.8	100(65)
광주/전라	53.8	46.2	100(52)
대구/경북	51.1	48.9	100(45)
부산/울산/경남	36.9	63.1	100(65)
강원/제주	36.8	63.2	100(19)
$\chi^2(df)$	16.015(6)*		
지역 유형			
대도시	33.0	67.0	100(200)
중소도시	52.0	48.0	100(179)
읍면지역	46.0	54.0	100(161)
$\chi^2(df)$	14.576(2)***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37.0	63.0	100(284)
유치원	40.9	59.1	100(88)
초등학교	53.8	46.2	100(39)
가정양육	55.3	44.7	100(94)
$\chi^2(df)$	12.024(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 없다(60.5%)'라는 응답이 '참여한 적 있다(39.5%)'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응답자의 거주지와 지역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와 관련하여 서울지역 응답자는 '참여한 적 있다(55.8%)'라는 응답이 '참여한 적 없다(44.2%)'라는 응답보다 많았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한 적 없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 유형에 따라서도 대도시 응답자는 '참여한 적 있다(52.1%)'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응답자는 '참여한 적 없다'라는 응답이 각각 68.2%, 65.2%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III-2-14〉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참여한 적 없다	참여한 적 있다	계(수)
전체	60.5	39.5	100(572)
거주지			
서울	44.2	55.8	100(129)
인천/경기	68.3	31.7	100(183)
대전/충청/세종	64.3	35.7	100(70)
광주/전라	71.9	28.1	100(57)
대구/경북	65.9	34.1	100(44)
부산/울산/경남	54.4	45.6	100(68)
강원/제주	57.1	42.9	100(21)
$\chi^2(df)$	24.259(6)***		
지역 유형			
대도시	47.9	52.1	100(190)
중소도시	68.2	31.8	100(198)
읍면지역	65.2	34.8	100(184)
$\chi^2(df)$	19.234(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3)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를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 있다(54.4%)’라는 응답이 ‘참여한 적 없다(45.6%)’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응답자의 거주지, 지역 유형,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와 관련하여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지역 응답자는 ‘참여한 적 있다’라는 응답이 ‘참여한 적 없다’라는 응답보다 많았고, 광주/전라지역은 참여여부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한 적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 유형에 따라서는 대도시 응답자의 경우 ‘참여한 적 있다(68.4%)’라는 응답이 많았고, 읍면지역은 참여여부가 동일한 비율이었으며, 중소도시 응답자는 ‘참여한 적 없다(58.0%)’라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있는 부모는 ‘참여한 적 있다(56.1%)’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첫째 자녀를 배우자나 본인이 지금 임신 중인 경우는 ‘참여한 적 없다(64.1%)’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2-15〉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학부모지원센터

단위: %(명)			
구분	참여한 적 없다	참여한 적 있다	계(수)
전체	45.6	54.4	100(458)
거주지			
서울	26.9	73.1	100(119)
인천/경기	57.1	42.9	100(133)
대전/충청/세종	53.2	46.8	100(62)
광주/전라	50.0	50.0	100(48)
대구/경북	54.3	45.7	100(35)
부산/울산/경남	37.0	63.0	100(46)
강원/제주	53.3	46.7	100(15)
$\chi^2(df)$	28.571(6)***		
지역 유형			
대도시	31.6	68.4	100(174)
중소도시	58.0	42.0	100(150)
읍면지역	50.0	50.0	100(134)
$\chi^2(df)$	24.070(2)***		
자녀 유무			
있음	43.9	56.1	100(419)
없으나 임신 중	64.1	35.9	100(39)
$\chi^2(df)$	5.861(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타.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방식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방식과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모두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프라인 참여 비율은 온라인 참여 비율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7.5%,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우 18.1%, 학부모지원센터의 경우 2.0% 높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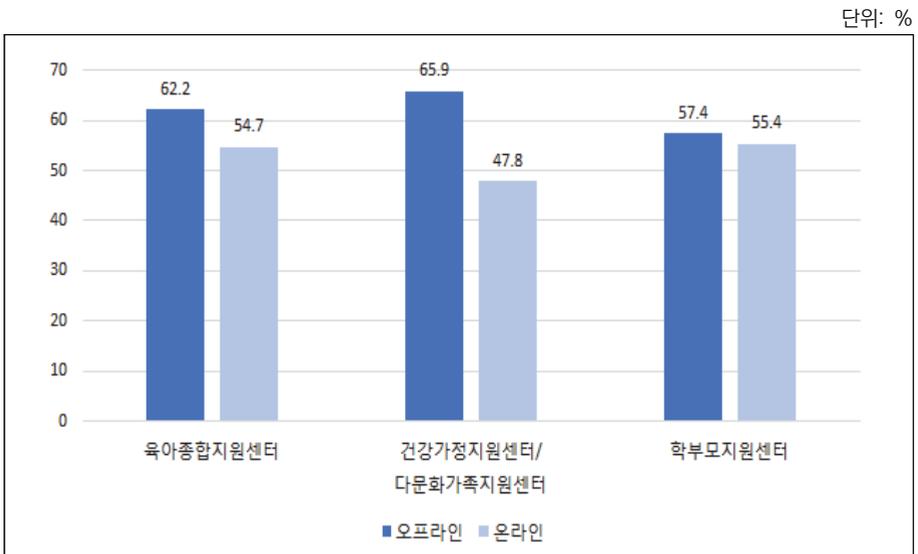
〈표 III-2-16〉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방식

단위: %(명)

구분	오프라인	온라인	계(수)
육아종합지원센터	62.2	54.7	100(307)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65.9	47.8	100(226)
학부모지원센터	57.4	55.4	100(249)

주: 본 연구를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조사’의 결과임.

[그림 III-2-5]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방식



파.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정부지원기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비율은 70.4%(만족: 55.4%, 매우 만족: 15.0%)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비율은 62.4%(만족: 43.8%, 매우 만족: 18.6%)였고, 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비율은 65.1%(만족: 46.6%, 매우 만족: 18.5%)로 조사되었다.

〈표 III-2-17〉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육아종합지원센터	0.3	1.3	28.0	55.4	15.0	100(307)	3.8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	1.8	35.4	43.8	18.6	100(226)	3.8
학부모지원센터	1.2	2.4	31.3	46.6	18.5	100(249)	3.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3.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개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된다(4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도 43.1%를 차지하였다. ‘책, TV,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 습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응답도 10.6%였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부모의 연령, 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30대, 50대는 ‘개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

면 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책, TV,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 습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와 관련해서도 20대 응답자의 19.8%, 50대 응답자의 16.0%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개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된다'라는 응답이 47.8%,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43.8%를 차지하였다. 반면, 배우자나 본인이 첫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으나 '책, TV,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 습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응답도 30.4%를 차지하였다.

맞벌이 부모는 '개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된다(50.0%)',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42.2%)' 순으로 응답이 나타난 반면, 외벌이 부모는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45.0%)', '개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된다(43.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된다(38.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와 '책, TV,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 습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30.8%를 차지하였다.

〈표 III-3-1〉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개인에 따라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된다.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책, TV,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 습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계(수)
전체	46.3	43.1	10.6	100(924)
연령				
20대	44.4	35.8	19.8	100(81)
30대	47.2	42.4	10.4	100(557)
40대	44.1	48.3	7.7	100(261)
50대	56.0	28.0	16.0	100(25)
$\chi^2(df)$		14.195(6)*		
자녀 유무				
있음	47.8	43.8	8.4	100(832)
없으나 임신 중	32.6	37.0	30.4	100(92)
$\chi^2(df)$		42.91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0	42.2	7.8	100(438)
외벌이	43.4	45.0	11.6	100(447)
소득 없음	38.5	30.8	30.8	100(39)
$\chi^2(df)$		23.17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나. 부모교육의 목적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목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3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모-자녀 및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26.0%)’,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16.9%)’,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권리 증진(15.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모교육의 목적은 성별,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은 ‘자녀의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30.7%)’, ‘부모-자녀 및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30.3%)’, ‘아동학

대 예방 및 아동의 권리 증진(17.0%)’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36.2%)’, ‘부모-자녀 및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22.0%)’,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19.0%)’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33.7%)’, ‘부모-자녀 및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27.4%)’,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17.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한편 배우자나 본인이 첫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32.6%)’, ‘육아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17.4%)’,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15.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표 III-3-2〉 부모교육의 목적으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33.5	26.0	16.9	15.7	4.9	2.9	0.1	100(924)
성별								
남성	30.7	30.3	14.6	17.0	4.0	3.1	0.2	100(446)
여성	36.2	22.0	19.0	14.4	5.6	2.7	0.0	100(478)
$\chi^2(df)$	14.348(6)*							
자녀 유무								
있음	33.7	27.4	17.1	15.9	3.5	2.4	0.1	100(832)
없으나 임신 중	32.6	13.0	15.2	14.1	17.4	7.6	0.0	100(92)
$\chi^2(df)$	47.613(6)***							

주: ① 자녀의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 ② 부모-자녀 및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 ③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 ④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권리 증진, ⑤ 육아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⑥ 가족특성별 부모교육 지원으로 가족형태 간 양육의 격차 해소, ⑦ 기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 자녀 연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시기별로 만 0세(12개월 미만), 만 1세(12~24개월 미만), 만 2세(24~36개월 미만), 만 3세(36~48개월 미만), 만 4세(48~60개월 미만), 만 5세(60~72개월 미만), 만 6세(72~83개월, 초 1)로 분류하여 각 시기별로 희망하

는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자녀가 태어나기 전 부모가 가장 희망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은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내용이 순서대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모두 10%대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만 0세 시기의 부모들은 인지발달,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내용을 순서대로 희망하고 있었다. 해당 시기의 자녀에 관하여 부모들은 태어기일 때보다 전체적으로 인지발달에 관한 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지발달이나 언어발달에 대한 선호가 신체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교육보다 높았다. 만 1세 시기의 부모들은 다시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내용을 순서대로 부모교육을 희망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선호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6세에 해당하는 시기에도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I-3-3〉 자녀연령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태어기	16.8	15.8	13.9	12.4	10.6	9.7	5.0	4.8	3.7	3.2	2.4	1.7	
만 0세	15.9	15.9	16.0	13.0	9.8	5.8	5.3	5.1	5.0	4.2	2.7	1.2	
만 1세	17.3	12.4	11.6	10.3	8.9	8.0	6.9	6.7	5.5	5.4	5.1	1.8	
만 2세	17.7	12.1	10.2	9.4	9.1	8.1	6.8	6.5	6.1	5.8	5.1	3.0	100
만 3세	14.8	10.6	10.5	10.3	9.6	9.3	8.5	7.6	5.7	5.5	4.7	2.8	(924)
만 4세	16.5	13.1	12.6	10.2	9.5	9.2	6.1	5.6	5.2	4.9	3.8	3.5	
만 5세	16.8	13.6	12.6	12.2	11.5	7.6	5.7	5.4	4.8	3.4	3.5	3.0	
만 6세	20.5	13.1	11.5	11.1	8.3	8.2	6.6	5.4	4.8	4.2	3.4	2.9	

주: ① 자녀 신체발달 관련(소근육/대근육 발달 등), ② 자녀 언어발달 관련, ③ 자녀 인지발달 관련, ④ 자녀 사회정서 발달 관련(애착, 또래관계 등), ⑤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관련, ⑥ 자녀와의 대화법, ⑦ 자녀 학습 지원 관련(예: 온라인 교육 팁), ⑧ 자녀 훈육 관련(예: 민주적 훈육법), ⑨ 젓병 떼기, 이유식 등 신생아 양육 방법, ⑩ 배변훈련, 식습관지도, 수면습관지도 등 기본생활습관 형성 방법, ⑪ 자녀 건강 및 영양 관련(질병 관련 정보, 영양 관리 등), ⑫ 시기와 상황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양육관련 정보(예: 코로나19 대비 심리방역)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위와 같은 질문을 1, 2순위로 복수응답을 허용했을 때도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에 관한 내용이 순서대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20%대의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앞서 1순위 응답만을 비교했을 때와 달리 1, 2순위를 함께 물어보았을 경우는 만 1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부모들은 신체발달,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순으로 부모교육내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 1

세 시기의 부모들은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자녀연령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태아기	25.9	24.5	21.6	21.2	20.5	20.6	14.6	12.7	11.1	11.0	9.0	7.0	0.3	
만 0세	24.2	23.9	23.4	22.1	19.8	19.5	15.4	14.0	13.0	10.6	9.0	5.2	0	
만 1세	27.1	23.9	19.0	19.3	18.0	16.6	16.6	14.4	14.3	12.9	11.9	6.2	0	
만 2세	26.4	22.6	21.0	20.5	18.4	17.4	17.7	14.2	12.2	11.3	10.6	7.7	0	100
만 3세	25.1	23.9	23.7	21.8	18.3	17.3	16.7	16.2	11.6	9.2	8.2	8.0	0	(924)
만 4세	28.0	28.0	27.4	22.5	19.3	14.9	13.2	11.0	10.5	9.2	8.1	7.8	0	
만 5세	32.4	27.9	27.1	24.0	21.2	11.9	11.7	11.1	9.7	8.4	7.3	7.3	0	
만 6세	33.3	31.2	25.3	23.9	16.8	12.2	12.3	11.8	10.4	9.2	6.8	6.7	0	

주: ① 자녀 신체발달 관련(소근육/대근육 발달 등), ② 자녀 언어발달 관련, ③ 자녀 인지발달 관련, ④ 자녀 사회정서 발달 관련(애착, 또래관계 등), ⑤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관련, ⑥ 자녀와의 대화법, ⑦ 자녀 학습 지원 관련(예: 온라인 교육 팁), ⑧ 자녀 훈육 관련(예: 민주적 훈육법), ⑨ 젓병 떼기, 이유식 등 신생아 양육 방법, ⑩ 배변훈련, 식습관지도, 수면습관지도 등 기본생활습관 형성 방법, ⑪ 자녀 건강 및 영양 관련(질병 관련 정보, 영양 관리 등), ⑫ 시기와 상황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양육관련 정보(예: 코로나19 대비 심리방역)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지역유형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자녀 연령 만 1세, 2세, 3세, 6세의 경우 가장 희망하는 부모교육내용이 신체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같았지만, 태아기나 만 0세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인지발달 관련한 내용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표 III-3-5〉 지역유형별 자녀연령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단위: %(명)

구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발달	자녀 함께하는 놀이	자녀와의 대화법	계(수)
태아기	대도시	16.6	14.3	17.5	10.2	9.9	11.8	100(314)
	중소도시	17.3	17.0	15.4	13.3	9.6	8.3	100(324)
	읍면지역	16.4	16.1	8.0	14.0	12.6	9.1	100(286)
만0세	대도시	14.3	12.1	18.8	11.8	10.5	3.5	100(314)
	중소도시	17.3	17.9	17.6	12.3	7.7	6.5	100(324)
	읍면지역	16.1	17.8	11.2	15.0	11.5	7.7	100(286)
만1세	대도시	18.8	12.7	10.2	11.5	6.7	5.7	100(314)
	중소도시	17.9	11.4	12.3	9.9	9.6	10.5	100(324)
	읍면지역	15.0	13.3	12.2	9.4	10.5	7.7	100(286)
만2세	대도시	17.8	13.4	7.6	7.6	8.6	8.9	100(314)
	중소도시	17.9	13.3	10.5	9.0	11.7	7.4	100(324)
	읍면지역	17.5	9.4	12.6	11.9	6.6	8.0	100(286)

구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발달	자녀 함께하는 놀이	자녀와의 대화법	계(수)
만3세	대도시	16.2	12.1	12.1	6.4	8.6	7.0	100(314)
	중소도시	13.9	12.7	11.1	12.3	9.3	9.6	100(324)
	읍면지역	14.3	6.6	8.0	12.2	11.2	11.5	100(286)
만4세	대도시	14.6	10.8	15.6	8.3	7.0	10.8	100(314)
	중소도시	19.8	12.0	10.2	12.7	11.7	9.0	100(324)
	읍면지역	14.7	16.8	11.9	9.4	9.8	7.7	100(286)
만5세	대도시	12.1	14.0	10.8	14.6	11.5	8.9	100(314)
	중소도시	21.0	13.3	14.8	10.8	11.4	6.5	100(324)
	읍면지역	17.1	13.6	11.9	11.2	11.5	7.3	100(286)
만6세	대도시	19.4	13.1	6.7	13.4	8.9	8.3	100(314)
	중소도시	24.1	12.7	12.0	10.8	7.4	6.5	100(324)
	읍면지역	17.5	13.6	16.1	9.1	8.7	10.1	100(28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라.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 간의 사업 운영이 차별화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홍보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확대가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1순위와 2순위로 중복응답을 허용했을 때 홍보 확대에 대한 의견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III-3-6〉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1순위,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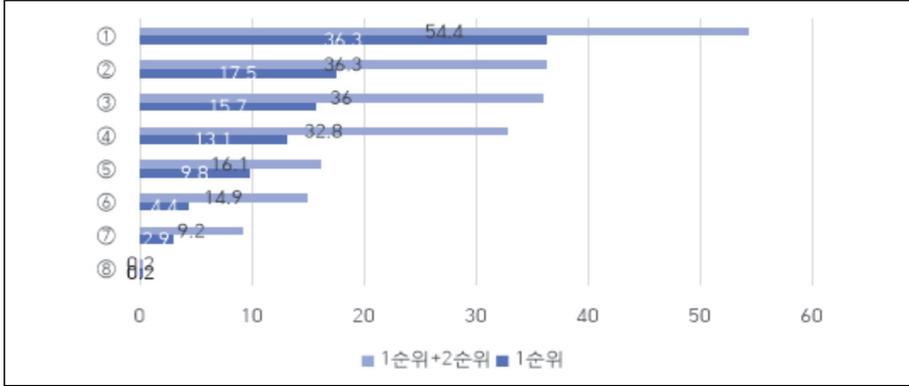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순위	36.3	17.5	15.7	13.1	9.8	4.4	2.9	0.2	100 (924)
1+2순위	54.4	36.3	36.0	32.8	16.1	14.9	9.2	0.2	

주: ① 부모교육 기관 간 사업 운영의 차별화 및 협력 방안 마련, ② 부모교육 내용, 이용절차 등에 관한 홍보 확대, ③ 자녀 성장시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④ 온라인교육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교육방식의 다양화, ⑤ 부모교육 참가 시 자녀 돌봄 제공, ⑥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위기가족 등 가족형태별 부모교육 확대, ⑦ 부모교육 전문 강사 관리 및 육성 방안 마련, ⑧ 기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3-1]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1순위, 1+2순위)

단위: %



주: ① 부모교육 기관 간 사업 운영의 차별화 및 협력 방안 마련, ② 부모교육 내용, 이용절차 등에 관한 홍보 확대, ③ 자녀 성장시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④ 온라인교육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교육방식의 다양화, ⑤ 부모교육 참가 시 자녀 돌봄 제공, ⑥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위기가족 등 가족형태별 부모교육 확대, ⑦ 부모교육 전문 강사 관리 및 육성 방안 마련, ⑧ 기타

4.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가.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

아동수당을 받기 전의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 차이는 전체의 70.8%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29.2% 가량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자녀의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4-1> 아동수당을 받기 전의 아동수당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0.8	29.2	100(924)
자녀 유무			
있음	73.1	26.9	100(832)
없으나 임신 중	50.0	50.0	100(92)
$\chi^2(df)$	21.33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72.8	27.2	100(438)
외벌이	70.2	29.8	100(447)
소득 없음	53.8	46.2	100(39)
$\chi^2(df)$	6.360(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아동수당을 알게 된 경로는 각종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고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알게 되었다는 응답도 38.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4-2〉 아동수당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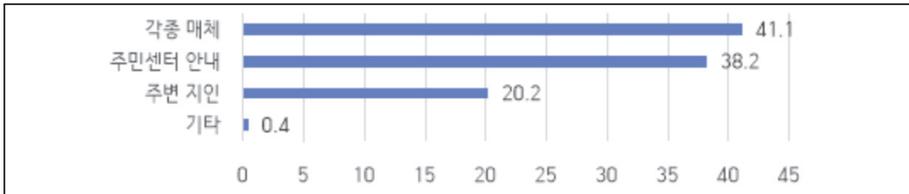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각종 매체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안내	주변 지인	기타	계(수)
전체	41.1	38.2	20.2	0.4	100(92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4-1] 아동수당 인지 경로

단위: %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비율이 58.9%로 가장 높았고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웹사이트는 각각 29.9%, 11.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4-3〉 아동수당 신청 경로_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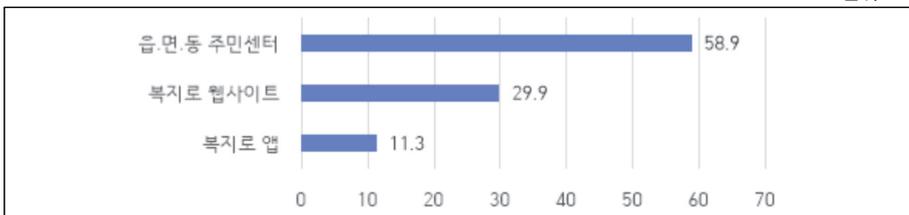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계(수)
전체	58.9	29.9	11.3	100(92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4-2] 아동수당 신청 경로_전체

단위: %



이러한 신청경로는 거주지나 지역의 유형에 따라 차이점이 있었다. 서울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비율이 각각 44.1%, 42.1%로 비슷했지만, 비수도권 지역 중 특히 강원도와 제주지역은 70.3%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표 III-4-4〉 아동수당 신청 경로

단위: %(명)

구분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앱으로 신청	계(수)
거주지				
서울	44.1	42.1	13.8	100(195)
인천/경기	58.9	28.3	12.8	100(304)
대전/충청/세종	68.4	23.9	7.7	100(117)
광주/전라	58.8	29.4	11.8	100(85)
대구/경북	61.3	31.3	7.5	100(80)
부산/울산/경남	69.8	21.7	8.5	100(106)
강원/제주	70.3	18.9	10.8	100(37)
$\chi^2(df)$		32.202(12)**		
지역유형				
대도시	48.4	37.3	14.3	100(314)
중소도시	57.1	30.2	12.7	100(324)
읍면지역	72.4	21.3	6.3	100(286)
$\chi^2(df)$		37.075(4)***		
자녀 유무				
있음	60.2	30.3	9.5	100(832)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중	46.7	26.1	27.2	100(92)
$\chi^2(df)$		26.048(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45.7%, 보통이라는 응답이 뒤이어 36.1%를 차지하였고 5점 기준 전체 평균은 3.6점을 나타냈다.

〈표 III-4-5〉 아동수당 지급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1.6	5.3	36.1	45.7	11.4	100(832)	3.6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아동수당 지급에 불만족하는 57명을 대상으로 불만족의 이유를 물었을 때 전체의 71.9%는 비용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은 자녀의 연령, 막내 자녀 이용기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III-4-6〉 아동수당 지급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전체	71.9	8.8	7.0	5.3	3.5	3.5	100(57)
자녀 연령							
만 0세	71.4	14.3	0.0	14.3	0.0	0.0	100(7)
만 1세	91.7	0.0	0.0	0.0	0.0	8.3	100(12)
만 2세	75.0	0.0	12.5	0.0	12.5	0.0	100(8)
만 3세	81.8	9.1	0.0	9.1	0.0	0.0	100(11)
만 4세	33.3	33.3	0.0	0.0	16.7	16.7	100(6)
만 5세	71.4	14.3	0.0	14.3	0.0	0.0	100(7)
만 6세	50.0	0.0	50.0	0.0	0.0	0.0	100(6)
$\chi^2(df)$			44.097(30)*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78.6	3.6	3.6	7.1	3.6	3.6	100(28)
유치원	54.5	27.3	9.1	0.0	9.1	0.0	100(11)
초등학교	33.3	0.0	66.7	0.0	0.0	0.0	100(3)
가정양육	80.0	6.7	0.0	6.7	0.0	6.7	100(15)
$\chi^2(df)$			27.197(15)*				
맞벌이 여부							
맞벌이	57.9	5.3	21.1	5.3	5.3	5.3	100(19)
외벌이	80.0	11.4	0.0	5.7	0.0	2.9	100(35)
소득 없음	66.7	0.0	0.0	0.0	33.3	0.0	100(3)
$\chi^2(df)$			19.146(10)*				

주: ① 비용이 충분치 않아서, ② 연령별 비용 차이가 없어서, ③ 지급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서, ④ 수당 지급 방식이 다양하지 않아서, ⑤ 수당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⑥ 기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다.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의견

모든 소득계층이 영유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현재의 아동수당 정책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아동수당 대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4%이었고,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거주 지역에 따른 현재 아동수당 정책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수도권지역과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부모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에 비해 현재의 아동수당 정책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른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의견은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상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에 비해 현재의 아동수당 정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소득 활동을 하는 부모가 소득 활동이 없는 부모에 비해 현재의 아동수당 정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4-7〉 모든 소득계층의 영유아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적절하다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계(수)
전체	65.4	34.6	100(924)
거주지			
서울	69.2	30.8	100(195)
인천/경기	69.1	30.9	100(304)
대전/충청/세종	55.6	44.4	100(117)
광주/전라	67.1	32.9	100(85)
대구/경북	72.5	27.5	100(80)
부산/울산/경남	56.6	43.4	100(106)
강원/제주	51.4	48.6	100(37)
$\chi^2(df)$	16.823(6)**		
자녀 유무			
있음	67.8	32.2	100(832)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중	43.5	56.5	100(92)
$\chi^2(df)$	21.62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6	32.4	100(438)
외벌이	65.3	34.7	100(447)
소득 없음	41.0	59.0	100(39)
$\chi^2(df)$	11.155(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모든 소득계층의 영유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현재의 아동수당 정책 대신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20명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소득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 연령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7.2%, 출생 순위별,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24.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별로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9%로 가장 많았고, 대상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에는 자녀연령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4%로 가장 많았다.

〈표 III-4-8〉 아동수당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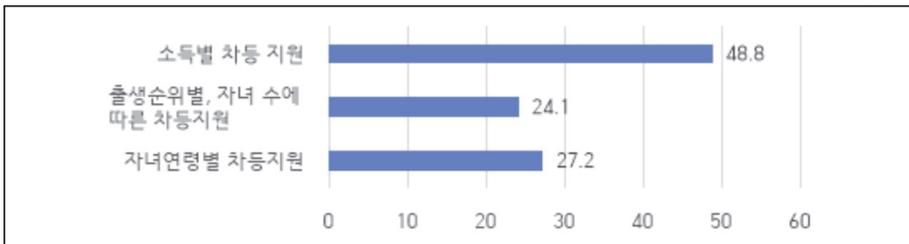
구분	소득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출생순위별,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연령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예: 0-2세 10만원, 2-4세 15만원 등)	계(수)
전체	48.8	24.1	27.2	100(320)
자녀 유무				
있음	51.9	23.5	24.6	100(268)
없으나 임신 중	32.7	26.9	40.4	100(52)
$\chi^2(df)$		7.473(2)*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그림 III-4-3] 아동수당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한 전체의견

단위: %



라.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 지급 시에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8%,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3%로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60% 정도로 과반수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7%로 부정적인 의견은 전반적으로 7% 정도에 불과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7%를 차지하였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다음으로 맞벌이가 외벌이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에 비해 부모교육의 의무화 입장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9〉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의 의무적 실시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계(수)	평균
전체	1.7	5.5	32.7	48.8	11.3	100(924)	3.6
성별							
남성	1.8	6.7	34.3	48.2	9.0	100(446)	3.6
여성	1.7	4.4	31.2	49.4	13.4	100(478)	3.7
$\chi^2(df)/t$			7.058(4)				-2.3*
연령							
20대	6.2	6.2	39.5	38.3	9.9	100(81)	3.4
30대	1.4	5.0	32.1	51.0	10.4	100(557)	3.6
40대	0.8	5.4	33.0	47.9	13.0	100(261)	3.7
50대	4.0	16.0	20.0	44.0	16.0	100(25)	3.5
$\chi^2(df)/F$			23.653(12)*				2.6
자녀수							
1명	0.5	6.2	36.8	44.1	12.4	100(372)	3.6
2명	2.5	4.3	26.4	56.1	10.7	100(394)	3.7
3명 이상	3.0	9.1	33.3	43.9	10.6	100(66)	3.5
$\chi^2(df)/F$			21.391(8)**				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7	4.3	28.5	54.8	11.6	100(438)	3.7
외벌이	2.5	6.7	35.8	43.8	11.2	100(447)	3.5
소득 없음	5.1	5.1	43.6	38.5	7.7	100(39)	3.4
$\chi^2(df)/F$			20.881(8)**				7.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수당 지급 시에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67명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교육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급 자체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14.9%, 모름/무응답이 10.4%, 아동수당이 적어서 9.0%,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참여가 형식적으로 될 것 같아서 7.5%, 의무적일 필요가 없어서/강제성에 거부감이 들어서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만0~1세로 어린 경우에 다른 연령에 비해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각 66.7%, 61.5%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6세인 경우에는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와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참여가 형식적으로 될 것 같아서와 같은 이유가 25.0%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0〉 의무적 부모교육 실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44.8	14.9	9.0	7.5	6.0	3.0	4.5	10.4	100(67)
자녀 연령									
만 0세	66.7	11.1	11.1	0.0	11.1	0.0	0.0	0.0	100(9)
만 1세	61.5	23.1	0.0	0.0	0.0	15.4	0.0	0.0	100(13)
만 2세	44.4	33.3	11.1	0.0	11.1	0.0	0.0	0.0	100(9)
만 3세	54.5	9.1	18.2	9.1	0.0	0.0	0.0	9.1	100(11)
만 4세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2)
만 5세	50.0	12.5	12.5	12.5	0.0	0.0	0.0	12.5	100(8)
만 6세	25.0	12.5	0.0	25.0	0.0	0.0	25.0	12.5	100(8)
$\chi^2(df)$	64.070(42)*								

주: ① 교육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② 아동수당 지급 자체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③ 아동수당이 적어서, ④ 의무적으로 실시할 경우 참여가 형식적이 될 것 같아서, ⑤ 의무적일 필요가 없어서/강제성에 거부감이 들어서, ⑥ 확실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아동수당 지급 시에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555명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어서가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어서가 13.5%, 모름/무응답 8.6%, 부모도 교육 받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서가 7.0%,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가 5.2%,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어서가 4.3%, 공정/평등하게/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서가 3.1%, 아동수당에 대한 의무감을 제고하므로 2.9%,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주요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11〉 의무적 부모교육 실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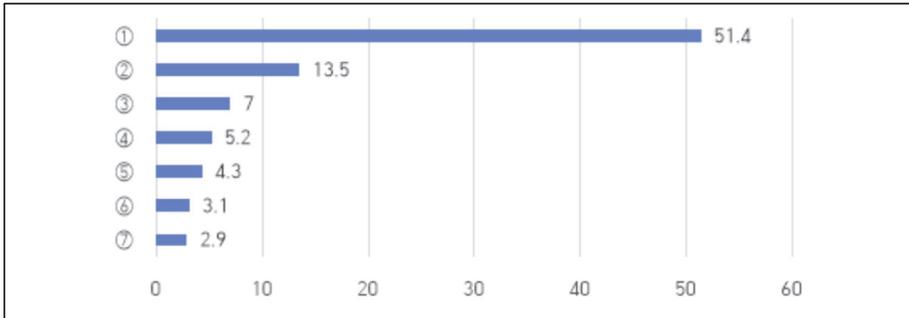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51.4	13.5	7.0	5.2	4.3	3.1	2.9	1.1	0.9	2.0	8.6	100(555)

주: 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② 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③ 부모도 교육 받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므로, ④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어서, ⑥ 공정/평등하게/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서, ⑦ 아동수당에 대한 의무감을 제고하므로, ⑧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⑨ 의무적으로 실시하면 부모교육 참여 기회가 더 생길 것 같아서, ⑩ 기타, ⑪ 모름/무응답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4-4〕 의무적 부모교육 실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유

단위: %



주: 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② 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③ 부모도 교육 받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므로, ④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어서, ⑥ 공정/평등하게/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서, ⑦ 아동수당에 대한 의무감을 제고하므로

마.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방식

1)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시 선호하는 부모교육 방식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이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결합 방식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 영상 교육이 41.0%, 오프라인 교육 9.8%, 인쇄물 통한 서면

교육 5.6%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 살펴볼 때,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와 대상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이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선호하는 방식에 대한 1, 2순위에 대한 응답은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의 결합과 온라인 영상 교육 방식이라고 동일하게 응답했던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방식을 3순위로 선호했던 반면,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에는 인쇄물 통한 서면 교육이 3순위로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와 외벌이의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의 결합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온라인교육을 선호하였던 반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쇄물을 통한 서면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2〉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실시 방식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구분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의 결합	온라인 영상 교육	오프라인 교육	인쇄물 통한 서면교육	기타	계(수)
전체	43.3	41.0	9.8	5.6	0.2	100(924)
자녀 유무						
있음	43.4	41.3	10.5	4.6	0.2	100(832)
없으나 임신 중	42.4	38.0	4.3	15.2	0.0	100(92)
		$\chi^2(df)$				
		20.29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9	40.0	10.7	3.4	0.0	100(438)
외벌이	42.1	41.6	9.4	6.5	0.4	100(447)
소득 없음	28.2	46.2	5.1	20.5	0.0	100(39)
		$\chi^2(df)$				
		26.476(8)***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2) 오프라인 부모교육에 관한 희망 횟수, 시간, 장소, 방식 및 집단규모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이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선호하는 부모교육 방식을 질문했을 때 오프라인 부모교육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횟수, 시간, 장소, 집단규모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다음에서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가)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 횟수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부모교육 횟수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연 2회를 희망하는 비율이 4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 1회 24.2%, 연 4회 14.3%, 6회 이상 8.8%, 3회와 5회가 동일하게 4.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는 연 6회 이상의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지역의 부모는 모두 연 1~2회 정도의 부모교육을 희망하였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6회 이상의 부모교육을 원하는 비율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연 1~2회보다 연 3회 이상의 부모교육을 원하는 비율이 대도시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 부모는 연 1~2회의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반면,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일 경우에는 연 3~4회의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횟수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II-4-13〉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수)
전체	24.2	44.0	4.4	14.3	4.4	8.8	100(91)
거주지							
서울	10.0	35.0	5.0	15.0	0.0	35.0	100(20)
인천/경기	31.3	40.6	6.3	12.5	9.4	0.0	100(32)
대전/충청/세종	30.8	46.2	7.7	15.4	0.0	0.0	100(13)
광주/전라	12.5	62.5	0.0	12.5	12.5	0.0	100(8)
대구/경북	50.0	50.0	0.0	0.0	0.0	0.0	100(2)
부산/울산/경남	26.7	53.3	0.0	20.0	0.0	0.0	100(15)
강원/제주	0.0	0.0	0.0	0.0	0.0	100.0	100(1)
$\chi^2(df)$			44.780(30)*				
지역유형							
대도시	13.8	37.9	6.9	17.2	0.0	24.1	100(29)
중소도시	32.1	53.6	0.0	10.7	0.0	3.6	100(28)
읍면지역	26.5	41.2	5.9	14.7	11.8	0.0	100(34)
$\chi^2(df)$			23.568(10)**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수)
자녀 유무							
있음	24.1	46.0	2.3	13.8	4.6	9.2	100(87)
없으나 임신 중	25.0	0.0	50.0	25.0	0.0	0.0	100(4)
$\chi^2(df)$	22.524(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 시간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부모교육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2시간 미만인 6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시간 미만 28.6%, 3시간 이상 7.7%, 1시간 미만 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4〉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시간(1회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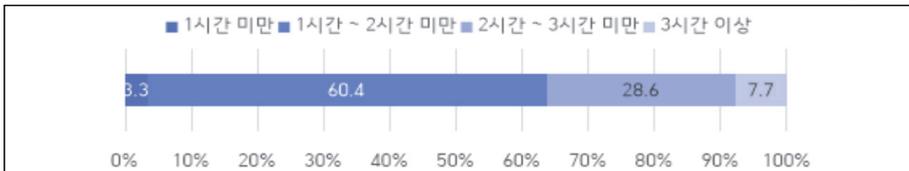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수)
전체	3.3	60.4	28.6	7.7	100(9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4-5〉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시간(1회 당)

단위: %



다)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 장소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부모교육 교육 장소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유치원이 3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14.3%,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2%, 학부모지원센터 12.1%, 도서관/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가 동일하게 7.7%, 직장 6.6%, 보건소 2.2%,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동일하게 1.1% 순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 이용기관에 따라서 살펴볼 때, 막내자녀 이용기관이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교육 장소로 어린이집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치원인 경우에는 유치원을 희망 교육 장소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교인 경우에는 도서관/복지관을 희망하는 교육 장소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양육의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희망하는 교육 장소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 유형 및 기관 미이용에 따른 교육 희망 장소는 각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15〉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교육장소_1순위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수)
전체	33.0	14.3	13.2	12.1	7.7	7.7	6.6	2.2	1.1	1.1	1.1	100(91)
막내 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46.9	8.2	12.2	14.3	8.2	4.1	4.1	0.0	0.0	2.0	0.0	100(49)
유치원	23.1	15.4	15.4	15.4	0.0	7.7	15.4	0.0	0.0	0.0	7.7	100(13)
초등학교	14.3	0.0	14.3	0.0	42.9	0.0	14.3	0.0	14.3	0.0	0.0	100(7)
가정양육	11.1	38.9	5.6	11.1	0.0	22.2	5.6	5.6	0.0	0.0	0.0	100(18)
$\chi^2(df)$	61.226(30)***											

주: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주민자치센터, ⑤ 도서관/복지관, ⑥ 직장, ⑦ 학부모지원센터, ⑧ 보건소, ⑨ 산부인과, ⑩ 산후조리원, ⑪ 기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부모교육 교육 장소에 대한 1순위+2순위 응답을 합친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 응답결과와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나서 어린이집/유치원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34.1%, 육아종합지원센터 28.6%,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7.5%, 학부모지원센터 25.3%, 직장 18.7%, 도서관/복지관 13.2%, 보건소 8.8%,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동일하게 2.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선호하였고, 이어서 어린이집/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순으로 선호하였다. 어머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순으로 선호하였다.

부모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로 응답하였고, 40대와 50대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대상 자녀 유무별로 살펴보면,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선호하였고,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직장이나 보건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이용기관에 따라 살펴보면, 막내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였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선호하였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도서관/복지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막내자녀를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장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로 꼽았다. 막내자녀의 이용기관에 따로 선호하는 교육 장소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맞벌이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선호하는 교육장소로 들었고, 외벌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도서관/복지관과 같은 장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6〉 오프라인 부모교육 희망 교육장소_종합(복수응답)

단위: % (N = 91)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38.5	34.1	28.6	27.5	25.3	18.7	13.2	8.8	2.2	2.2	1.1
성별											
남성	34.9	39.5	32.6	14.0	30.2	27.9	14.0	4.7	0.0	0.0	2.3
여성	41.7	29.2	25.0	39.6	20.8	10.4	12.5	12.5	4.2	4.2	0.0
연령											
20대	60.0	20.0	40.0	40.0	0.0	20.0	20.0	0.0	0.0	0.0	0.0
30대	39.6	32.1	34.0	26.4	22.6	22.6	7.5	9.4	1.9	3.8	0.0
40대	35.5	38.7	19.4	25.8	35.5	12.9	19.4	6.5	3.2	0.0	3.2
50대	0.0	50.0	0.0	50.0	0.0	0.0	50.0	50.0	0.0	0.0	0.0
자녀 유무											
있음	39.1	35.6	29.9	26.4	25.3	17.2	13.8	6.9	2.3	2.3	1.1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중	25.0	0.0	0.0	50.0	25.0	50.0	0.0	50.0	0.0	0.0	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막내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53.1	32.7	28.6	26.5	20.4	18.4	10.2	4.1	2.0	4.1	0.0
유치원	30.8	38.5	23.1	30.8	30.8	7.7	15.4	15.4	0.0	0.0	7.7
초등학교	14.3	42.9	0.0	42.9	14.3	14.3	42.9	14.3	14.3	0.0	0.0
가정양육	16.7	38.9	50.0	16.7	38.9	22.2	11.1	5.6	0.0	0.0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7	27.7	36.2	31.9	23.4	12.8	10.6	8.5	2.1	2.1	0.0
외벌이	31.0	42.9	21.4	21.4	26.2	26.2	14.3	9.5	2.4	2.4	2.4
소득 없음	50.0	0.0	0.0	50.0	50.0	0.0	50.0	0.0	0.0	0.0	0.0

주: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주민자치센터,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 학부모 지원센터, ⑥ 직장, ⑦ 도서관/복지관, ⑧ 보건소, ⑨ 산부인과, ⑩ 산후조리원, ⑪ 기타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라)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방식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부모교육 교육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를 위한 실제적인 실습 등을 포함하는 워크숍 방식 33.0%, 특강/강연회 24.2%, 참가자 간 토론 2.2%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장 희망하였고 다음으로 특강/강연회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던 반면, 어머니는 부모를 위한 워크숍을 가장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7〉 오프라인 부모교육 교육방식

구분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	부모를 위한 워크숍(체험)	특강/강연회	참가자 간 토론	계(수)
전체	40.7	33.0	24.2	2.2	100(91)
성별					
남성	41.9	18.6	34.9	4.7	100(43)
여성	39.6	45.8	14.6	0.0	100(48)
$\chi^2(df)$					11.229(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마)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집단규모

오프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부모교육 집단규모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5~10인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인 미만 34.1%, 10~20인 미만 14.3%, 일대일 5.5%, 20인 이상 3.3% 순으로 나타났다. 5~10인 미만과 5인 미만과 같은 소그룹 규모를 원하는 경우가 77%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4-18〉 오프라인 부모교육 집단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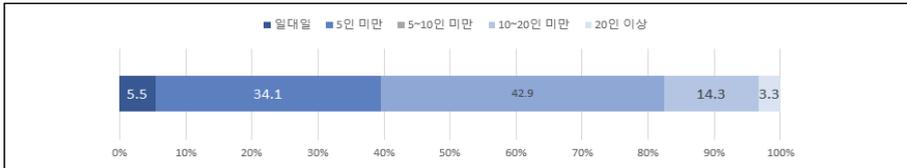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일대일	5인 미만	5~10인 미만	10~20인 미만	20인 이상	계(수)
전체	5.5	34.1	42.9	14.3	3.3	100(91)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4-6] 오프라인 부모교육 집단규모

단위: %



3) 온라인 부모교육에 관한 희망 횟수, 1회 시간, 교육방식, 집단규모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이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선호하는 부모교육 방식을 질문했을 때 온라인 부모교육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횟수, 1회 시간, 교육방식 및 집단규모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다음에서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가) 온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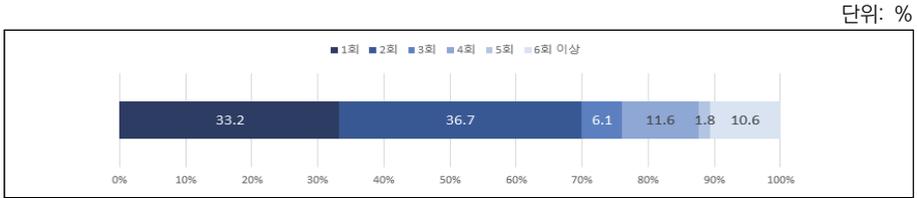
먼저, 아동수당과 연계된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횟수를 살펴보면, 연 2회가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 1회 33.2%, 연 4회 11.6%, 연 6회 이상 10.6%, 연 3회 6.1%, 연 5회 1.8%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희망 횟수는 연 1회와 2회가 69.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연 6회 이상도 10.6%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III-4-19〉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횟수

구분	단위: %(명)						계(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전체	33.2	36.7	6.1	11.6	1.8	10.6	100(37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4-7]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횟수



나) 온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 시간

아동수당과 연계된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시간을 살펴보면, 1~2시간 미만이 6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미만 16.4%, 2~3시간 미만 15.3%, 3시간 이상 6.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과 연계된 온라인 부모교육 시간은 1~2시간 미만을 원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시간을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지역 부모는 1~2시간 미만을 원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3시간 이상을 원하는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1시간 미만을 원하는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도 1~2시간 미만의 온라인교육을 원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고 1시간 미만을 원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으므로 1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을 원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1시간 이상의 온라인 부모교육을 원하는 비중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 부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막내 자녀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기관 이용 대신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가 1시간 미만의 온라인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자녀 부모는 1시간 미만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2~3시간 미만을 원하는 비율이 영유아 자녀 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0〉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시간(1회 당)

구분	단위: %(명)				계(수)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전체	16.4	62.0	15.3	6.3	100(379)
거주지					
서울	6.0	65.5	19.0	9.5	100(84)
인천/경기	22.9	56.5	18.3	2.3	100(131)
대전/충청/세종	13.6	70.5	11.4	4.5	100(44)
광주/전라	22.9	57.1	8.6	11.4	100(35)
대구/경북	12.1	60.6	15.2	12.1	100(33)
부산/울산/경남	22.9	60.0	14.3	2.9	100(35)
강원/제주	5.9	82.4	0.0	11.8	100(17)
$\chi^2(df)$	30.364(18)*				
지역유형					
대도시	7.5	66.9	16.5	9.0	100(133)
중소도시	24.8	55.8	14.7	4.7	100(129)
읍면지역	17.1	63.2	14.5	5.1	100(117)
$\chi^2(df)$	15.934(6)*				
막내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17.9	59.8	17.3	5.0	100(179)
유치원	10.1	76.8	4.3	8.7	100(69)
초등학교	5.0	55.0	35.0	5.0	100(20)
가정양육	23.7	53.9	15.8	6.6	100(76)
$\chi^2(df)$	21.333(9)*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다) 온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방식

아동수당과 연계된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교육방식을 살펴보면, 실시간 강의를 원하는 비율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시 개설 강의 39.3%, 실시간 참가자 토론 방식 10.3%로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가 실시간 강의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강원/제주지역이 실시간 참가자 토론 방식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상시 개설 강의를 원하는 경우는 인천/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 부모가 실시간 강의와 실시간 참가자 토론 방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소도시 거주 부모는 온라인 상시 개설 강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1〉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교육방식

단위: %(명)

구분	실시간 강의	상시 개설 강의	실시간 참가자 토론	계(수)
전체	50.4	39.3	10.3	100(379)
거주지				
서울	54.8	27.4	17.9	100(84)
인천/경기	45.8	47.3	6.9	100(131)
대전/충청/세종	47.7	43.2	9.1	100(44)
광주/전라	54.3	37.1	8.6	100(35)
대구/경북	72.7	27.3	0.0	100(33)
부산/울산/경남	45.7	42.9	11.4	100(35)
강원/제주	29.4	47.1	23.5	100(17)
$\chi^2(df)$		25.578(12)*		
지역유형				
대도시	55.6	29.3	15.0	100(133)
중소도시	45.7	46.5	7.8	100(129)
읍면지역	49.6	42.7	7.7	100(117)
$\chi^2(df)$		11.210(4)*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라) 온라인 부모교육에서 희망 집단규모

아동수당과 연계된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집단규모를 살펴보면, 5~10인 미만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인 미만 31.7%, 10~20인 미만 12.6%, 일대일 12.2%, 20인 이상 10.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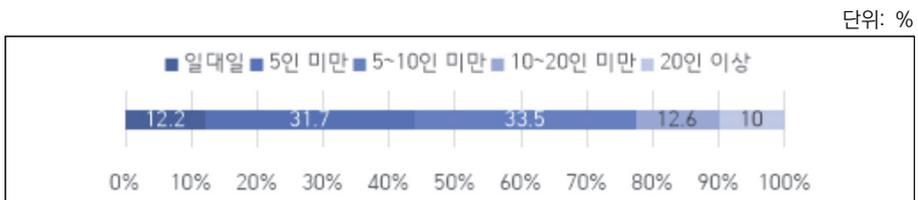
〈표 III-4-22〉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집단규모

단위: %(명)

구분	일대일	5인 미만	5~10인 미만	10~20인 미만	20인 이상	계(수)
전체	12.2	31.7	33.5	12.6	10.0	100(23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III-4-8] 온라인 부모교육 희망 집단규모



4)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이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가장 선호하는 부모교육 방식을 질문했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의 결합 방식을 원한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횟수, 시간, 장소, 집단규모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다음에서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 횟수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먼저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 희망 횟수를 살펴본 결과, 연 1회를 희망하는 비율이 52.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연 2회 27.5%, 연 6회 이상 6.8%, 연 3회 5.3%, 연 4회 5.0%, 연 5회 3.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온라인 방식의 부모교육 희망 횟수를 살펴본 결과, 연 1회를 희망하는 비율이 39.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연 2회 26.5%, 연 6회 이상 11.5%, 연 4회 9.3%, 연 3회 7.3%, 연 5회 6.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50대가 20~40대보다 오프라인 교육을 1회만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오프라인 희망 횟수와 온라인 희망 횟수를 합쳐서 희망 횟수를 고려해보면, 응답 부모들은 오프라인 1회, 온라인 1회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고, 다음으로 오프라인 2회와 온라인 2회 정도를 원하였고, 세 번째로 6회 이상의 오프라인과 6회 이상의 온라인 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1, 2순위는 아니었지만 3순위로 연 6회 이상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부모교육을 원한다는 것은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와 갈급함이 있는 부모도 다소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표 III-4-23〉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 연간 횟수_1) 오프라인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수)
전체	52.3	27.5	5.3	5.0	3.3	6.8	100(400)
연령							
20대	55.6	30.6	8.3	0.0	0.0	5.6	100(36)
30대	49.4	28.6	5.3	4.9	4.9	6.9	100(245)
40대	56.0	26.6	4.6	4.6	0.9	7.3	100(109)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수)
50대	70.0	0.0	0.0	30.0	0.0	0.0	100(10)
$\chi^2(df)$							26.155(15)*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4-24〉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 연간 횟수_2) 온라인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수)
전체	39.3	26.5	7.3	9.3	6.3	11.5	100(4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 시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먼저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 희망 시간을 살펴본 결과, 1~2시간 미만의 비율이 69.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3시간 미만 17.0%, 1시간 미만 8.5%, 3시간 이상 5.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온라인 방식의 부모교육 희망 시간을 살펴본 결과, 1~2시간 미만의 비율이 63.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시간 미만 21.8%, 2~3시간 미만 9.8%, 3시간 이상 5.3%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희망 횟수와 온라인 희망 횟수를 합쳐서 희망 횟수를 고려해보면, 응답 부모들은 오프라인 1~2시간 미만, 온라인 1~2시간 미만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고, 두 번째로 오프라인 2~3시간 미만과 온라인 1시간 미만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로 1시간 미만의 오프라인과 2~3시간 미만의 온라인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5〉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 시간(1회 당)_1) 오프라인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수)
전체	8.5	69.0	17.0	5.5	100(400)
성별					
남성	5.3	66.5	21.8	6.4	100(188)
여성	11.3	71.2	12.7	4.7	100(212)
$\chi^2(df)$					9.874(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표 III-4-26〉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 시간(1회 당)_2 온라인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수)
전체	21.8	63.3	9.8	5.3	100(4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 장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먼저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 희망 교육 장소에 관하여 1순위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17.5%, 주민자치센터 12.0%,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8%, 도서관/복지관 8.0%, 학부모지원센터 7.0%, 직장 5.3%, 보건소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27〉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장소_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32.8	17.5	12.0	11.8	8.0	7.0	5.3	3.0	2.0	0.8	100(400)
막내자녀 이용기관											
어린이집	41.7	17.2	6.8	12.5	6.3	4.7	6.8	1.6	2.6	0.0	100(192)
유치원	39.2	13.9	11.4	11.4	5.1	11.4	6.3	1.3	0.0	0.0	100(79)
초등학교	9.5	38.1	19.0	4.8	9.5	9.5	4.8	4.8	0.0	0.0	100(21)
가정양육	20.3	21.7	17.4	8.7	13.0	8.7	0.0	7.2	1.4	1.4	100(69)
$\chi^2(df)$	51.87(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3	17.4	13.9	8.0	8.5	5.5	6.5	2.0	2.0	1.0	100(201)
외벌이	30.9	18.1	10.1	14.9	6.4	9.0	4.3	4.3	2.1	0.0	100(188)
소득 없음	18.2	9.1	9.1	27.3	27.3	0.0	0.0	0.0	0.0	9.1	100(11)
$\chi^2(df)$	33.211(18)*										

주: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주민자치센터, ④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⑤ 도서관/복지관, ⑥ 학부모지원센터, ⑦ 직장, ⑧ 보건소, ⑨ 산부인과, ⑩ 산후조리원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다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먼저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 희망 교육 장소에 관하여 1순위+2순위를 합쳐서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율이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35.8%, 육아종합지원센터 34.5%, 학부모지원센터 21.8%,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5%,

도서관/복지관 17.5%, 직장 12.5%, 보건소 10.0%, 산부인과 3.8%, 산후조리원 1.5%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른 오프라인 희망 교육 장소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1~3순위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민자치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순으로 같았던 반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4순위로 선호했던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학부모지원센터를 4순위로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부모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의 부모교육 희망 장소 1~3순위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민자치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순으로 같았던 반면, 50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희망하는 장소로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선호하였고,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복지관을 같이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 장소는 지역에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과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를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다.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부모는 주민자치센터를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유치원/어린이집, 세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순으로 응답하였다. 광주/전라지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일하게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다. 강원/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일하게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으며, 세 번째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건소를 동일하게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다.

아동수당 대상 자녀의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주민자치센터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도서관/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직장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4-28〉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장소_종합(복수응답)

단위: % (N=4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2.3	35.8	34.5	21.8	20.5	17.5	12.5	10.0	3.8	1.5
성별										
남성	45.7	34.6	34.0	21.8	22.9	16.5	12.8	8.5	2.7	0.5
여성	39.2	36.8	34.9	21.7	18.4	18.4	12.3	11.3	4.7	2.4
연령										
20대	41.7	33.3	38.9	22.2	16.7	8.3	8.3	19.4	8.3	2.8
30대	41.6	33.5	32.7	22.0	22.4	18.0	12.7	10.2	4.9	2.0
40대	43.1	42.2	38.5	22.0	15.6	18.3	13.8	6.4	0.0	0.0
50대	50.0	30.0	20.0	10.0	40.0	30.0	10.0	10.0	0.0	0.0
거주지										
서울	48.8	32.9	34.1	25.6	20.7	12.2	15.9	6.1	3.7	0.0
인천/경기	40.3	44.4	36.3	16.9	16.1	16.1	11.3	12.1	4.0	2.4
대전/충청/세종	36.0	42.0	34.0	18.0	22.0	14.0	16.0	12.0	6.0	0.0
광주/전라	47.4	23.7	31.6	31.6	31.6	18.4	13.2	2.6	0.0	0.0
대구/경북	50.0	30.0	37.5	22.5	10.0	25.0	10.0	10.0	2.5	2.5
부산/울산/경남	32.7	28.6	34.7	24.5	26.5	26.5	10.2	10.2	4.1	2.0
강원/제주	41.2	29.4	23.5	17.6	29.4	17.6	5.9	23.5	5.9	5.9
자녀 유무										
있음	44.6	34.6	36.6	22.4	20.2	16.1	11.6	9.7	3.3	0.8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중	20.5	46.2	15.4	15.4	23.1	30.8	20.5	12.8	7.7	7.7

주: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주민자치센터,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학부모지원센터, 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⑥ 도서관/복지관, ⑦ 직장, ⑧ 보건소, ⑨ 산부인과, ⑩ 산후조리원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방식 및 집단규모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먼저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교육방식 및 집단규모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온라인 방식에서 희망하는 교육방식 및 집단규모에 관하여 다음에서 살펴보았다.

(1)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방식 및 집단규모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먼저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방식에 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44.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체험 등을 포함한 워크숍 방식 27.3%, 특강/강연회 방식 25.5%, 참가자 간 토론 방식 2.8%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별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방식을 살펴보면, 20대와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참가자 간 토론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40대의 경우에는 특강/강연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50대의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수당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번째로 부모를 위한 워크숍, 세 번째로 특강/강연회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번째로 특강/강연회, 세번째로 부모를 위한 워크숍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가자 간 토론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아동수당 자녀가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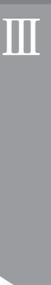
〈표 III-4-29〉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방식

단위: %(명)

구분	특강/ 강연회	부모를 위한 워크숍(체험)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	참가자 간 토론	계(수)
전체	25.5	27.3	44.5	2.8	100(400)
연령					
20대	16.7	33.3	36.1	13.9	100(36)
30대	24.5	26.5	47.8	1.2	100(245)
40대	32.1	28.4	37.6	1.8	100(109)
50대	10.0	10.0	70.0	10.0	100(10)
$\chi^2(df)$	30.028(9)***				
자녀 유무					
있음	25.5	27.7	44.9	1.9	100(361)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중	25.6	23.1	41.0	10.3	100(39)
$\chi^2(df)$	9.248(3)*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집단규모에 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6~10인 미만인 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20인 미만 23.3%, 5인 이하 21.5%, 20~30인 미만 11.3%, 일대일 4.3%, 30인 이상 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0〉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 집단규모

단위: %(명)

구분	일대일	5인 이하	6~10인 미만	10~20인 미만	20~30인 미만	30인 이상	계(수)
전체	4.3	21.5	36.5	23.3	11.3	3.3	100(4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2) 온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방식 및 집단규모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먼저 온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 교육방식에 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실시간 강의 방식이 49.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상시개설 강의 방식 35.0%, 실시간 참가자 토론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1〉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 집단규모

단위: %(명)

구분	실시간 참가자 토론	실시간 강의	상시 개설 강의	계(수)
전체	15.8	49.3	35.0	100(40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서 온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에서 희망하는 집단규모에 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6~10인 이하 29.6%, 5인 이하 24.2%, 10~20인 이하 18.1%, 20~30인 이하 9.6%, 30인 이상과 일대일 방식이 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2〉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부모교육 시 희망하는 온라인교육 집단규모

단위: %(명)

구분	일대일	5인 이하	6~10인 이하	10~20인 이하	20~30인 이하	30인 이상	계(수)
전체	9.2	24.2	29.6	18.1	9.6	9.2	100(260)

자료: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임.

5.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인 예비부모 92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부모교육과 아동수당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임신 중인 예비부모의 부모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았으며, 만 0세 자녀가 있는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율도 다른 연령 자녀를 둔 부모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부모와 신생아 자녀가 있는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했던 부모교육 장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병원/보건소/산후조리원’은 예비부모와 신생아 자녀를 둔 부모도 이용해야 하는 장소이기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모교육을 홍보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와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 부모의 경우, 부모교육을 듣고 싶지만 자녀를 맡길 곳이 없거나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모교육 홍보 및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주최기관의 안내나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부모교육에 참여했으며, 부모교육 내용이 알차고 전문적이면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수 있을 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사이트나 오프라인 장소를 활용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부모교육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계된 부모교육은 실제 자녀양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때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지도와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보다 학부모지원센터 프로그램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응답자의 70.9%가 학부모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것을 참작

할 때 다른 정부지원기관과 학부모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과 주요 이용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의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별 특성을 살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관별 특성을 부모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들이 부모교육 목적으로 '자녀의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을 중시했기에 기관별 특성과 가족 및 자녀 연령별 요구를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늘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개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된다'라는 응답이 46.3%,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43.1%를 차지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부모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부모교육을 선택이나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우선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구체적인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태아기부터 만6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이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체발달과 언어발달에 관한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대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부모교육 기관 간 사업 운영의 차별화 및 이들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모교육 내용, 이용 절차에 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하고, 자녀 성장 시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음 순으로 많았다. 부모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발달 시기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양한 부모교육 제공 기관 등이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아동수당에 관한 인지도는 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서 아동수당에 관하여 알게 된 경우가 38% 정도가 되었으며, 주민센터를 통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도 59% 정도로 가장 많아서 주민센터

가 아동수당에 대한 홍보와 신청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수당에 대하여 만족+매우만족한다는 비율은 57% 정도로 과반수였으며, 불만족+매우불만족은 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하는 비율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수당에 불만족한 이유는 비용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비율이 72%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홉째, 아동수당 정책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현재의 정책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4%이었고,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반면,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도 35% 정도로 적은 비중은 아니었다. 한편 응답자의 거주 지역, 지역 유형 및 아동수당 대상 자녀의 유무에 따라 현 아동수당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동수당 정책에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방법에 관한 질문 결과에서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 및 출생순위별,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열째,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긍정과 매우 긍정을 합하여 60% 정도가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부정과 부정 의견은 합하여 7% 정도에 불과했다. 아동수당 지급 시에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육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급 자체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열한째,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해서 부모교육을 시행한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을 결합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가장 원하였고, 다음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방식을 원하는 응답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았다. 먼저,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을 선호할 때에는 연 2회, 1~2시간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교육의 희망 횟수는 거주지역이나 아동수당 대상 자녀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희망교육 장소의 경우에는 막내자녀의 이용기관에 따라 선호장소가 달랐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하는 교육방식도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식의 부모교육을 선호할 때는 연 2회, 1~2시간 미만, 실시간 강의, 5~10인 미만 규모로 부모교육을 받기를 전체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방식의 부모교육을 선호할 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 각 연 1회 받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교육 장소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장 원하였고,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가장 원하는 교육방식으로 응답하였고, 6~10인 미만의 규모로 부모교육을 받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 교육에서 희망하는 교육장소의 경우에는 부모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아동수당 대상 자녀 유무에 따라 다소 다른 응답 경향을 나타냈고, 희망하는 오프라인 교육방식에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온라인교육은 각 1~2시간 미만, 연 1회, 실시간 강의 방식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한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들은 전반적인 양방향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을 최소 연 2회 정도는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부모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부모교육 경험과 아동수당- 부모교육 연계 관련 요구

- 01 면담 진행 과정 및 면담 참여자 정보
- 02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 03 부모교육 전달 방법에 대한 의견
- 04 소결

IV. 부모교육 경험과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관련 요구

본 장에서는 아동수당 및 부모교육과 관련된 부모의 경험과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대도시 및 읍면지역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를 정리하였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읍면 지역으로 나누고, 자녀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임신부, 영아, 유아로 나누어 심층 면담 대상을 표집하였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는 임신부 대신 다자녀 가정을 인터뷰하여서 다양한 대상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1. 면담 진행 과정 및 면담 참여자 정보

본 연구의 심층 면담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자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개인/집단 면담, 대면/비대면 면담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였다.¹⁰⁾ 구체적으로 읍면지역 면담 대상자는 대면-집단 면담으로, 대도시 면담 대상자들은 일부는 대면-개인/집단 면담, 대부분은 비대면-개인 면담으로 참여하였다. 개인 면담은 약 30분-1시간 정도, 집단 면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면 면담은 지역 어린이집 또는 참여자의 협조를 구해 장소를 구하여 실시하였으며, 비대면 면담은 연구진과 면담자 간 1:1 전화통화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대상자 정보는 <표 IV-1-1>, <표 IV-1-2>에 정리하였다.

10)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함.

〈표 IV-1-1〉 심층면담 대상자 정보

지역	자녀 연령	면담자 분류 번호	면담일	면담방식	관계	자녀수
대도시	임신 중	대도시 임신부1	11월 3일	비대면-개인	모	1
		대도시 임신부2	11월 11일	비대면-개인	모	1
		대도시 임신부3	11월 12일	비대면-개인	모	2
	영아	대도시 영아1	11월 3일	비대면-개인	모	1
		대도시 영아2	11월 5일	대면-집단	모	2
		대도시 영아3	11월 10일	비대면-개인	모	1
	유아	대도시 유아1	11월 5일	대면-집단	모	1
		대도시 유아2	11월 5일	대면-집단	모	1
		대도시 유아3	11월 10일	대면-개인	모	3
읍면	영아	읍면 영아1	11월 2일	대면-집단	모	4
		읍면 영아2	11월 2일	대면-집단	모	2
		읍면 영아3	11월 2일	대면-집단	이모	1
	유아	읍면 유아1	11월 2일	대면-집단	모	2
		읍면 유아2	11월 2일	대면-집단	모	1
		읍면 유아3	11월 2일	대면-집단	할머니	1
		읍면 유아4	11월 2일	대면-집단	모	1
	다문화 유아	읍면 다문화1	11월 2일	대면-집단	부	1
읍면 다문화2		11월 2일	대면-집단	부	1	

〈표 IV-1-2〉 심층면담 대상 및 가구 특성

단위: %(가구)

변수	구분	% (수)
		100.0 (18)
면담자 연령	평균/표준편차	39.53 /9.06
면담자 최종학력	고졸 이하	33.3 (6)
	전문(2,3년제)대학 졸	11.1 (2)
	4년제 대학 이상	27.8 (5)
	대학원 이상	16.7 (3)
가구원 수	평균/표준편차	4.22 /1.66
가구형태	부모+자녀	61.1 (11)
	부모+자녀+조부모	27.8 (5)
	부모+자녀+조부모+기타 친인척	11.1 (2)
	그 외	0 (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7 (3)
	200-300만원 미만	11.1 (2)

변수	구분	% (수)
		100.0 (18)
	300-400만원 미만	27.8 (5)
	400-500만원 미만	0 (0)
	500-600만원 미만	11.1 (2)
	600만원 이상	33.3 (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9 (7)
	외벌이	50.0 (9)
총 자녀수 (임신 중 자녀 1명으로 포함)	1명	61.1 (11)
	2명	27.8 (5)
	3명 이상	10.1 (2)

면담 내용은 크게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내용에 따라 본 장에서는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부모교육 전달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가. 부모교육 경험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대체로 체계적인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조리원/병원에서 하는 교육,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자녀가 재원중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 부모교육 경험 무

특히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부모교육을 받아 본 적은 없는 거 같고요. 그냥 제가 (대학원) 전공이랑 연계된 과목들 ‘부모자녀관계’나 이런 과목들 들으면서..” (대도시 임신부1)

“부모교육은 못 들어 봤고요. 그냥 열심히 이제 재활 치료 다니면서 거기 엄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읍면 유아3)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고 지금 지역이 서울이랑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교육이 딱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아본 결과는 보건소밖에는 없는데, 전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더 못하고 있죠.” (대도시 임신부2)

2) 조리원, 출산 병원을 통한 부모교육

조리원에서 일회성으로 했던 강의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산모교실을 통해 처음으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조리원 부모교육, 병원 산모교실 등은 짧게 이벤트성으로 제공되고 임신기, 영아기에 집중된 정보(예: 수유하기, 씻기기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교육은 아니고 조리원에서 남편하고 같이 입소를 해가지고, 처음 들어갔을 때 조리원 부원장님이 그런 교육 같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아기가 어렵하고 다른 점, 이런 거에 대해 보여주시고 앞으로 조리원 생활 하는 동안 아기를 어떻게 모자동실 시간에 해야 하는지. 그런 정도밖에는 받지는 못했어요.” (대도시 영아1)

“조리원에서 영유아 사고와 관련한 교육과 (안전사고) 모유 수유에 대해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1)

“있다고 해도 조리원에서 아이를 어떻게 씻고 그런 것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 같아요.” (읍면 영아2)

“병원에서 산전교육 같은 정도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도시 임신부3)

“코로나 전에 저만 산모 교실 한번 가봤고요. 그 뒤로는 보건소에서 못하고 아무데도 없어서 그냥 인터넷으로만 대충 알아봤었고... 근데 해도 실전에 닥치니까 막상 안되더라고요.” (대도시 영아3)

3) 종교 단체를 통한 부모교육

종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부모가 2명 있었는데, 이들이 참여한 부모교육은 모두 일회성, 특강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영유아 예배 같이 가면 거기서 애들 관련된 거를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를 교육 해주는데,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갈 때마다 아이를 어떻게 신앙심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중간 중간에 치과나 건강, 사고 관련된 부분도 교육했던 것 같아요. 특강 식으로.” (대도시 영아2)

“저는 조리원을 만나와서 모르겠고(미국에서 출산) 결혼할 때 천주교에서 하는 혼배미사 때 신부님한테 교육 들으면서 부모교육에 대해서 짧게 강의처럼 들었던 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대도시 유아2)

4) 자녀의 기관을 통한 부모교육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신청했었어요. 놀이교육도 있었고, 성교육,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았어요. 선택 사항이었어요. (이걸 들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사항/놀이 교육인지 성교육인지의 선택 사항이 아님) 30명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3)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그때 구성에 선생님이 오셔서 춘천에 오셔서 그때 저기서 했던 거 같은데. 한 2-3년 됐어요.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 살던 게 아니라 시내에서 들어왔거든요. 저는 겨울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는 시내에서 다녔어요. 000 어린이집이라고. 그때는 부모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읍면 영아1)

5) 지자체를 통한 부모교육

읍면 지역 부모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할 때 기관의 안내를 받고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에서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매년 했었어요. 오셔가지고. 성교육도 있었고요. 구성에 선생님도 오셨었고 이런 교육 자치단체에서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가가지고 듣고 오고.” (읍면 유아2)

“부모님 교육 그런 교육하면 무상으로 교육 받고 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아침 10시부터 한 두 시간? 세 시간?” (읍면 유아1)

6) 다문화 프로그램 일부

다문화 유아를 양육하는 두 가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가정이 받았던 프로그램의 종류나 내용이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아내가) 한국 왔을 때 00읍 다문화가족에서 (교육) 많이 받았죠. 한국어, 생활,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 관한 거죠. 부모교육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오셔서가지고 수업하고 또 가셔도 받고. 2년 했어요.” (읍면 다문화1)

“다문화 센터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해서 4번 정도 하고 끝나고. 부모교육은 그때 한 두 차례 세 차례 받은 거 같은데.” (읍면 다문화2)

나.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로 교육 참여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점, 부모교육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기회가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감소한 것, 맞벌이로 인해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것, 부모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의 부재 등을 언급하였다.

1) 자녀돌봄 공백 발생

부모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데, 가족 구성원이거나 주변에 돌봄 대체자가 부재한 경우 부모교육을 듣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자녀 연령이 어리거나,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에 자녀 돌봄 공백을 채우지 못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었다.

“오은영 박사도 그런 모임 하잖아요? 강연회 같은 거 하면 듣고 싶어도 애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 같고.” (대도시 영아2)

“실제로 애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애기는 세상 밖으로 나왔고, 애를 키워보는 게 처음이니 까 뭔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싶은데.. 이 애기를 어디다 맡길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서 애를 봐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댁이나 친정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한두 시간이라도 맡길 수도 없으니까. 그런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고 싶어도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1)

2) 제한된 교육 기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교육 기회 감소

오프라인 부모교육의 경우 수강 인원에 제약이 있고 교육 장소가 협소하여 수강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2020년에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교육이 취소되어서 그나마 있던 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 있어도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수강가능)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대도시 임신부3)

“근데 그 무슨 박물관 같은 데서도 했는데 두 차례인가 했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때 의견 썼거든요.” (읍면 영아1)

“(부모교육을) 되게 많이 받고 싶었어요. 하필 임신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져서.. 좀 그런 강연이나 이런 거들을 기회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다 불가능해져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찾아야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도 했고.” (대도시 임신부1)

3) 맞벌이 가구의 시간 제약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 모두가 평일에 일을 해서 낮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부모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주말에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휴일에 에너지를 들여 부모교육에 참여할 만큼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읍면 지역의 부모들도 대체로 부모 모두가 농사일을 해서 틈을 내기 어렵기도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자체가 거주지와 멀어서 교육 참여가 어렵기도 하였다.

“보통 남편이랑 같이 가기 어렵더라고요. 시간대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했었다면 평일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듣고 싶어도 거의 할 수가 없는...(상황이지요.) 그냥 그 부부가 같이 듣는다는 내용은 보통 출산할 때 요가자세, 진통완화법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아이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이 안 됐어요.)” (대도시 영아3)

“어린이집에서도 (부모교육을) 주말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그것까지 받기 좀 어려웠어요.” (대도시 유아3)

“일하시는 분은 또 못가세요. 저희가 좀 쉬거나 아니면 일을 좀 낼 수 있거나 아이를 봐주 시거나 그러면 갈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여긴 또 농사도 짓고 하시니까 그럴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읍면 유아2)

“가깝고 그러면. 다문화센터 여기서 너무 멀어가지고. 또 모이는 시간에 꼭 퇴근 시간에 뭐 7시에 뭐 시작하고 그러면 1시간 이상 걸려.” (읍면 다문화2)

4) 부모교육 정보 제공의 통로 부재

임신중인 가정에서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보가 정리된 웹사이트나 온라인상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곳 등 정보 제공의 통로가 부재한 문제가 있었다.

“아무래도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들으면 유익할 것 같은데, 채널이 지금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고 YouTube나 이런 건 사실 좀 보기는 별로 저는 좀 꺼려지기는 하더라고요.” (대도시 임신부2)

“미리 뭔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뭐가 있는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도시 임신부3)

다. 양육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양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크게 온라인 검색 및 영상 시청, 주변인을 통한 정보 습득, 책을 통해 학습한 경우로 나누어졌다.

1) 온라인 검색 및 영상 시청

거주 지역,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양육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 습득 방식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거나,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들은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양육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지만, 이를 통해 얻는 정보는 신뢰성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양육 상황이나 아이의 특성이 달라서 타인의 사례가 현재 자신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이나 육아하시는 분들이 추천해주는 영상 같은 거 찾아봤던 거 같아요. Netflix 다큐나 아니면 YouTube를 통해서 영상 클립 같은 거 많이 찾아봤던 거 같아요. 영상이 확실히 보기도 편하고, 좀 그럴기는 한데요. 좀 제 스스로 고민하고 다시 곱씹기에는 저는 아직은 책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시다보면 책 읽을 여유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많이 보게 되겠구나!’하고 있어요.” (대도시 임신부1)

“인터넷 맘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YouTube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되게 case by case니까 사실 아직 그걸 둘째는 와 달지 않고, 훈육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대도시 임신부3)

“이것도 다 YouTube로 찾아보고 맘카페 같은 데서도 완전히 궁금증이 해소될 방법이 없잖아요. 물어볼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맘카페 경험담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랬는데도 어쨌거나 저와는 다르니까. 다 똑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3)

“그런 거를 YouTube나 요즘은 방송 같은 거 많으니까. 그분 성함을 모르겠지만 여자분, 그 분이 하는 걸 좀 봐서. 찾아서 봤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읍면 영아2)

“저도 TV에서나 가끔 동영상을 찾아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읍면 영아3)

“TV에서하는 다큐 같은 것만 봤던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3)

“핸드폰이죠 뭐. 인터넷.” (읍면 유아1)

“주로 온라인으로 찾아봤어요. 전문가들이 아닌 임신 선배들의 주관적인 이야기들이니까 그걸 보고 또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부분들도 많았던 거 같기는 해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나타나는 현상들도 다르다보니까.” (대도시 임신부2)

“어린이집 오기 전에는 찾아봤죠. 저희 아이가 잘 안 먹거나 이럴 때. 제가 이제 첫 아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 친정어머님이 계셔도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육아에 참여해주시진 않으니까 그런 거는 아이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 보내지 전에는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제가 대체해주는 방법이라든지 떼쓰거나 이런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죠.” (읍면 유아2)

2) 주변인을 통한 정보 교류

출산 후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최근 출산 문화의 영향으로 ‘조리원 동기’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같은 연령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나누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족 중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는다는 보고도 있었다.

“일단 조리원 동기 엄마들. 왜냐면 변수를 같이 겪고 있고, 상황이 비슷하니까. ‘우리 아기가 이랬는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 아기도 그랬어요.’, ‘젖몸살이 어땠어요.’ 이렇게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도시 영아1)

“궁금한 점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셋이서 사니까 키우면서 진짜 물어볼게 되게 많았지. 정보가 없다보니까.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 언니가 서울에서 결혼해서 한 몇 년 더 빨리 했으니까 언니 도움 많이 받았어요. 교육 같은 것도, 와이프가 살림하는 것도 그렇고 좀 쉽게 언니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읍면 다문화2)

3) 책을 통해 정보 습득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익숙한 부모들의 경우 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책을 좀 찾아봤던 거 같아요. ‘나의 부모님이 이 책을 읽었더라면’ 이란 책인데요, 심리 상담가가 쓴 책이에요. 뭐, 실전 육아서보다는 좀 더 마음을 다루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 기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읽어 봐야겠다.’ 하고 있어요.” (대도시 임산부1)

“저는 그냥 책 읽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수 있고, 시간제약이 없고,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야하나.” (대도시 유아3)

라. 교육받고 싶은 내용

부모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첫째, 연령별 자녀 발달 및 양육 정보, 둘째 자녀 훈육법, 셋째 자녀 교육 관련 정보, 넷째 임신 출산 관련 정보, 다섯째 부모됨과 부모 역할, 여섯째 부모 감정 다스리기, 일곱째 정부 지원 관련 정보로 정리되었다.

1) 연령별 자녀 발달 및 양육 정보

자녀 연령별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고, 이에 맞추어 어떠한 방식의 양육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받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뒤에서도 언급되는 임신 출산 정보와 함께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전체적 그림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기를 바랐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연령별 놀이, 정서, 훈육 등에 대한 정보가 세분화되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단은 출산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궁금했고요. 애기 낳고난 다음에는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 어떻게 놀아주는지, 언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 이런 시기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대도시 영아3)

“발달 과정에 맞게 어떻게 놀아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 좀 실질적인 부분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막상 아이가 나왔는데 그 발달단계에 뭘 놀아줘야 할지 제가 잘 모르니까. 개월 수별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 이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대도시 임산부1)

“발달과 관련된 정보들.. 이정도 개월 수면 이런 발달이 있고 이런. 책들 많기는 한데 확실히 정리가 되어있으면 좀 찾아보기 좋게 되어있으면 좀 덜 당황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대도시 임산부1)

“자식한테 아이들 이제 커 가는 거. 그때 그 연령대로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모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다. 무작위하게 영상 해주는 것보다 연령별로 하면은 도움이. 영상을 보면 한 살짜리가 있을 거고 일곱 살짜리도 있을 거고 뭐 무작위로 영상 보는 것보다 나이별로 끊어서 그렇게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읍면 다문화1)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연령별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떤 인지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이들이 그냥 말을 안 듣는다. 자기주장이 강하다. 이런 거에 있어서 부모들이 ‘왜 내 아이만 이렇지?’ ‘왜 내 아이만 이렇게 강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많고. 이걸 인정해주지 않고, 아이들의 기질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교육이나 심리학이나 이런데서 했던 일반적인 부분들을 발달 과정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이나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연령대의 아이에게는 이 정도의 발달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대처는 이리이러한 것들이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부모의 과도한 반응이다.” (대도시 유아2)

“(연령별 발달 정보 제공을 받으면) 그 나이 때 아 이런 행동을 하는 구나를 알면 재가 좀 저렇구나를 알 것 같아요. 딱 태어나서는 부모가 딱 대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저희가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아 이때는 애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를 좀 알면은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읍면 영아3)

“사실 지금까지 뭔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거에 대한 정보만으로 아직까지 충분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조금 더 크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한 느낌인 거 같아요. 책에도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부터가 더 연령부터 나눠서 훈육이라던지 교육이라던지 그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도시 임산부3)

“지금도 맨날 드는 생각이 지금 제대로 잘 크고 있는 건지 아니 제가 잘하는 건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연령별로 정보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시기에는 어디가 발달하니까 이런 식으로 놀아줘라. 이런 장난감을 주면 도움이 된다.’ 저는 또 너무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몸으로 노는 방법들 이런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영아3)

“놀이 교육은 그냥 선생님이 강연했다기보다는 거의 EBS 프로그램을 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애들 실험 같은 거해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것은 괜찮았는데, 강연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룹핑해서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놀이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놀이라고 생각지 않고 애들이 노는 걸 다 개입하고 있었다. 실제로 생각하는 놀이랑은 다르다.’는 내용이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유아3)

“육아할 때 정서적인 부분들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였던 거 같아요.” (대도시 임산부1)

2) 자녀 훈육법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자녀 훈육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교육받고자 하는 내용 역시 자녀 연령에 적절한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제행동별, 상황별로 어떻게 훈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떤 말로 설명해주어야 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부와 모 간의 훈육 방식 불일치, 조부모와 부모 간 훈육 방식 불일치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양육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녀 훈육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왜 내 자식은 말을 안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 애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한테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2)

“이 시기에 내 애한테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말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아직 훈육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명해줘야 하나, 애가 납득이 가도록.” (대도시 영아2)

“사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네 살이 되다보니까 고집이 좀 세져가지고 훈육에 대한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하고, 둘째가 생기니까 생기는 과정에서 첫째가 겪을 성장통을 저랑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게 궁금해요.” (대도시 임신부3)

“훈내는 게 쥔 힘들어요. 훈육하는 게 제일 힘들어가지고.” (읍면 영아1)

“애들이 문제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읍면 영아2)

“훈육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읍면 영아3)

“(상황별 문제 행동 동영상이 모아져 있다면) 그럼 나에게 맞는 상황을 찾아서 보죠. 그런 걸 보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그때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원점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자꾸 이성을 조금 잃어가는. 이제 애들에게 육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엄마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한 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아들에게 더 잘 너그러워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읍면 영아2)

“돌이켜보면 애가 어렸을 때는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었냐면, 되는대로 이제 해서 어떻게 잘하다가 한번 화를 못 이기고 버럭 하거나 훈육이 아닌 그런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밤에 후회를 하고 (저에게) 그게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말걸..’ 근데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시기가 한번은 있고 비슷한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들은 다 그럴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는 지지를 받고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 그게 좀 덜 그렇게까지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가 이게 훈육

인지 차별인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에 대한 교육, 지지, 인정 이런 거에 대한 게 좀만 있어도 엄마들이 위로가 되거나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교육에 대한 신경이 쓰이는 나이고, 훈육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신없이 지나 갔고 돌아해보면 애가 잘못하고 애가 떴쓰고 이랬던 건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말걸. 그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걸. 그때 엉덩이 때리지 말걸.’ 이런 생각만 남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엄마들의 서로서로 지지. 전문가에게 ‘그래도 괜찮다.’ 라는 교육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러면 ‘그래도 괜찮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대도시 유아2)

“훈육에 있어서 엄마랑 아빠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의견 충돌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랑도 마찰이 가장 많긴 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훈육 스타일에 있어서 ‘애가 뭘 알아듣는다고 애한테 화를 내니? 저 때는 다 그래.’ 라며 감싸는. 그러니까 엄마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가족들, 만약 인센티브를 줘서 훈육을 한다고 하면 훈육의 메인인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요즘 엄마들의 훈육 스타일과 잘못된 정보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1)

“훈육도 있는데 일단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살고 고모도 같이 사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방향과 좀 이종적으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 아빠가 일단 말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런 생각이지만 엄마, 아빠와는 생각이 달라”라고 설명은 해주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조부모님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싶어요. ‘이게 맞다. 이렇게 하셔야한다.’라는 걸 같이 보면 될 텐데 저희가 하는 말씀을 들려도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3)

3) 자녀 교육 관련 정보

부모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중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경험이 적은 가정일수록 현재의 교육 정도가 아이들 연령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자녀 성교육, 언어 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 관련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정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역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희는 다른 부모님들처럼 초등학생이 있긴 하지만 학습적인 걸 강요하진 않아서 이게 언제까지 쫓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의무교육에서 하는 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교육도 받긴 하니까 학교에서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따로 이걸 안 해도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까 엄마가 개입돼서 봐줘야 되고, 그러니 부담이 있어요.” (대도시 유아3)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되는지를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이가 진짜 한글을 떼야 되는지. 시내 엄마들은 영어도 하고 막 이렇게 어딜 보내고 영어유치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답이 없는데도 좀 불안한 거야. 그니까 보면 시내 애들은 시내 나가려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시내에 있는 엄마들은 이제 따라갈 아이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계속 또 시골에만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음면 유아2)

“요즘 애들이 사춘기도 빨리 오고 그런데 저는 성교육 같은 거 콘텐츠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SBS 스페셜인가 거기서 다양한 엄마, 아빠들을 모아두고 아이들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 나이에 맞춘 성교육 이런 걸 부모들이 직접 해주는 게 나왔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생활 시간에 배우거나 뭔가 교육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런 걸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부 강사를 초빙하던지, 어떤 방식은 상관 없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TV를 보니까 엄마아빠한테 직접 하라고 하니깐 엄청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직접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 배우고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신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가이드가 필요해요.)” (대도시 유아3)

“역시 언어죠. 발음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서. 그니까 나 같은 경우는 부모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와이프하고 단 둘이 있으니까 언어가 잘 안되니까. 그래서 언어치로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음면 다문화2)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그냥 TV 틀어주고 하면 시간은 어떻게 가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같이 책도 보고 싶고 놀이도 하고 싶고.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놀이나 교육적인 면이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을 둘이 많이 보내게 되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좀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져서요.” (대도시 임신부3)

4) 임신 출산 관련 정보

임산부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임신, 출산, 수유, 접종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예: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 출산 준비 과정, 출산 직후 개월수에 맞는 적절한 수유 양과 분유 양, 접종 정보 등 누군가가 미리 알려주지 않는 관련 정보들에 관심이 있었다.

“임신 전에 좀 다양한 정보를 제가 찾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임신 당뇨가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다 생각했는데 낳고 나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걸리지 않았지만 어쨌건 임신 중독증에 대

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좀 더 건강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거에 대해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서.. 되게 정말 우당탕탕 낳고 온 기분이에요. 결국엔 제왕절개 했거든요.. (중략)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내가 잘못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보니까 전에도 그렇고 출산 후에도 그렇고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3)

“모유수유에 대해 좀 자세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실전에서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많은 얘기는 들었지만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조리원에 있을 때 처지기도 하고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금방 의욕이 꺾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되게 고생했거든요. 모유수유 하려고. 그래서 하는 자세 이런 거 알려주는 거는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고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북돋아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얘기는 없는 거 같아서.” (대도시 영아3)

“첫 아기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손이 가잖아요. 근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분유를 몇씩 먹여야 하는지, 심지어 분유를 애기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부터도 직접 맞닥뜨리니까 제대로 꼼꼼하게 배워서 하는 성격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애기 나오고 나면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인터넷으로 대충 보는데 인터넷은 이 말 저말 다르기도 하고 사실 전문가 한 명이 딱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신력이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대도시 영아1)

“전반적인 주수에 따른 변화, 아기를 낳고 나서 초반에 이뤄져야 될 것들, 병원엔 언제 가는지, 주사는 언제 어떤 걸 맞는지 그런 걸 제가 찾아서 하는 것 보다는 시기적으로 체계적인 전달이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있어요.” (대도시 임신부2)

5) 부모됨과 부모 역할

부모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 중 부모됨, 부모 역할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의 주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그림과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자녀 출산 전에 부부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고자 하는 요구 역시 반영되어 있었다.

“육아에 대한 아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건 많이 나와 있으니 그것보다는 부모 역할에 대한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실 저희 부모들도 성교육이 안 된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성은 당연히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역할적인 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좀 더 건강한 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도시 임신부3)

“저는 성 역할에 대한 거를 많이 부모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 평등적인 것, 남편들은 자식을 안 키워보면 또 잘 모르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성 평등 역할이나 성교육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임산부3)

“어느 누구도 자녀를 낳고서 그것을 육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크다. 얘기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크니, 뭐 스스로 크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자라는 건데. 그걸 얘기해주는 선배님들이 없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다 아시는, 얘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는 알아서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미리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조금은 방향을 잡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첫째가 있을 때는 아예 모르겠다가 둘째가 좀 쉬운 건 첫째가 이미 좀 한 게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 누군가 좀 출산하기 전에 이미 계속 훈련이 되었었다더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읍면 영아2)

6) 부모 감정 다스리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양육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어낼 기회가 적다는 것이었다. 양육하고 있는 당시에는 스트레스가 받아서 자녀에게 온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그렇다.’, ‘누구든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 있다.’,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부모의 감정을 다스리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온라인 강의식으로라도 ‘이 시기에는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 있다. 엄마들 그럴 수 있다. 아이는 괜찮다. 잊어버린다.’ ‘엄마들도 너무 그렇게 개이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위로를 받는다고보다 다 그러는구나. 일반적인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공감? 그런데 어디부터는 학대다.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경각심, 전문가로부터의 정보전달이 있으면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 (대도시 유아2, 대도시 영아2)

“아동학대에 관한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아 이걸 교육의 부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동에 대한 이해, 부모의 정신건강을 챙겨주는 것? 그런 것들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는 걸 알고, 아이들의 기질이 남다르거나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모두가 이럴 때 지나간다. 라는 부모의 안심? ‘나의 훈육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자기 각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교육이 되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대도시 유아2)

7)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

자녀 양육 정보와 더불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녀 관련 지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자녀 관련 지원(예: 출산가구 전기세 감면, 열차 할인 등) 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받을 경로가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과 혜택에 대해 정리된 원스톱 서비스 사이트 등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임산부일 때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준다면 애기 태어나고 나서 몇 개월까지 전기세 감면해주고 이런 거 까지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거 코레일 할인 등 이런 거까지도 한 번에 취합해서 나라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는 부딪히면서 “어? 언니 그거 할인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기차를 타고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할인 못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략) 주변에서 하나들 듣는 걸로 정보를 아는 거지,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산발적이어서 한 번에 알려주는 게 가능하다면 그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1)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지역별로 다른 거는 저희가 알아서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일괄적인 혜택은 다 같이 교육을 받을 때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서 알아보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안하고, 한 번에 딱 알려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대도시 영아1)

3. 부모교육 전달 방법에 대한 의견

가. 희망하는 부모교육 방식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신의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원하였다. 교육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였는데, 본 항에서는 부모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상담하는 방식, 둘째 소그룹 교육방식, 셋째 온라인 교육 방식, 넷째 강사 전문성 신장, 콘텐츠 세분화 방식, 다섯째 서면 교육방식, 여섯째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방식, 일곱째 적정 교육 횟수이다.

1)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상담

부모들은 자신의 궁금증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결해줄 전문가와의 만남을 선호하였다. 직접 만남이 아니어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례마다 적절한 양육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보건소, 병원 또는 전문상담 기관을 통해 궁금증을 직접 질문하고 답을 얻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Q&A 좋아요. 우리 애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주변을 둘러보면 그 연령대 애들이 다 그런 시기의 격동기들을 겪고 있는 게 보여요. 결국엔 ‘이 연령대엔 다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보통은 내가 ‘왜 우리 애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선적으로 ‘찾아서 물어볼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Q&A 라든지 1:1답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급한 마음에 어쨌든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대도시 영아2)

“예를 들어 온라인 백과사전 같은 게 있다면 찾아보면 좋는데 사실 변수가 많으니까, (중략) 인터넷으로 찾아서 이거를 약간 우리 아이한테도 대입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뭔가 찾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전문가가 바로 실시간은 못하더라도 답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엄마들이 핸드폰은 쓸 수 있잖아요. 틈틈이 그럴 때 도움을 준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대도시 영아1)

“사실 접근성이 높은 거는 영상일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근데 또 막상 들으려면 직접 가서 질의응답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을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대도시 임산부1)

“들을 때야 알지. 하지만 막상 또 애하고 접하다 보면 못하고 화나고. 이렇게 보는 상으로는 안 되고 직접 가서 한 아이, 내 아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켜보고 나의 잘못을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아가 뭐가 잘못을 했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케어해 주지 않는 이상은 동영상으로 절대 안 되는 거 같아요.” (읍면 영아2)

“유료 영유아 검진하는데 같은 경우는 애가 따로 무슨 카드나 이런 것을 해서 인지발달이나 이런 것도 하고 놀이를 통해 부모랑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하시고 아이가 지금 어떤 수준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주시면, 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읍면 영아2)

“황금변을 잘 보다가 갑자기 녹색이 나온다. 그럼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인지 이런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으면 질문을 모아놨다가 병원에 예방접종 맞으러 갈 때 모아서 물어보고 이런 정도지 물어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예를 들어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가 예를 들면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겠는데. (중략) 병원에 꼭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예를 들어 보건소에 가서 물어 볼 수 있다던가, 전화해서 물어 볼 수 있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도시 영아1)

“사실 일방적인 정보를 먼저 받는다는 건 좋은 거 같고, 그래야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면 어디다 해소를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그걸 신청을 했었어요.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한분이 처음에는 집에 방문을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 부분으로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될 때 있으면 문자를 남기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주말은 빠고 하루 안에는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어있나 봐요. 그래서 일반 변호인데 핸드폰으로도 문자를 볼 수 있어서 바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좀 제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인 느낌?” (대도시 영아3)

긴급히 양육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과 연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양육에 대한 고민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원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장애아의 할머니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자신의 손주를 어떻게 다루어주어야 하는지에 관해 맞춤 상담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유하였다.

“저는 그런 교육보다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찾아갈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바로 바로 부담 안 가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읍면 유아1)

“저는 전화상담도 싫어요. 그거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거 기다리면 짜증나니까, 어디 센터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상담을 주로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상담원이 있으면 시간 날 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친구, 언니처럼 그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 유아1)

“아이가 장애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많이 캐치는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냥 키우는 거지. 우리 때 하고 또 다르니까. 그런 거 이제 상담하면 좋겠지요.” (읍면 유아3)

2) 소규모 교육 방식 선호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대규모 일방적 강의보다는 양방향적 토론이 가능한 소집단의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자녀 연령이 비슷한 부모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소규모로 교육할 때 궁금한 것을 물어볼 기회가 개인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리원 동기들이 함께 모여 소집단 강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면, 아이들이 부모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공유되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소규모로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 부모가 모여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개인적인 Q&A를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도시 임산부3)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좀 마음이 참 좋네요. 누군가가 있고 저도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아마 소통이 돼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읍면 영아2)

“너무 큰 강단에서 강의 듣는 거 보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같은 또래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거 다 나눠서 수렴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읍면 영아3)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 처음 한 거예요. 저도 모임 처음 온 거라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읍면 영아1)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10명 안팎으로 모이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니까. 사람이 많으면 괜히 거부감도 생기고. 모이면 서로가 의견 얘기하고 다과도 하면서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소규모로 이렇게 모임 가지면서 이제 서로 불편한 점 좋은 점 그런 걸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내면서 아니까 좋다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읍면 다문화1)

“(소규모 부모교육은) 좀 더 집중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규모 부모교육은) 다양한 아가들 사례도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대도시 임산부1)

“너무 대형보다는 좀 반소규모랄까요? 강의 규모보다는 빈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파서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산모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 못 가면 내일 갈 수 있는 정도의,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규모는 너무 크면 아무래도 궁금한 상황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규모는 너무 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임산부2)

“일단은 대형 강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게 더 좋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가 좀 더 나을 거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조리원 동기를 커뮤니티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나서 전문가 한 분이 계시고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이분한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고 그분 시간이 월요일 몇 시에 난다 그러면 친한 엄마들끼리 우리 그 시간에 신청을 해볼까? 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도 좋

지 않을까. 왜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편하고 효과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대도시 영아1)

“소규모 한다면 저는 아이들랑 같이 참여를 하거나.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만약 놀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직접 뭔가 아이랑 같이 해보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워낙 없으니까” (대도시 유아3)

3) 온라인 교육

미디어를 이용하여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부모들은 온라인 부모교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읍면 지역 부모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 긍정적 입장

온라인 교육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부모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이 어린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편리하다고 보고 하였다. 원하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빠르게 검색하여서 영상을 보는 것 등을 선호하였으며, SNS,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모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핸드폰이 낫겠쥬. 쉽게. 책은 일부러 배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검색할 수 있는 거고.” (읍면 다문화2)

“데리고 나가는 거에 아이가 컸을 때, 지금 아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나이 일 경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젓먹이고 봐줘야 되다 보면. 그러면 주변에 봐주실 분이 있어야 그게 또 가능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도시 임신부3)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고, 누구 애는 맡기고. 번거롭게 누가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다면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는 강의 형식으로.” (대도시 유아1)

“요즘 많이 YouTube 하니까 YouTube강의로 짧게, 짧게 제공을 해준다거나 연령별로 찾아볼 수 있게 엄마들이 급할 때” (대도시 유아2)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을 때, 긴 것 보다는 10분 이내? 짧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대도시 영아2)

“EBS는 뭔가 신빙성이 있어요. 거기서도 아침 같은데 보면 부모교육 많이 하는 것 같아가 지고, 챙겨보지는 않고 채널 돌리다 보면 가끔 보고 그래요.” (대도시 유아3)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라서 제가 책을 선호하는 편인데, 온라인이 더 보기 편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약간 애기 키우면서 뭐가 편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떨 땐 책 으로 찾아보고 어떨 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두 개(온라인, 책) 다 있으면 오히 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대도시 임신부1)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Instagram, Facebook, YouTube,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 개설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라면 있는 거를 활 용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 유아2)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짧게 카드 뉴스로 제공하는 거요.” (대도시 영아2)

“영유아 검진할 때 건강인 사이트 들어가니까 거기서 연계를 해서 보여주던지.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요? 영유아 검진 결과를 앱으로 확인 하라'하면 접속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안 에서 다 볼 수 있죠.” (대도시 유아2) “내 애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건 앱으로 보면 좋고. 건 강인도 요즘엔 앱으로도 가능하니까.” (대도시 영아2)

부모교육 관련 콘텐츠가 정리되어 있는 공식적인 웹사이트(윈스톱 서비스)등이 존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전문가들의 교육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필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를 돌보는 다양한 양육자가 일관되고 신뢰성 이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엄마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함께 구축되면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콘텐츠 같은 게 어디 (온라인에) 올라와 있으면 엄마들은 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YouTube에서 찾거나 중구난방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뭔가 한곳에 모여져 있고 나뉘어서 콘텐츠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서 보 긴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학교 알림이 거기에서 따로 올라와서 제가 많이 확인하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잘 확인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건 시에서 하는 것도 안내해주고 국가에서 하 는 것도 다양하게 안내해주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는 그냥 그런 걸 가정학습지 같은 안내문으로 와서 딱히 안 보고 버렸던 것 같아요. 유인물이 너무 많아서 별로 신경 쓰 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연계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초등 알리미가 있는데, 그 앱에서(아이엠스쿨) 저희는 다 알려주더라고요.” (대도시 유아3)

“책을 구입하거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 가면 연령대별로 뭘 해야 될 수 있는 기준이 딱 명시가 돼서 그냥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고 한군데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토털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어디서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책을 산다 해도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 거고 그리고 요즘 TV에서 오은영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비슷한 것들도 함께 다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던 공익적인 부분으로 가든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대도시 임산부2)

“엄마 아빠의 교육이 애를 맡겼을 때 그 분한테도 거기서(정보가 모아져 있는 정부의 부모교육 관련 웹사이트) 그 정보를 받으세요. 했을 경우에는 하나가 된 기준을 가지고 애를 양육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옆에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의견이 각기 많으니까 물론 어른들이야 키워온 방식도 다르긴 하니까 시대별로 좀 달라진 흐름 그런 것들 조금 이제 한 곳에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도시 임산부2)

“전 (한곳에 정보가 정리되어있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정보가 지금 요 안에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고 되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딱 사이트를 해주면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르면 왜 애들이 왜 이런 거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선배님들이 막 댓글을 달긴 하는데 그게 이제 옳은 것들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동영상이든 글이든 시간이 날 때 좀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정보가 될 거 같아요.” (읍면 영아2)

“대부분 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모바일 찍고 들어가고 QR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어딜 가도 엄마는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 없이는 어디 안가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쉽게 그렇게.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해도 나와서 해야 마음의 평안이 있지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뭐든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거 같아요.” (읍면 영아2)

“엄마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커뮤니티 같은 게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워낙 지역 맘카페가 많아서 거기서 들어오는 얻는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맘카페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맘카페에 고민을 올리면 엄마들이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요즘 워낙 많으니까.” (대도시 영아2)

나) 부정적 입장

일부 읍면 거주 부모들은 온라인 교육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온라인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 온라인상 소통하는 것이

편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온라인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이유로 파악되었다.

“온라인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골 그런 것도 있고. 그 큰 강좌에 시간 맞춰서 딱 거기 그 사람은 그 사람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시간을 맞춰서 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럴 거면 두 번째가 제일 낫죠.” (음면 유아1)

“(온라인으로 정보를 받으면) 안 볼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문자 왔네. 그러고서 그냥...(안 봐요.)” (음면 영아1)

“(온라인으로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음면 영아2)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내가 시간이 날 때 하겠지 짬짬이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애기가 있으니까 아무리 같이 화상으로 한다 해도 내 일도 해야되지” (음면 영아3)

“저는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익숙하지도 않고 낯설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소통) 안하게 되더라고요. 몇 번씩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좀 친해지는 거 같은데.” (음면 영아1)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온라인보다는 대면이 좀 더 좋게 느껴진다고 할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스킵하거나 다른 걸 하게 되지 않을까. 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대도시 임신부2)

4) 강사의 전문성, 콘텐츠 세분화

희망하는 교육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사의 전문성과 인지도에 대한 의견, 콘텐츠의 세분화를 통한 체계 마련 등에 대한 생각도 공유되었다. 방송에 출현하여 부모들에게 익숙한 강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이끌어간다면 부모들이 믿고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 역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사에 따라 달려있는 거 같은데 오은영 박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 온라인 강의를 한다면 솔직히 누가 안 들겠어요. 듣죠. 그거는.” (대도시 유아2)

“(강사의) 전문성과 인지도도 한 몫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건 제가 궁금하거나 그런 건 찾아보고 있으니까. 콘텐츠는 내용이 충실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도시 영아2)

“콘텐츠 자체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야. 나한테 맞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 맞는 정보를 찾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업그레

이되던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콘텐츠 자체를 좀 세분화해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유아1)

5) 서면 교육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거나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이 익숙한 부모들을 위해 서면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두꺼운 책의 형태가 아닌 필요한 정보만 모아놓은 안내서 형태로 지급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출산병원에서 상주를 하는 (교육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병원 있는 동안은 그나마 좀 보장이 되잖아요. 누군가 애를 봐줄 수 있다가 집에 오면 보통 혼자서 애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애를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어려우니 출산병원이나 조리원 같은데서 교육을 빙자한 책자 전달이라던가.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대도시 임신부2)

“글쎄 뭐 교육 하는 거 보다 이 뭐 책자 같은 거. 그게 나올 거 같은 게 교육 들으면 일부는 좋겠지만 거의 뭐 책자보고 이렇게 보는 게.” (읍면 다문화1)

“영유아 검진 같은 걸 할 때 의사들이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영유아 검진은 누구나 다 하니까 결국은 그 정보를 엄마들이 모두가 다 들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방식을 택해서 브로슈어를 짧게 만들어서 ‘여길 들어가면 지금 이 연령대에 볼 수 있는 아이들의 훈육하고 양육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던지.” (대도시 유아2)

“일반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는 간략하게 브로슈어로 제공을 하고” (대도시 영아2)

6) 부모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의

부모교육의 대상은 어머니와 아버지 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모교육이 어머니 중심이었던 점을 이야기하였으며, 일부 면담대상자들은 대면 부모면담에 아버지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온라인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저는 모든 걸 남편들이 같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처럼 육아 휴직을 한 상태고 남편은 일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소규모든 강의든 이런 건 남편이 못가더라도 저 혼자라도 들 수 있으면 좋은데, 낳기 전에는 같이 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1)

“엄마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빠들은 엄마가 알려주지 않으면 또 안보는 경우가

많아서 아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뭔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버들은 실제로 (직장 때문에 부모교육을) 참여하긴 어려우니까 영상으로라도 제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만을 위한 영상.” (대도시 임신부3)

7) 적정 횟수

부모교육의 적정 기간과 교육 횟수를 질문한 결과, 부모들 간의 의견이 상이한 편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 정도 연령에 맞는 정보를 얻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한 달에 한번 정도를 선호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가) 일 년에 한번

“(부모) 교육은 상시 열려 있어야 하는 거고 받아야 된다면 1년에 한번, 굳이 크게 달라진 않을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1년에 한번 가서 가볍게 들고 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선에서.” (대도시 임신부2)

“부모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연령별로 필요한 정보들이 다르니까 1년 주기로 0개월~12개월 사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1회, 12개월~24개월 사이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는 식으로 꾸준히 애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일회성으로 해버리면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대도시 영아2)

나) 분기에 한번

“분기에 한번 또는 일 년에 두번 정도 (부모교육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 임신했을 때부터 (교육이 제공되면 좋겠어요). 그때는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그때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도시 임신부3)

“분기별로 (소모임을 통해 교육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읍면 다문화2)

다) 한 달에 한번

“횟수는 한 달에 한번정도? 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조리원동기 들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아이들 양육이나 발육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시기가 비슷해요. 병원에 한 달에 30일마다 간다하면 그 시간 피해서 보름 이따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러면 15일 동안 했던 질문을 거의 다 여쭙보고 나머지 15일은 병원 가서 여쭙보고 그럴 거 같아요.” (대도시 영아1)

나.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을 살펴해보았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 일부 부모들은 수당을 위해 의무로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부담스럽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은 아래와 같다.

1) 긍정적 반응

부모교육을 받는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 짧은 길이로 제시되는 교육 영상은 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매달 교육은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며 일 년에 한번 교육이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였고 휴대폰 알람으로 전송하여 보는 짧은 부모교육 영상은 아동수당과 연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건(부모교육) 자연스럽게 다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읍면 유아3)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 신청할 때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엄마. 등록하면 그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거 같으시고,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요즘은 그게 더 빠르잖아요. 우리 큰애도 초등학교인데 다 그걸로. 이거 뭐 보세요. 설문지도 그걸로 다가 그냥 클릭해서. 한번 알림이 딱 와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영상 한번 신청해 주세요. 여기서 봐주세요. 마치 설문한 것처럼 보면 영상 완료.” (읍면 유아1)

“짧은 거면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유튜브 보거나 이런 시간 할애해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안하는 것 보다 나올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3)

“처음에 신청할 때라도 그걸 뭔가 짧게라도 교육을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정도면 의무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매달 받기 위해 교육을 받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때 한번 받고 신청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은 출생 신고할 때쯤이면 산모는 좀 몸이 불편한 상태잖아요. 조리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거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종이 안내문은 좀 많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한번 보고 말게 되는 거 같아요. 따로 영상을 주시던지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대도시 영아3)

“(아동수당 신청을 부모교육 신청을 위해 연단위로 신청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럼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부모 입장이 되어서 그걸 네가 인식을 해라 이런 식

으로.” (읍면 유아2, 3)

“지방 자체적인 그런 걸로 내려와서 하나의 명확한 틀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 내지는 지역에서 한 번 정도 실행하는 건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곧 금요일 날 수술이고, 그 전에는 주수별로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했다면, 지금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 집중하는 것들 그런 전반적인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게 궁금한데, 그것도 사실 어디 가서 뭘 봐야 되는 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런 교육을 가서 정해진 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책자라던가 그런 걸 하나씩 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도시 임산부2)

2) 부정적 반응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이 연계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아동수당을 조건 없이 지급하다가 부모교육 수강이 조건으로 들어갈 때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의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부모교육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공유되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안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도시 임산부3)

“아동수당을 이걸(부모교육) 들어야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2)

“불편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부모교육) 안 받으면 돈 안줘요.’라는 식으로 조건적으로 하면은 부담스러울 거 같아요. 왜냐면 아기들 보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만약에 돈을 받기위한 전제 조건이 되면 부담이 있을 거 같아요. 상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제공을 해주되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아동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대도시 영아1)

“기존까지는 조건부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하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대도시 유아3)

“수당을 받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하면 부모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아요. 별개면 별개지 그걸 같이 연결하면 받는 사람도 좀 그럴 거 같아요. 이걸 많이 주면 열심히 하겠는데 이걸 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데.” (읍면 영아2)

“시간 낭비인 교육도 있어요. 솔직히 나한테 필요 없는 거. 그거를 억지로 받으라고 하고 이걸 준다는 거는 좀 그래요. 나한테는 진짜 실질적인 교육이 딱 되면 듣지 말래도 듣는데 이거를 수당을 떠나서 듣는 데 그걸 목적으로 해서 들으면 준다 이걸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읍면 다문화2)

“상담은 좋은데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봐서 체크하고서 의사 선생님에게 주면 그냥 아 잘 크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부모교육은 좋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형식적으로) 될 거 같아요.” (음면 영아2)

다. 부모교육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의견

국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참여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묻은 결과, 일부 부모는 인센티브 제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인센티브 자체가 부모교육을 듣게 하는 큰 동기부여를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긍정적 반응

국가 주관의 부모교육에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부모들은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많이 제안된 의견은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는데, 장난감을 지원해 주거나 부모교육을 수강하여서 쿠폰을 모으면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우선은 자본적인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아기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라도 물질적인 거라도. 굳이 돈으로 주는 건 좀 그러니까, 아이 장난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애기 때문이라면 뭔가를 해주고 싶긴 하니까.” (대도시 영아3)

“아이들 스탬프, 아이들 잘했다 그러면 포도알 이렇게 하잖아요. 다섯 번 하면 뭐 주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엄마들도 어차피 나중에 가면 엄마가 오늘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오늘 우리 누구랑 뭐 어디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면 유아2)

“(부모교육 받으면 쿠폰을 제공해주는 아이디어에 대해) 쿠폰이 있으면 이걸로 쿠폰을 모아서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괜찮은 거 같은데.” (음면 유아1)

“저는 그런 쿠폰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가서 이제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뭐 배우는 거보다도. 슬라이드 그림도 그리고 놀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거, 그 장난감 인형 극장 애니메이션. 그런데 가는 거” (음면 유아2)

그 외에 부모교육 수강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아이디어로 전문가와 1:1 상담 우대권을 주는 방안, 세금 혜택, 주차 할인, 어린이집 입소순위 우대 점수 부여,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모 대상 특별 휴가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온라인으로 전문가하고 양방적인 소통 같은 거 해주신다고 하면 프리패스(내 것 먼저 해주는) 같은 것? 왜냐면 그분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아실 거잖아요. 교육을 제공하시는 분이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분이 동일인이라 하면 우리 아이에 대해 더 잘 아니까 프리패스 아니어도 그런 거 자체만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봤을 때 우리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잘 설명해주시고 알지 않을까요?” (대도시 영아1)

“세금 혜택, 주차 할인 같은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교육 들으면 어린이집 입소순번 당겨주기하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휴가 쓰고라도 (부모교육 참여)할 것 같아요. (부모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듣는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하면 분명 맘가 쎄어도 올라갈 거고 (인센티브가 확실하다면)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3)

“직장인이려면 (부모교육을 받기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이 아니라면 수당으로 주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의 참여를 제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은) 시간에 비례해서 하거나 아니면 횟수에 비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뭔가를 줘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특히나 어떤 기관에 속하지 않아있기 때문에 더 뭔가 수당 같은 걸 주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대도시 임산부3)

2) 부정적 반응

국가 주최 부모교육을 수강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반응들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부모교육에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내용을 제공한다면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부모교육을 들으려고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 부모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센티브 때문에 억지로 교육을 수강한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부모교육을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부모교육 내용이) 도움이 진짜 되면 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 오은영 선생님이 유명하니 까 그게 입소문도 나고 다들 ‘그거 진짜 도움이 되더라.’하면 시키지 않아도 들을 거 같고요. 좀 저희 교사 연수처럼 정말 도움이 안 되는데 들어야만 하는 거면 오히려 어떤 혜택을 줘도 안 듣게 될 거 같아요. 이미 육아로 지쳐서 더 안 듣게 되지 않을까요?” (대도시 임산부1)

“결국은 필요한 사람은 찾아서 보게 되어있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보게 해도 결국은 와 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가 잘 구축이 되면 될수록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결국은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인센티브나 뭘 주지 않아도 저절로 동기부여가 돼서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모두 인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맘카페 이런데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엄마들이 정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광고나 지역색도 강하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순수하게 훈육, 교육, 정보, 고민 상담을 목적으로 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딱 개설이 된다면 그건 인센티브나 뭐나 필요 없이 엄마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할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2)

“양질의 콘텐츠를 구축해 놓고, 그걸 홍보하는 걸 더 먼저 염두를 해서 어쨌든 많이 유입되게 만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2)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굳이 그걸(인센티브) 안 주셔도 부모는 갈 거 같은데. 그런데 직장을 다니거나 또 농촌 같은 경우는 시내 한번 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자차가 있으면 그래도 뭐 상관이 없는데 버스를 타고 간다면 1시간 2시간 걸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약간 그런. 그런 부분이 어디든지 가서 가까운 곳에서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가서 교육을 좀 할 거 같아요. 답답하시니까.” (읍면 영아2)

또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센티브를 너무 부각하다 보면, 제도의 유지나 개선에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부모교육 수강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부모에게 불필요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을 듣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 인센티브를 위해 성실하지 않게 교육을 수강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인센티브라는 것 자체가 그 제도에 어떤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끊기거나 바뀌는 시점에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불리 제도 초기 만드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언급하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까.” (대도시 유아1)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뭘 나중에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뭘 증빙서류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또 혜택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귀찮아서. 집에서 뭘 하려고 해도 프린트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안하면 또 소멸되는 거잖아요.” (읍면 영아1)

“그걸 부모가 들어가 돈을 더 주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인이자면 힘들 수도 있고, 약용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틀어놓고 뭘 한단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분명 클린하지 못한 몇 명의 소수들이 더 이득을 더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도시 임산부2)

4. 소결

본 장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영유아 부모의 부모교육 경험과 요구, 희망하는 부모교육 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조리원, 병원, 종교단체, 자녀 재원 기관, 지자체를 통한 일회성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유로 교육 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부모교육의 기회가 다수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환경(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강 기회 감소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 제약,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이 논의되었다.

부모교육 경험이 많지 않은 면담참여자들은 그동안 양육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였고, 주변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책을 읽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면담참여자들이 부모교육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연령별 자녀 발달 및 양육 방법, 자녀 훈육법, 자녀 교육법, 임신, 출산 관련 지식, 부모됨과 부모 역할, 부모 감정 다스리기 등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길 희망하였다.

희망하는 부모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었는데, 나의 아이와 양육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규모면에서는 소집단 교육을 선호하였는데,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함께 라포를 형성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소규모 교육방식의 장점이라 생각하였다.

온라인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읍면지역의 부모들은 온라인 교육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열람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산발적으로 있는 양육 정보를 한데 모아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통합 웹사이트)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기타 논의된 부모교육 방식으로는 브로슈어, 책자를 통한 서면교육이 있었다. 부모교육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강사의 전문성, 인지도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콘텐츠 내용이 연령 주제에 맞게 세분화되어 제공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적절한 부모교육의 횟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었는데, 크게 일 년에 한번, 분기별 한번, 한 달에 한번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좁혀졌다.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부모들은 긍정적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모들은 짧은 영상을 일 년에 한번 정도 자녀 연령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수강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와 마찬가지로 찬반이 갈리는 경향이 있었다. 인센티브가 부모교육을 수강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고, 인센티브 보다는 양질의 부모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자녀를 위해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을 들으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예: 장난감 제공, 쿠폰 적립하여 놀이, 문화시설 이용 시 이용)를 제안하였고, 그 외에도 전문가와 1:1로 상담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세금 혜택, 주차비 할인 혜택, 어린이집 입소 순위 우대 점수 부여, 맞벌이 부모 대상 부모교육 참여를 위한 특별 휴가 지원 등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V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 01 기본 방향
- 02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및 활성화 방안
- 03 포탈 구축 시 정부 주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적용 예시(안)

V.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1. 기본 방향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검토, 국외 사례조사, 부모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 부처별 산하기관 부모교육 사업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에서 이상의 두 가지 방향에 관하여 상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포탈 구축 시 정부 주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적용 예시(안)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제도 마련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하여 최소 연 1회 정도의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과정(전 연령 부모 대상 공통)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부모로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내용과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본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면 좋을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로 심화 과정(가족 유형별/아동특성별 구성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신청은 최초 한 번만 하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되,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예비 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 이전에 수강했던 부모교육이 아동수당 신청 시 자동으로 부모교육 이수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이 지연 지급되는 방식으로 연계한다. 부모교육 수강이 늦어진 경우에는 지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은 바로 되지 않더라도 부모교육 수강 시점부터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을 소급 지원해 주도록 한다. 부모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모에게 별도의 안내 문자나 전화 연락

등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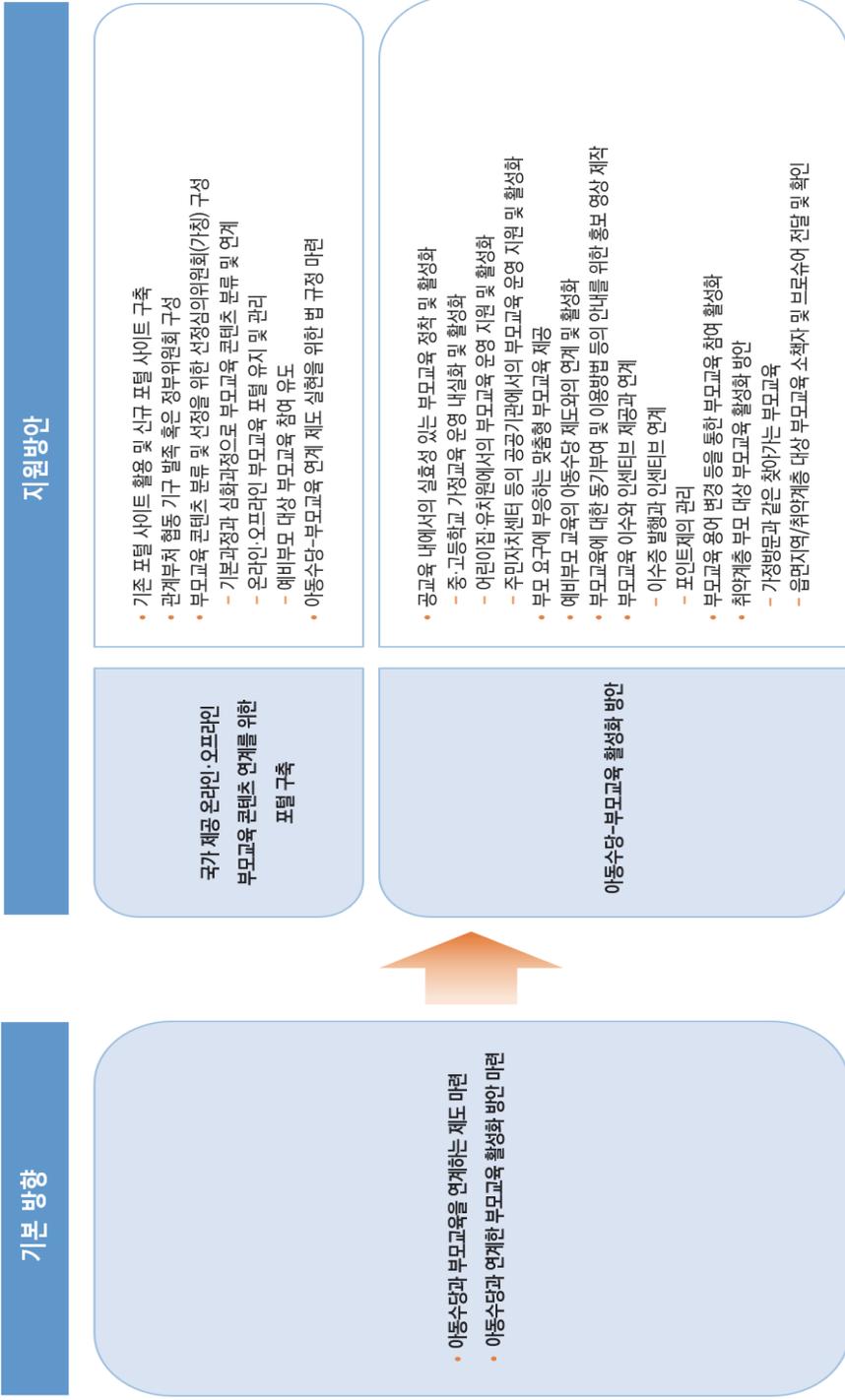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구축된 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제작된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 부모교육 내용 및 일정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과정 프로그램을 선정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부모교육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선정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기본과정 이외 심화과정 프로그램도 선정하고 분류하도록 한다. 오프라인 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전달 등을 위해서도 부모교육 강사풀 구성 및 강사 교육 등의 관리를 포털을 통해서 시행한다. 부모교육 강사 풀 소개, 교육 내용 및 일정 등을 부처 및 산하기관 별로 탑재하도록 하여 부모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부 주관 포털운영 등을 위한 부처별 합의를 위한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연계하도록 한다. 넷째, 아동수당 신청 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것과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내용에 관한 법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나.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먼저, 아동수당 연계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이용방법 등의 안내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참여가 어려운 예비부모와 취약계층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부모와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발급과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이수증 발급 이후에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수강할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구간별 포인트 점수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음에서 이상의 두 가지 방향에 입각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 <그림 V-1-1>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V-1-1] 이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원방안



2.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및 활성화 방안

국가적 수준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다음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국가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 콘텐츠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교육 내에서의 부모교육 활성화, 부모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접근방법 등의 안내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 읍면지역과 취약계층과 같이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에 대한 안내 등을 담은 소책자 및 브로슈어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시행, 부모교육 이수와 인센티브 제공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가. 국가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 콘텐츠 연계를 위한 포털 구축

현재 아동수당 신청을 한번 하면 지속해서 유지되는 방식에서 아동수당 신청은 매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아동수당 신청 전이나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이수와 아동수당 지급을 연계하도록 한다. 아동수당 신청 후 부모교육을 매년 이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수증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신청은 최초 1회로 하되 아동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부모교육은 1회로 한정하되, 부모교육을 매년 이수하면 이와 연계된 인센티브 지급과 자동 연계되도록 한다. 부모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모에게 별도의 안내 문자를 1주에 1회 정도 일정 기간에 걸쳐 보내고, 문자 발송 후 해당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을 때는 전화 연락 등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아동수당 신청 전이나 신청 시 온라인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제도는 영아수당이 지급되는 2022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 외 양육수

당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에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을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부모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 선정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투자한다. 아동수당 신청 이전 결혼 후부터 임신까지의 예비부모 대상의 부모교육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이수와 같은 보편적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때 아동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존중 등을 포함한 부모됨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국가적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에서 아동수당 신청 전이나 신청 시에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의 연계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기존 포털 사이트 활용 및 신규 포털 사이트 구축

어린이집 입소 등을 위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많이 접속하는 임신육아포털사이트를 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복지로와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기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교육부에서 새롭게 개정된 누리과정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새로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 등을 탑재하고 있는 아이누리포털 사이트 등과 같이 국가수준의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할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분류 및 탑재 방식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조사했던 미국, 영국, 뉴질랜드와 홍콩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부처 협동 기구 발족 혹은 정부위원회 구성

먼저, 온라인 부모교육 시행을 위해서 해당 포털사이트가 정해지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온라인 부모교육 콘텐츠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연계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한다.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각 부처별 부모교육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처 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에 협조 요청을 위한 회의 및 공문 등의 발송을 통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부모교육 연계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오프라인 부모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 강사 풀, 부모교육 양성 및 보수교육 시행 및 관리, 강의 전달 방식 등을 부처별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서 합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 등을 구축된 포털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들이 오프라인 부모교육 내용 및 일정, 강사,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시행한다.

3) 부모교육 콘텐츠 분류 및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가칭) 구성

포털사이트에 탑재할 기본으로 아동수당 대상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매년 이수해야 할 기본적인 교육으로 이수할 교육내용 선정 및 가족 특성 및 아동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기를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심화교육 내용 선정 및 분류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인 보육, 유아교육, 상담, 복지 등에서 부모교육 학계 전문가 5~6명 및 현장 전문가 5~6명, 관련 공무원, 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부모교육 콘텐츠 중에서 연령에 따른 기본과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심화교육 프로그램 선정 등을 수행하고, 관련 내용 등을 분류한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부모교육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선정 및 분류 외에도 부모교육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절차 등도 협의하고 마련한다. 선정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매년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고, 선정 기능 외의 역할을 수행할 시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달리해서 회의를 모집하고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부모교육 콘텐츠 분류 및 연계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면 해당 포털 사이트에 아동연령별로 기본과정(아동학대예방, 연령별 아동발달, 임신·출산 준비 등)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부처별 또는 부처 산하기관의 부모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선정(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기본과정은 15분 미만 분량으로 2과목 정도로 선정해서 이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과정은 모든 부모들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연령에 따른 신체발달, 언어발달 등과

같은 발달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본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본과정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미혼모, 장애부모, 조부모, 입양부모, 위탁부모, 저소득 가정 부모, 다문화 가정 부모 등과 같은 가족유형별, 또한 아동의 기질 특성과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심화과정 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심화과정 역시 분류 유형에 따라 15분 미만 분량으로 2과목 정도를 선정해서 부모들이 2개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심화과정은 부모교육 기본과정을 이수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 포털 유지 및 관리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 포털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외에 관련 공무원, 포털 운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부모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당 포털에서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부모교육 제공 내용과 방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예비부모 대상 부모교육 참여 유도

자녀를 임신한 예비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에 국가에서 제공되는 양육지원 정책이나 제도 등을 소개하는 브로슈어 등을 배치하고, 브로슈어에 부모교육 사이트에 대한 소개, 부모교육 이수 시 아동수당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편의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치해서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다. 예비부모 대상 기본과정 부모교육 내용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2과목 정도 선정하고 분류하여 예비부모가 수강하기를 원할 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제도 실현을 위한 법 규정 마련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보편적 부모교육을 통한 아동권

보장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아동수당법에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제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아동수당-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아동수당 제도와 연계한 보편적 부모교육 활성화의 목적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꼭 해주어야 하거나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공유하고 주지함으로써 아동 학대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과 연계한 보편적 부모교육 방식으로 부모교육이 제도화될 때,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이 가능한 부모와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모가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제도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을 통한 보다 촘촘한 맞춤형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이 실효성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들이 선호하는 부모교육 내용, 방식, 시간 등을 고려하며, 맞춤형 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제공이나 자녀 동행 부모교육 방안과 같은 부모의 기호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예비부모 교육을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을 부모들이 많이 이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목적 및 부모교육 사이트 등의 안내를 위한 5분 이내의 짧고 임팩트 있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한다. 여섯째,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닌 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라는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닌 부모참여 등의 용어 전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일곱째,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이 연계되어 보편적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때 취약계층 가정 부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 가계 부양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부모,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부모, 혼자서 일과 양육을 모두 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 부모교육에 대한 기회 및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의 부모 중에서는 제도화된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낮은 경험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가정 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즉, 취약계층 가정의 부모의 경우에는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 가정 방문을 통한 부모교육 정보와 접근방법에 대한 안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때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1) 공교육 내에서의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정착 및 활성화

먼저, 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교육 내에서 부모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의 보편적인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공기관을 통한 부모교육 운영 지원 등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활용한 부모교육 제공 방안과 읍·면 지역 부모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운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자녀 연령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오프라인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에서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중·고등학교 가정교육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현재 한국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가정과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가정과목이 선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시기가 예비부모 교육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한 나이임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가정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가정과목에 포함된 부모교육 내용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교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비부모가 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나)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 운영 지원 및 활성화

본 연구 결과, 영유아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교육 장소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도 많이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을 다니고 있을 때는 기관에서 자녀와 함께 참가하는 부모교육 방식 제공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의 부모교육 운영 지원 및 활성화

본 연구 결과, 읍·면 지역의 부모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주민센터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 부모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근접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통하여 부모교육이 제공될 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대부분 연령별에 따른 신체발달, 언어발달 등과 같은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받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던 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연령에 따른 발달 특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 많은 부모가 소그룹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녀 연령과 지역과 상관없이 소그룹(5~10인 미만)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오프라인 부모교육이 진행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1~2시간 미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 번에 긴 시간 교육을 시행하는 것보다 1회에 1~2시간 정도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모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 많은 횟수의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한 부모도 아주 적은 비중은 아니었다.

한편,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 예비부모나 신생아 자녀를 둔 부모, 농번기로 바쁜 읍면지역의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져 부모교육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을 데리고 와서 부모교육 장소에서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이와 함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농번기를 피한 부모교육 일정 잡기 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부모교육을 근무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문화의 개선 등이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이수한 오프라인 부모교육을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수강한 부모교육으로 인정해주고, 이에 대한 이수증 발행 및 인센티브(예: 장난감 대여 등)와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3) 예비부모 교육의 아동수당 제도와의 연계 및 활성화

본 연구에서 검토했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교육 이수 시기는 ‘예비부모기’가 적절하다고 하였고(배옥현, 2018; 이윤진 외, 2017, 임현정 외, 2017), 반면 임신·출산 준비와 같은 부모교육 내용이 가장 부족하다고 밝혔다(임현정 외, 2017).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임신 중인 예비부모의 부모교육이 참여율이 매우 낮았고,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도 다른 연령의 자녀 부모들에 비해 부모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예비부모와 신생아 자녀가 있는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확대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 보건소, 산후조리원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예비부모의 경우에는 가장 부모교육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신 및 출산, 신생아의 발달 특성 이해나 돌봄과 관련된 예비부모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를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이를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던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 예비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예비부모에게 필요한 오프라인 교육을 이들이 주로 다니는 산후조리원, 산

부인과, 보건소를 활용하여 소그룹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부모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점도 고려하여 부모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부모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이용방법 등의 안내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

5~15분 정도의 부모교육에 관한 홍보 및 부모교육 사이트 이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임팩트 있는 부모교육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방송 및 종편 방송을 통한 공익광고, 주민센터 등을 통한 홍보용 소책자 및 브로슈어 배치를 통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한다.

5) 부모교육 이수와 인센티브 제공과 연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부모교육을 이수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부모교육 이수증 발행과 인센티브를 연계해서 제공한다. 이수증 발행은 구축된 포털 사이트에서 발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전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조부모)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담당 공무원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시에 출산용품, 장난감 제공 및 문화시설 이용 쿠폰 등의 제공과 연계하여 부모에게 제공한다. 둘째, 이수증 발급 후에 지속해서 부모교육을 수강할 시 쿠폰제를 시행하여 쿠폰 점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수증 발급은 온라인 부모교육을 수강하였을 때는 즉시 이수하였음에 체크 표시된 형태와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인증이 되도록 하고, QR 코드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이수증 발행과 인센티브 연계

15분 미만의 부모교육 기본과정 동영상 교육 이수 시 이를 1시간 부모교육 이수로 인정해주고 3회(3시간) 수강 시 부모교육 이수증을 발행한다. 이수증은 연 1회로 3회 수강하든지 매년 1회로 3년에 걸쳐 수강하는 방식으로 기본과정 이수 후에

발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1~2시간 미만의 오프라인 부모교육 참여도 2시간으로 간주하여 부모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부모교육을 합쳐 3시간(온라인 기본과정 1회, 오프라인 기본과정 교육 1회)을 수강하든지 오프라인 교육 2회 이상 수강 시에 이수증을 발급한다. 부모교육 이수증 발급과 동시에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우대, 자녀를 위한 장난감 제공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정부 지원 기관에서의 장난감 대여 기간 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수증 발급과 관련 인센티브 제공은 1회성으로 한다.

예비부모의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부모교육을 이수할 시에는 부모교육 이수증 발급과 더불어 자녀 출산 후 아기용품 등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포인트제의 관리

부모교육의 기본과정 외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부모교육을 수강할 시, 쿠폰을 적립(마이페이지 생성 → 쿠폰관리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부모교육 이수 시에는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포인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포인트 관리를 위한 비용 등이 많이 들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으나 포인트제의 도입이 부모교육의 활성화에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인트제를 시행할 시에 포인트의 구간을 정해서 미리 인센티브 제공 내역을 공지한다(예: 1000~2000점: ~ 제공 등 놀이 문화시설 이용 시 이용). 또한, 포인트의 상한점을 설정하고 상한점 이상이면 본인이 원하면 더 듣는 것으로 안내한다. 포인트 적립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으로는 세금 혜택, 주차비 할인 혜택, 어린이집 입소 순위 우대 점수 부여, 맞벌이 부모 대상 부모교육 참여를 위한 특별 휴가 지원, 전문가와 1:1로 상담할 수 있는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본 연구의 부모 면담 결과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부모교육 용어 변경 등을 통한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부모교육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부모는 교육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이고 자

발적인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긍정적인 용어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역량 강화 등의 용어로 변경하는 등을 포함한 적절한 용어 공모 등을 통한 보다 긍정적 이미지의 용어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7) 취약계층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 저소득으로 인하여 일을 해야만 하는 부모,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부모, 일·가정 양립을 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 부모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부모교육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제도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가정방문과 같은 찾아가는 부모교육 안내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부모에게 부모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서 이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가정방문과 같은 찾아가는 부모교육

취약계층 가정 부모의 경우에는 시간의 제약(농번기 등) 및 접근성(부모교육 장소 및 디지털 매체 등)의 어려움 등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를 참작하여 취약계층 (조)부모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매체 사용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개별 방문을 통하여 조부모에게 필요한 손자녀 돌봄 교육을 제공하거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읍면지역/취약계층 대상 부모교육 소책자 및 브로슈어 전달 및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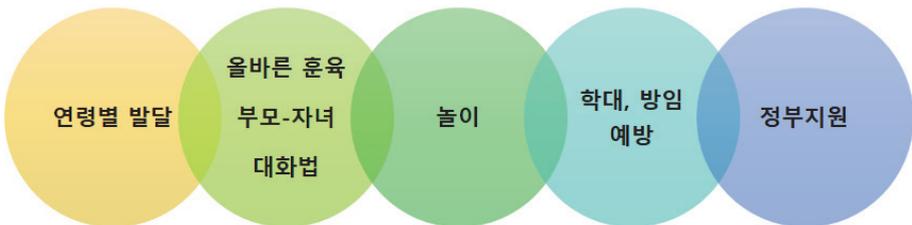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부모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참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관련 정보를 안내 받는 것도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안내 및 부모교육 내용(자녀 연령별 발달에 관한 이해 등)을 담은 소책자 및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도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가 개별 방문 시 부모교육 소

책자 등을 통해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부모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3. 포털 구축 시 정부 주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적용 예시(안)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안하였던 정부 주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포털 구축 시 제시할 부모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연령별 발달’, ‘올바른 훈육, 부모-자녀 대화법’, ‘놀이’, ‘학대, 방임 예방’, ‘정부지원’과 같다(그림 V-3-1 참조). 첫째, 언어, 신체, 정서 발달에 관한 내용이 자녀 연령별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유아 대상의 부모에게서 올바른 훈육에 대한 고민이 공유되었던 바, 부모-자녀 대화의 기본 방향, 훈육의 원칙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의 ‘놀이’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연령별 적합한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 학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 방임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중앙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부모교육 중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V-3-1] 정부 주관 부모교육의 키워드(안)



이상에서 제안하였던 부모교육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 부처별 산하기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정리해서 <표 V-3-1>에서 제시하였다. 향후 정부 주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에 다음에서 제시한 <표 V-3-1> 등을 토대로 연령별 부모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태아기와 같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 개발을 제안한다.

〈표 V-3-1〉 정부 부처별 산하기관의 영유아 연령별 부모교육 내용

구분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오프라인 부모교육 내용	시행기관 및 부처
태아기	<p>성인 예비부모 교육</p>	<p>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다양한 육아정책 및 지역서비스, 지역 내 육아정보 소개</p> <p>예비부모 교육: 준비된 부모의 중요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부모됨의 이해, 임신 출산과정 이해</p>	<p>육아종합지원센터[복지부]</p> <p>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p>
만 0세	<p>영아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 영아</p>	<p>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의 개별 특성 이해, 놀이 방법 및 상호작용 기술 안내</p> <p>가정내 양육/놀이환경 점검: 자녀 발달에 적합한 양육/놀이환경 점검 및 안전관리 중요성 인식</p> <p>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특성 및 중요성, 그에 따른 부모 역할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 실천 및 안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애착은 건강한 성장의 첫걸음</p>	<p>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p> <p>육아종합지원센터[복지부]</p> <p>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p> <p>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p>
만 1세	<p>영아 발달 이해: 자녀의 개별 특성 이해, 놀이 방법 및 상호작용 기술 안내</p> <p>부모의 양육태도 점검: 부모의 양육/놀이 참여 태도 점검, 긍정적 부모역할 촉진</p> <p>부모자녀 체험활동: 가족, 이웃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p> <p>애착은 건강한 성장의 첫걸음</p>	<p>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의 개별 특성 이해, 놀이 방법 및 상호작용 기술 안내</p> <p>부모의 양육태도 점검: 부모의 양육/놀이 참여 태도 점검, 긍정적 부모역할 촉진</p> <p>부모자녀 체험활동: 가족, 이웃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p> <p>애착은 건강한 성장의 첫걸음</p>	<p>육아종합지원센터[복지부]</p> <p>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p> <p>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p>



구분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오프라인 부모교육 내용	시행기관 및 부처
만 2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성 발달 및 성 행동의 이해 (교육용 영상) - 영유아 성행동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교육용 영상) - 영유아 성행동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지원해요 (교육용 영상) - 새우가 좋아서 그랬어 (좋아하는 마음을 스킴으로 표현하는 아이: 애니메이션) - 봄이는 아빠가 궁금해 (성에 따른 신체의 차이가 궁금한 아이: 애니메이션) - 물레 뱀서 미안해 (성 행동문제인지 걱정되는 아이: 애니메이션) 	<p>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의 개별 특성 이해, 놀이 방법 및 상호작용 기술 안내</p> <p>부모자녀 체험활동: 가족, 이웃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p>	<p>육이종합지원센터[복지부]</p>
			<p>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p>
만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멋진아이 골든벨① 자녀와 대화하기 (교육용 영상) - 멋진아이 골든벨② 종립언어로 말하기 (교육용 영상) - 멋진아이 골든벨③ 나의 대화신호등 알아보기 (교육용 영상) - 멋진아이 골든벨④ Oh! No대화, Oh! Yes대화 (교육용 영상) - 이제 같이 놀아도 돼? (또래간 다툼: 애니메이션) - 딱 한 개만 보려고 했는데... (미디어중독: 애니메이션) - 마음이 기울어지면 터지는 풍선! (형제간다툼: 애니메이션) - 장난감이 되어버린 전집 (놀이의 중요성: 애니메이션) <p>놀이는 법이다</p> <p>노는 아이, 놀고 싶어하는 아이: 유아</p>	<p>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의 개별 특성 이해, 놀이 방법 및 상호작용 기술 안내</p> <p>부모자녀 체험활동: 가족, 이웃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p>	<p>육이종합지원센터[복지부]</p>
	<p>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기</p>	<p>영유아기 자녀의 발달 특성 및 중요성, 그에 따른 부모 역할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 실천 및 안정적 부모자녀 관계 형성 높이는 법이다</p>	<p>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p> <p>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p>

구분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오프라인 부모교육 내용	시행기관 및 부처
만 5~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과의존 no, 스마트한 부모되기 yes (교육용 영상) - 엄마는 무무보다 스마트폰? (부모의 스마트폰 과의존 점검 필요성: 애니메이션) - 아빠와 몸이의 스마트폰 어드벤처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 애니메이션) - 통이아 엄마랑 놀자 (실제 놀이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은 아이: 애니메이션) 	<p>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의 개별 특성 이해, 놀이 방법 및 상호작용 기술 안내</p> <p>부모자녀 체험활동: 가족, 이웃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p>	<p>육아종합지원센터[복지부]</p>
	<p>우리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p>		<p>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p> <p>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p>
연령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1종) (교육용 영상) - 엄마 내가 싫어? (신체적 학대: 애니메이션) - 혼자 있는 건, 정말 무서워! (방임: 애니메이션) <p>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 부모와 자녀, 적절한 거리 부모도 배워야 한다 부모로 산다는 것 이것이 궁금하다</p>	<p>클로버 부모교육: 나, 아이, 가족, 이웃 주제로 구성 자녀의 권리 존중: 사례별 자녀 권리 인식 점검, 자녀 권리 존중의 의미 이해</p> <p>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사례별 이해, 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방법 안내</p> <p>양육스트레스 관리: 양육스트레스 요인 점검, 적절한 관리를 통한 양육 지원</p>	<p>육아종합지원센터[복지부]</p>
		<p>부모됨의 의미, 중요성,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습득, 부모로서의 나 점검</p>	<p>건강가정지원센터[여가부]</p>
	<p>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코칭의 이해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자녀가 받고 싶은 사랑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 영양관리</p>		<p>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p>



구분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오프라인 부모교육 내용	시행기관 및 부처
기타	<p>함께 하는 부모, 행복한 아이 (맞벌이) 한부모 가족의 자신만만 아이 키우기 (한부모) 재혼가족, 새롭게 거듭나기 (재혼가족) 함께 사는 다문화, 행복한 아이 (다문화) 지체로운 조부모의 눈높이 양육 (조손가정) 따로 또 함께 사랑을 키우는 가족 (비동거가족)</p> <p>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버지) 아빠는 놀이쟁이 (아버지)</p>	<p>아버지교육 1: 아버지팀의 의미와 중요성,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 아버지교육 2: 자녀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의 적절한 상호작용</p>	<p>육이중합지원센터[복지부] 건강기정지원센터[여가부] 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p>

주. 본 자료는 연구기간 중 기관의 홈페이지, 공개된 자료집, 기관별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추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



참고문헌

- 김길숙·김지현·이혜민(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미정·노성향·신용연(2015).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미정·이나련·정요한(2014).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민지(2014). 대구시 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구여성가족재단.
- 김소영·송효진·선보영·김연재·남지민·권소희(2016).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설·장혜진·김문정·Walker, S.(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이강이·김영선·권순범·정은화(2019). 학부모교육 관련 정부부처 개발·보급 자료 실태조사 연구.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
- 박창현·김근진·이은혜·배울미(2019). 장애 영유아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배옥현(2017).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통합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배옥현(2018).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 19).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2020년도 공통 부모교육 사업 운영안내.
-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2017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실적보고서.
- 윤혜민·최은정(2019). 국가 정책에 대한 언론과 SNS 반응의 감성 분석 연구 -아동 수당, 출산 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2), 195-200.

-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신혜원·신윤승·신영아·배성연·김영란 (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인선·윤덕경·이미정·김소영·장화정·강지영(201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이정림·이윤진·박현옥(2017).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최정원·최윤경(2019).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V): 아동보호 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임현정·문정희·김성순(2017). 부산지역 부모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0). 2020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자료집.
- 최은영·이윤진·김보미·장은미·김미옥(2019).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II):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Public Health England. (2014a).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Good quality parenting programmes. London: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5768/Briefing1a_Parenting_programme_health_inequalities.pdf. 2020. 11. 4. 인출.
- Public Health England. (2014b).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Good quality parenting programmes and the home to school transition. London: UCL Institute of Health Equit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5764/Review1_Early_intervention_health_inequalities.pdf. 2020. 11. 4. 인출.

【참고 사이트】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 2020. 10. 27.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0. 10. 27. 인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 2020. 10. 27. 인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index.do>, 2020. 10. 5. 인출.
-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ps/main.do>, 2020. 10. 27. 인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2020. 10. 30. 인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kxbAUwPcX5EF_XmCHQWoGg, 2020. 10. 30. 인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 2020. 10. 29. 인출.
- 학부모 On누리 홈페이지. <http://www.parents.go.kr/>, 2020. 11. 25. 인출,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d.). ACT/PARENTS Raising Safe Kids Program. <https://www.apa.org/pi/prevent-violence/programs/act>, 2020. 11. 24. 인출.
- Changing Children's Worlds Foundation. (n.d.). ICDP Parent Program. <https://www.changingchildrensworlds.org/>, 2020. 11. 24.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About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ttps://www.childwelfare.gov/aboutus/>, 2020. 11. 24.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Parent Education Programs.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parented/>, 2020. 11. 24.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Preventing Child Abuse & Neglect.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 2020. 11. 24.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Prevention Programs.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

- [//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http://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 2020. 11. 24. 인출.
- Circle of Security. (n.d.). Resources for Parents. <https://www.circleofsecurityinternational.com/resources-for-parents/>, 2020. 11. 20. 인출.
-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n.d.). 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 <https://guidebook.eif.org.uk/programme/home-instruction-for-parents-of-preschool-youngsters>, 2020. 11. 5. 인출.
- Education Bureau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d.). 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index.html>, 2020. 11. 4. 인출.
- Education Bureau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d.). 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Children's Growth.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childrens_growth.html, 2020. 11. 6. 인출.
- Education Bureau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d.). 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Children's Uniqueness.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childrens_uniqueness.html, 2020. 11. 6. 인출.
- Education Bureau -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n.d.). Parent Education Information at Kindergarten Stage, Quality Kindergarten Education. https://www.edb.gov.hk/en/student-parents/parents-related/parent-info/kindergarten_education.html, 2020. 11. 6. 인출.
- EDUCATION.govt.nz for Parents. (n.d.). <https://parents.education.govt.nz/>, 2020. 11. 20. 인출.
- EDUCATION.govt.nz for Parents. (n.d.). Child protection.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child-wellbeing-and-participation/child-protection/>, 2020. 11. 20. 인출.

- EDUCATION.govt.nz for Parents. (n.d.). Learning ideas.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teaching-and-learning/learning-ideas/>, 2020. 11. 20. 인출.
- EDUCATION.govt.nz for Parents. (n.d.). Staying calm with a crying baby.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child-wellbeing-and-participation/staying-calm-with-a-crying-baby/>, 2020. 11. 20. 인출.
- Family Nurse Partnership. (n.d.). What is FNP?. <https://fnp.nhs.uk/about-us/what-is-fnp/>, 2020. 11. 5. 인출.
- FAST-Families & School Together. (n.d.). FAST Program. <https://www.familiesandschools.org/what-we-do/fast-program/>, 2020. 11. 6. 인출.
- FAST-Families & School Together. (n.d.). Program Basics. <https://www.familiesandschools.org/what-we-do/fast-program/program-basics/>, 2020. 11. 6. 인출.
- Just in Time Parenting. (n.d.). Parenting information when you need it. <https://jitp.info/>, 2020. 11. 20. 인출.
- Nuturing Parenting. (n.d.). About Us. <https://www.nurturingparenting.com/about.html>, 2020. 11. 20. 인출.
- Nuturing Parenting. (n.d.). Our Catalog. <https://www.nurturingparenting.com/flipbook>, 2020. 11. 20. 인출.
- Parent as Teachers. (n.d.). Parents as teachers virtual training. <https://parentsasteachers.org/trainingcurriculagallery#PAT-CORE-TRAINING>, 2020. 11. 20. 인출.
- Parenting inside out. (n.d.). Welcome to Parenting Inside Out. <http://www.parentinginsideout.org/welcome-to-parenting-inside-out/>, 2020. 11. 20. 인출.
- PEP-Educating parents, Enriching Families. (n.d.). Who We Are. <https://pepparent.org/who-we-are/>, 2020. 11. 20. 인출.
- PEP-Educating parents, Enriching Families. (n.d.). Why PEP?. <https://pepparent.org/why-parenting-education/why-pep/>, 2020. 11. 20. 인출.

The Incredible Years. (n.d.).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s. <http://www.incredibleyears.com/programs/parent/>, 2020. 11. 20. 인출.

Triple P. (n.d.). What is Triple P. <https://www.triplep-parenting.net/global/about-triple-p/what-is-triple-p/>, 2020. 11. 20. 인출.

Turning in to Kids. (n.d.). Our programs. <https://tuningintokids.org.au/about/our-programs/>, 2020. 11. 20. 인출.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권리·복지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아동수당과 다양한 부모교육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선문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구/군 () 동/읍/면

선문3.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선문3-1
- ② 없음 ☞ 조사 중단
- ③ 없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중 ☞ 문 1번

선문3-1. 귀하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습니까?

- ① 예 ☞ 선문3-2
-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선문3-2. 귀하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총 자녀 수 () 명

선문3-3. 귀하의 **막내** 자녀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 ① 만 0세 (0~12개월 미만)
- ② 만 1세 (12~24개월 미만)
- ③ 만 2세 (24~36개월 미만)
- ④ 만 3세 (36~48개월 미만)
- ⑤ 만 4세 (48~60개월 미만)
- ⑥ 만 5세 (60~72개월 미만)
- ⑦ 만 6세 (72~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선문3-4. 귀하의 막내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 ☐ ② 유치원
- ③ 초등학교 ☐ ④ 가정 양육(기관에 다니지 않음)

I. 부모교육 참여경험

부모교육

-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아동의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해 전달받는 교육 활동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 상담,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을 포함

1. 귀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2번 ② 아니오 ☞ 문 1-1번

1-1.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②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③ 원하는 내용의 부모교육 기회가 없어서
 ④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⑤ 부모교육을 듣고 싶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응답 후 문 2-1

1-2. **처음 부모교육을 받으셨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결혼 전
 ② 출산 전
 ③ 자녀 영아기(만3세 미만)
 ④ 자녀 유아기(만3세 이상)
 ⑤ 기타(구체적으로:)
☞ 선문3에서 ③ 응답자는 ①, ②만 응답 가능

1-3. 참여했던 **부모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병원/보건소/산후조리원
 ② 자녀 재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③ 직장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⑥ 학부모지원센터
 ⑦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⑧ 종교단체
 ⑨ 백화점, 대형마트
 ⑩ 온라인 강좌
 ⑪ 기타(구체적으로:)

☞ 선문3에서 ③ 응답자는 ② 응답 불가

1-4. 부모교육은 어떤 경로로 접하고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가장 많이 접했던 방법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를 받고
- ②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 ③ 길거리 전단이나 광고 안내물을 보고
- ④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로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5.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주된 이유**를 **1, 2 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 ② 영유아 생활습관·놀이·학습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 ③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④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 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 ⑥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6.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문 1-8번
- ② 불만족 ⇨ 문 1-8번
- ③ 보통
- ④ 만족 ⇨ 문 1-7번
- ⑤ 매우 만족 ⇨ 문 1-7번

1-7.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내용이 알차고 전문적이어서
- ② 재미가 있어서
- ③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 있어서
- ④ 실제 적용이 쉬워서
- ⑤ 교육 내용이 관심사에 가까워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8.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내용이 부실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② 재미가 없어서
 ③ 궁금한 것을 직접 물을 수 없어서
 ④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아서
 ⑤ 교육 내용이 관심사 밖이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거나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분	2-1. 인식 여부		2-2. 참여 여부		2-3. 참여 방식	
	① 들어본 적 없다 ☞ 문 3번	② 들어본 적 있다 ☞ 문 2-2번	① 참여한 적 없다 ☞ 문 3번	② 참여한 적 있다 ☞ 문 2-3번	① 오프라인	② 온라인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학부모지원센터						

2-4. 참여했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학부모지원센터					

II.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3.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가운데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라면 영유아기 자녀발달과 양육에 관한 최소한의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부모로서의 자질이 다르므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받으면 된다.
- ③ 책, TV,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정보 습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영유아기 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목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권리 증진
- ② 부모-자녀 및 가족관계 만족도 향상
- ③ 아버지 양육참여 지원을 통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
- ④ 자녀의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정보 제공을 통한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
- ⑤ 가족특성별 부모교육 지원으로 가족형태 간 양육의 격차 해소
- ⑥ 육아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자녀 연령에 따라 해당 시기에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 태아기부터 만6세까지 자녀 연령별로 <보기>에서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보기 >	
① 자녀 신체발달 관련(소근육/대근육 발달 등)	② 자녀 언어발달 관련
③ 자녀 인지발달 관련	④ 자녀 사회정서발달 관련(애착, 또래관계 등)
⑤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 관련	⑥ 자녀와의 대화법
⑦ 자녀 학습 지원 관련(예: 온라인 교육 팁)	⑧ 자녀 훈육 관련(예: 민주적 훈육법)
⑨ 젓병 떼기, 이유식 등 신생아 양육 방법	
⑩ 배변훈련, 식습관지도, 수면습관지도 등 기본생활습관 형성 방법	
⑪ 자녀 건강 및 영양 관련(질병 관련 정보, 영양 관리 등)	
⑫ 시기와 상황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양육관련 정보(예: 코로나19 대비 심리방역)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자녀 연령	1순위	2순위
태아기		
만 0세 (12개월 미만)		
만 1세 (12~24개월 미만)		
만 2세 (24~36개월 미만)		
만 3세 (36~48개월 미만)		
만 4세 (48~60개월 미만)		
만 5세 (60~72개월 미만)		
만 6세 (72~83개월, 초 1)		

6.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부모교육 기관 간 사업 운영의 차별화 및 협력 방안 마련
 ② 부모교육 내용, 이용절차 등에 관한 홍보 확대
 ③ 자녀 성장시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④ 온라인교육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교육방식의 다양화
 ⑤ 부모교육 참가 시 자녀 돌봄 제공
 ⑥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위기가족 등 가족형태별 부모교육 확대
 ⑦ 부모교육 전문 강사 관리 및 육성 방안 마련
 ⑧ 기타(구체적으로:)

Ⅲ.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아동수당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7. 귀하는 수당을 받기 전에 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8. 아동수당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각종 매체
- ②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안내
- ③ 주변 지인
- ④ 기타()

9. 아동수당을 어떻게 신청하십니까?

- ① 복지로
- ② 스마트폰 어플
- ③ 읍.면.동 주민센터

10. 현재 받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문 9-1번
 - ② 불만족 ⇨ 문 9-1번
 - ③ 보통 ⇨ 문 10번
 - ④ 만족 ⇨ 문 10번
 - ⑤ 매우 만족 ⇨ 문 10번
- ⇨ 선문3에서 ③ 응답자는 9번 문항 응답 안함

10-1. **불만족**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충분치 않아서
- ② 지급 연령이 제한되어 있어서
- ③ 연령별 비용 차등이 없어서
- ④ 수당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 ⑤ 수당 지급 방식이 다양하지 않아서
- ⑥ 기타()

11. 모든 소득계층이 영유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현재의 아동수당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 ②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 문 10-1

11-1. 아동수당을 어떻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 ② 출생순위별,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 ③ 자녀연령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예: 0-2세 10만원, 2-4세 15만원 등)

12. 아동수당 지급 시에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임 ⇨ 문 12-1
- ② 부정적임 ⇨ 문 12-1
- ③ 보통 ⇨ 문 13
- ④ 긍정적임 ⇨ 문 12-2
- ⑤ 매우 긍정적임 ⇨ 문 12-2

12-1.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12-2.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13.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이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오프라인 교육 ⇨ 문 14번
- ② 온라인 영상 교육 ⇨ 문 15번
- ③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의 결합 ⇨ 문 16번
- ④ 인쇄물 통한 서면교육 ⇨ 배문 1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배문 1

14. 아동수당과 연계된 **오프라인 부모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희망하는 부모교육 횟수, 시간, 장소, 집단 규모를 기입해 주십시오.

14-1. 부모교육 횟수	연간 () 회													
14-2. 부모교육 1회 시간	() 시간 () 분													
14-3. 원하는 교육장소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table border="1"> <tr> <th colspan="2">〈 보기 〉</th> </tr> <tr> <td>① 어린이집/유치원</td> <td>② 육아종합지원센터</td> </tr> <tr> <td>③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td> <td></td> </tr> <tr> <td>④ 학부지원센터</td> <td>⑤ 도서관/복지관</td> </tr> <tr> <td>⑥ 주민자치센터</td> <td>⑦ 직장</td> </tr> <tr> <td>⑧ 보건소</td> <td>⑨ 산부인과</td> </tr> <tr> <td>⑩ 산후조리원</td> <td>⑪ 기타(구체적으로:)</td> </tr> </table>	〈 보기 〉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학부지원센터	⑤ 도서관/복지관	⑥ 주민자치센터	⑦ 직장	⑧ 보건소	⑨ 산부인과	⑩ 산후조리원
〈 보기 〉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학부지원센터	⑤ 도서관/복지관													
⑥ 주민자치센터	⑦ 직장													
⑧ 보건소	⑨ 산부인과													
⑩ 산후조리원	⑪ 기타(구체적으로:)													
14-4. 교육방식	()													
	<table border="1"> <tr> <th colspan="2">〈 보기 〉</th> </tr> <tr> <td>① 특강/강연회</td> <td>② 부모를 위한 워크숍(체험)</td> </tr> <tr> <td>③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td> <td>④ 참가자 간 토론</td> </tr> <tr> <td>⑤ 기타(구체적으로:)</td> <td></td> </tr> </table>	〈 보기 〉		① 특강/강연회	② 부모를 위한 워크숍(체험)	③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	④ 참가자 간 토론	⑤ 기타(구체적으로:)						
〈 보기 〉														
① 특강/강연회	② 부모를 위한 워크숍(체험)													
③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	④ 참가자 간 토론													
⑤ 기타(구체적으로:)														
14-5. 집단 규모	()													
	<table border="1"> <tr> <th colspan="2">〈 보기 〉</th> </tr> <tr> <td>① 일대일</td> <td>② 5인 미만</td> </tr> <tr> <td>③ 5~10인 미만</td> <td>④ 10~20인 미만</td> </tr> <tr> <td>⑤ 20인 이상</td> <td></td> </tr> </table>	〈 보기 〉		① 일대일	② 5인 미만	③ 5~10인 미만	④ 10~20인 미만	⑤ 20인 이상						
〈 보기 〉														
① 일대일	② 5인 미만													
③ 5~10인 미만	④ 10~20인 미만													
⑤ 20인 이상														

☞ 응답 후 배문1

15. 아동수당과 연계된 **온라인 부모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희망하는 부모교육 횟수와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15-1. 부모교육 횟수	연간 () 회							
15-2. 부모교육 1회 시간	() 시간 () 분							
15-3. 교육방식	① 실시간 참가자 토론 ☞ 문 15-4번 ② 실시간 강의 ☞ 문 15-4번 ③ 상시 개설 강의 ☞ 배문1							
15-4.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집단 규모	()							
	<table border="1"> <tr> <th colspan="2">〈 보기 〉</th> </tr> <tr> <td>① 일대일</td> <td>② 5인 미만</td> </tr> <tr> <td>③ 5~10인 미만</td> <td>④ 10~20인 미만</td> </tr> <tr> <td>⑤ 20인 이상</td> <td></td> </tr> </table>	〈 보기 〉		① 일대일	② 5인 미만	③ 5~10인 미만	④ 10~20인 미만	⑤ 20인 이상
〈 보기 〉								
① 일대일	② 5인 미만							
③ 5~10인 미만	④ 10~20인 미만							
⑤ 20인 이상								

☞ 응답 후 배문1

16. 아동수당과 연계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부모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희망하는 부모교육 횟수, 시간, 장소, 집단 규모를 기입해 주십시오.

16-1. 부모교육 횟수	연간 오프라인 () 회, 온라인 () 회														
16-2. 부모교육 1회 시간	오프라인	() 시간 () 분													
	온라인	() 시간 () 분													
16-3. 오프라인 교육 시 참여를 원하는 교육장소 (1, 2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보기 〉</th> </tr> </thead> <tbody> <tr> <td>① 어린이집/유치원</td> <td>② 육아종합지원센터</td> </tr> <tr> <td>③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td> <td></td> </tr> <tr> <td>④ 학부모지원센터</td> <td>⑤ 도서관/복지관</td> </tr> <tr> <td>⑥ 주민자치센터</td> <td>⑦ 직장</td> </tr> <tr> <td>⑧ 보건소</td> <td>⑨ 산부인과</td> </tr> <tr> <td>⑩ 산후조리원</td> <td>⑪ 기타(구체적으로:)</td> </tr> </tbody> </table>		〈 보기 〉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학부모지원센터	⑤ 도서관/복지관	⑥ 주민자치센터	⑦ 직장	⑧ 보건소	⑨ 산부인과	⑩ 산후조리원
〈 보기 〉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학부모지원센터	⑤ 도서관/복지관														
⑥ 주민자치센터	⑦ 직장														
⑧ 보건소	⑨ 산부인과														
⑩ 산후조리원	⑪ 기타(구체적으로:)														
16-4. 오프라인 교육방식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보기 〉</th> </tr> </thead> <tbody> <tr> <td>① 특강/강연회</td> <td>② 부모를 위한 워크숍(체험)</td> </tr> <tr> <td>③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td> <td>④ 참가자 간 토론</td> </tr> <tr> <td>⑤ 기타(구체적으로:)</td> <td></td> </tr> </tbody> </table>		〈 보기 〉		① 특강/강연회	② 부모를 위한 워크숍(체험)	③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	④ 참가자 간 토론	⑤ 기타(구체적으로:)						
〈 보기 〉															
① 특강/강연회	② 부모를 위한 워크숍(체험)														
③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	④ 참가자 간 토론														
⑤ 기타(구체적으로:)															
16-5. 오프라인 교육 시 집단 규모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보기 〉</th> </tr> </thead> <tbody> <tr> <td>① 일대일</td> <td>② 5인 이하</td> </tr> <tr> <td>③ 6~10인 이하</td> <td>④ 10~20인 이하</td> </tr> <tr> <td>⑤ 20~30인 이하</td> <td>⑥ 30인 이상</td> </tr> </tbody> </table>		〈 보기 〉		① 일대일	② 5인 이하	③ 6~10인 이하	④ 10~20인 이하	⑤ 20~30인 이하	⑥ 30인 이상					
〈 보기 〉															
① 일대일	② 5인 이하														
③ 6~10인 이하	④ 10~20인 이하														
⑤ 20~30인 이하	⑥ 30인 이상														
16-6. 온라인 교육 방식	① 실시간 참가자 토론 ☞ 문 16-7번 ② 실시간 강의 ☞ 문 16-7번 ③ 상시 개설 강의 ☞ 배문1														
16-7.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집단 규모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보기 〉</th> </tr> </thead> <tbody> <tr> <td>① 일대일</td> <td>② 5인 이하</td> </tr> <tr> <td>③ 6~10인 이하</td> <td>④ 10~20인 이하</td> </tr> <tr> <td>⑤ 20~30인 이하</td> <td>⑥ 30인 이상</td> </tr> </tbody> </table>		〈 보기 〉		① 일대일	② 5인 이하	③ 6~10인 이하	④ 10~20인 이하	⑤ 20~30인 이하	⑥ 30인 이상					
〈 보기 〉															
① 일대일	② 5인 이하														
③ 6~10인 이하	④ 10~20인 이하														
⑤ 20~30인 이하	⑥ 30인 이상														

배문5. 귀 닻에 거주하는 가구원 중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가구원이 있습니까?

- ① 예 ⇨ 배문5-1
 ② 아니오 ⇨ 배문6

배문5-1. 귀 닻에 거주하는 가구원 중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가구원**을 기입하십시오.
 (배문4에서 해당하는 가구원 번호를 찾아 각각 기입하십시오.)

1) 장애	2) 질병	3) 장애·질병
(), (), ()	(), (), ()	(), (), ()

배문6. 귀 닻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배문7. 귀 닻은 **현재 취업 중**입니까?

- ① 예(휴직 중 포함)
 ② 아니오

배문8. 귀 닻의 가정은 **맞벌이** 이십니까? **외벌이** 이십니까?

- ① 맞벌이
 ② 외벌이
 ③ 소득 없음(일시적 실업 포함)

배문9. 귀 닻의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몇 시간입니까?

주당 ()시간

배문8. 귀 닻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 3년제) 대학 졸
 ③ 4년제 대학 이상
 ④ 대학원 이상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5. 귀하는 **현재 취업 중**입니까?

- ① 예 (휴직 중 포함) ☞ 문 6번 ② 아니오 ☞ 문 8번

6.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 이십니까? **외벌이** 이십니까?

- ① 맞벌이
 ② 외벌이
 ③ 소득 없음(일시적 실업 포함)

7. 귀하의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몇 시간입니까?

주당 ()시간

8.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2, 3년제) 대학 졸
 ③ 4년제 대학 이상
 ④ 대학원 이상

9. 자녀정보

자녀	만 연령	성별	자녀 기관 정보
자녀 1	만 ()세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기관 미이용
자녀 2	만 ()세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기관 미이용
자녀 3	만 ()세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기관 미이용
자녀 4	만 ()세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기관 미이용
임신 중	임신 ()개월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방안 연구